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
"無始無終, 오로지
오늘만 있을 뿐"
8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8월 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07호 2014년 8월 28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고려 불교 금속공예 정수 조선 서원터서 대거 발굴

문화유산硏, 도봉서원 발굴
'도봉사' 명문 유물 77점 발견
고려 도봉사와 관계 밀접 추정
금강령·금강저 예술성 우수
"국보 지정도 검토할만 하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교서원 자리에서 고려 명찰인 도봉사의 불교문화재가 대거 출토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과 발굴조사단인 서울문화유산연구원(원장 김일규)은 8월 2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2012년 5~9월 진행한 도봉서원터 발굴조사 결과물인 불교용구 일체를 공개했다.

도봉서원터는 1481년까지는 조선 초기 사찰인 영국사가 있었으며 1573년 영국사 터의 기단 등을 활용해 도봉서원이 창건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국사와 도봉서원 기단부에서 '도봉사'(道峯寺)가 새겨진 청동제기와 고려시대 불교유물 77점이 발견돼 고려시대 도봉사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조사에 따라서는 이 곳이 원래 고려 초기 도봉사의 원래 자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봉사는 고려 4대 광종 때 국사 혜거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거란 침입 당시 8대 현종이 거처를 옮겨 국사를 돌보기도 한 대찰이다. 사찰과 함께 역원 기능도 함께 가져 도봉원(高達院)으로도 불렸으며 여기서 현재 도봉산의 지명도 유래했다. 1961년 벽암 스님에 의해 복원된 도봉사는 이번 발굴조사가 진행된 도봉서원 터와 계곡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다.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금강령(좌측)과 금강저, 도봉서원터에서 매납된 '도봉사' 명문 청동솥 안에서 발견됐다.

영국사는 발굴조사에서 '대시주 효령대군' 명문기와 발견돼 조선 세종 대 창건된 사찰로 추정된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성종 때인 1481년까지 존속된 사찰임을 나타내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영국사에서 수륙재와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수재가 봉행된 기록이 있다.

발굴과정에서 발견된 불교문화재는 총 77점으로 이를 담은 청동솥에는 '도봉사'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출토 유물은 금동제 금강저(金剛杵)와 금강령(金剛鈴)을 비롯해 △청동제 뚜껑항아리(有蓋壺)와 뚜껑합(有蓋盒) △현향로(懸香爐)와 부형대향로(釜形大香爐) 등 청동제 등이다.

현덕만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조사팀장은 "'도봉사' 청동제기 등은 고려 전기 것으로 확인 됐다"며 "영국사 조성 당시 도봉사 제기들을 이용하고 땅에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밀교의식에 널리 쓰이던 금강령과 금강저는 기존에 볼 수 없는 독특함과 예술적 우수함을 지니고 있다. 금강령과 금강저는 12세기 중반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제작 기법이 우수하고 보존상태가 뛰어나 국보 지정의 가능성이 높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이에 대해 "국보 지정도 검토할 만 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금속공예 전공인 최응천 동국대 교수는 "금속공예품의 경우 대부분 실제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이번 출토유물은 큰 솥에 작은 법구류부터 차곡차곡 챙겨 넣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절이 폐사가 되거나 창건 당시 의식 일환으로 매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미뤄, 도봉사지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많은 고대 불교 법구가 출토된 사례는 1993년 청주 사뇌사(思惱寺) 지 발굴에서 400여 점이 출토된 것을 비롯해 창녕 말흘리 유적과 군위 인각사지 발굴 성과가 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한국 종교지도자들은 8월 18일 서울 명동 주교좌성당 꼬스트홀 1층에서 14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남을 가졌다.

사진 제공=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

"우리는 형제, 함께 걸어갑시다"

자승 스님 등 종교지도자, 18일 교황과 만남

지난 8월 14일 방한해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한 후 출국한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과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들이 만남을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 12명은 8월 18일 오전 9시 서울 명동 주교좌성당 꼬스트홀 1층에서 '이웃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교황은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 위원장인 김희중 대주교의 안내에 따라 자승 스님 등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합장으로 인사하며 짧은 환영의 말을 건넸고, 교황도 두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후 교황은 기념촬영을 하며 즉석인사를 하기도 했다. 교황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종교 지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우리는 형제들이다. 형제들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국 종교지도자와 만남을 가진 교황은 명동성당으로 자리를 옮겨 방한 마지막 일정인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했다. 예배당에 들어 온 교황은 맨 앞에 앉아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허리를 굽히고 한 사람씩 인사를 나누며 대화했다. 할머니 중 김복동(89) 씨가 교황에게 노랑나비 뱃지를 건넸고, 교황은 그 자리에서 이 뱃지를 제의에 달았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8월 18일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교황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프란시스코 교황 방한은 종교를 떠나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지금 여기서 희망을 찾아가도록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온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세월호 문제에 대해 자비로운 눈과 손길로 어루만져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관련 기사 31면〉

'호국 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본격화

조계종, 27일 추진위 발족… 서명운동 등 전개
민초 위해 분연히 일어서
韓 전란사 내 업적 '뚜렷'

서산, 영규, 사명 대사 등 한국 호국불교 정신을 기리는 '호국 의승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조계종은 오는 8월 27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호국 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 행사 후에는 참석 내외빈의 서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호국 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실제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의 위기 때 불교는 의승군으로 활동하는 등 적지 않는 도움을 줬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 직후 선조는 서산 대사에게 '팔도십육종도총섭(八道十六宗都摠攝)' 직을 수여하고 나라와 백성을 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산대사께서는 계를 파하는(越戒)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오직 국가와 백성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명 대사, 처영 대사, 영규 대사 등 제자들과 함께 5천여 명의 의승군을 소집했다.

서산 대사는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평양성 전투에 참여해 왜적을 퇴각시켰고, 처영 대사는 권율과 함께 행주산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사명대사는 노원평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한성 수복에 큰 역할을 했으며, 800여 명의 전라좌수영 의승은 수군이 승리를 거두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임진왜란 이후 조정은 스님들을 다시 평가하고 나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등 산성의 축성과 수비를 승군에게 맡겼다. 일제강점기에도 스님들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등에 참여했고, 국내 독립운동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 조정은 승장과 승군의 공훈을 인정해 대흥사, 표충사 등에 사액을 내리고 국가제향을 지내도록 했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국가제향의 맥은 끊어지게 됐다.

한국불교의 호국애민 정신이 퇴색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음을 직시한 조계종은 전문 학자들의 연구와 세미나를 열고 '호국 의승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을 주장해왔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호국불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집, 편람들을 제작했다.

지난 6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은 '호국 의승의 날'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고 중앙종회는 '호국 의승의 날' 제정 사업을 종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임진왜란 등 전란사에서 의승군의 족적은 뚜렷함에도 이를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이제라도 의승군을 제대로 조명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발족식 차주 상보〉

현대불교 지사 모집

현대불교신문 지역 주재기자 및 지사장을 모십니다

모집 지역 및 부문
- 부 산: 부산지역 일원에서 활동할 주재기자 및 지사장
- 충 청: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활동할 지사장

지사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 확장 및 광고 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 활동 지원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단체장) 다만, 주재기자는 포교활동계획서, 추천서 제외
- 제출기한 : 모집 완료시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제 출 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신문사
문 의 : 관리부 서춘건 부장
전 화 : 02)2004-8204 팩 스 : 02)737-0698
이메일 : cgseo@hyunbul.com

1007호 INDEX

연중기획 5
탐진치 줄이기-행복으로 가는 길

종합 2·3
스님들, 인성교육 전문가 '발돋움'
종교지도자 세월호 단식장 위로 방문
불교평론 창간 15주년 심포지엄 연다

화엄만다라 16·17
국제구호활동가 김재령 씨

문화 20
불교TV 4인4색 즉문즉설 '눈길'

불교로 읽는 고전 24
A.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디자인 등록원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청동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종단의 '붓다로 살자' 운동의 원만 진행을 위해 친필 휘호를 내렸다.

종정 진제 스님, '붓다로 살자' 친필 내려

17일 용인 법륜사 만일결사 입재식서 전달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천 운동인 '붓다로 살자'의 원만한 진행을 기원하는 휘호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7월 10일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격려의 마음을 담아 휘호를 썼고, 결사추진본부는 8월 17일 새로운 만일결사 입재법회를 봉행한 용인 법륜사(주지 현암)에 이를 전달했다.

법륜사는 지난 4월 14일 법화경 독송 3년 정진기도를 회향하며 '붓다로 살자' 결사 정진을 서원한 바 있다.

한편, 결사추진본부는 '붓다로 살자'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결사도량 사찰과 단체에게 진제 스님의 휘호를 전달해 종도들이 자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용인 법륜사에 이어 8월 25일에는 '붓다로 살자' 결사 도량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도 초하루법회를 통해 전달식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사회 혁신하지 못하면 위기 직면할 것"

조계종 교육원, 유시민 前 장관 초청 워크숍

교육연구자 40여 명 참석
"타인에 대한 연민 있어야
사회 혁신, 이뤄질 수 있어"



"미래사회는 고령화와 화석 에너지 고갈이라는 위기 요인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거시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필요한 혁신을 제때 못하면 우리는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유시민 前 복지부장관〈사진〉은 8월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개최한 '2014 승가교육 전문연구자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히며, 현재 한국사회의 혁신을 주장했다.

유 前 장관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훌륭한 사람'을 선출해야 하지만 현재는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전횡할 수 없도록 하는데 머물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와 같은 최저수준을 겨우 획득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로 유 前장관은 △소수의견을 배제하는 선거제도 △지역주의에 편승한 투표행태 △정경유착과 부패 △경직된 관료주의 △헌법정신의 이해 부족 등을 들었다.

유 前 장관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시민들 각자가 훌륭해져야 하고 훌륭한 시민들이 국정에 최대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결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와 에너지 고갈로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진단한 유 前 장관은 민주적 복지국가로 진화하기 위해 △시민의 기본권 보장 △보편적 · 선별적 복지제도의 확대와 확충 △비정규직 등 부당한 차별 철폐 △재벌 등 특수 계급에 대한 법치 확립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제도 전면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화와 에너지 위기가 요구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이뤄야 한다"면서 "각자의 욕망과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연민, 공감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이뤄야만 사회 혁신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해 승가 교육 전문연구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신성민 기자

스님들, 청소년 인성교육 전문가로 '발돋움'

한마음과학원 '한나무인성교육지도자과정', 조계종 승려연수로 인정

오는 9월 20일부터 5주간 실시
출재가 교육전문가 강사진 참여
'마음수행' 바탕 인성교육법 강의
9월 13일까지 모집… 정원 40명

스님들이 인성교육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승려 연수가 시행된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은 8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마음과학원의 '한나무인성교육지도자과정'이 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정돼 오는 9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한나무인성교육지도자과정'은 한마음과학원이 2003년부터 연구해 교육 현장에서 적용해 온 '한나무인성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나무인성교육프로그램'은 2012년 교육부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의 학교부문 우수프로그램으로도 선정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도 청소년심성교육프로그램으로도 인증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2010년에는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라는 이름으로 초등용 교사 지도서와 학생용 워크북, 중등용 지도서와 워크북을 출판하여 다양한 인성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한나무인성교육지도자과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데에서 기획됐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 인성교육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과 교육훈련을 제공받고 인성교육 지도자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9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5주간 진행되는 지도자 과정은 바람직한 소통 방식부터 마음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가는 교수법을 강의한다. 수업방식은 강의와 토론, 놀이와 체험, 실습 등 청소년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교재도 기존 활용 교재가 아닌 스님들에게 맞춘 교재가 따로 제작 · 배포된다.

강사진도 눈길을 끈다. 연수 과정의 강사로는 오랫동안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강사로 활동해 온 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과 김영래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민선 도계초등학교 교사, 박종래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CEO, 황수경 동국대 명상심리상담학과 강사,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한다.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실장은 "'한나무' 인성교육의 핵심은 마음수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교화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나무인성교육지도자과정'의 핵심은 세계를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인식하고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계발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스님들이 인성교육 부재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과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도법사 혜찬 스님은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스님들부터 배워야 한다"며 "학교폭력과 왕따 등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두워진 아이들 마음을 밝히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무인성교육지도자과정은 오는 9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인성교육에 관심이 많은 조계종 스님으로 정원은 40명까지다. 모든 과정을 이수할 때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연구교육 점수 30점을 부여받는다.

한편, 1996년 한마음심성과학연구원으로 시작된 한마음과학원은 18년간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이 아니라는 한마음의 원리를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증명하는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한마음공생실천과정,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 학부모를 위한 마음공부과정, 한마음아버지마당 등의 프로그램이 개발 · 운영하고 있으며, 마음수행에 근간한 사회교육, 리더십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다.

문의 031)470-3200 / 3196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월호 아픔은 국민 모두의 아픔"

자승 스님 등 종교지도자들
21일 세월호 단식장 위로 방문
진상규명 가능한 특별법 촉구
"정부는 국민에 최선 다해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종교지도자들이 8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단식장을 찾아 39일째 단식투쟁 중인 김영오 씨의 건강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세월호의 아픔은 유가족들의 것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아픔입니다. 이 시대 주어진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김영주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총무 목사, 서정기 성균관 관장 등 종교지도자들은 8월 21일 세월호 단식장을 방문했다.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은 단식장에서 단식투쟁 중인 故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를 위로했다. 당시 김영오 씨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을 39일째 진행 중에 있었다.

이날 종교지도자들은 "세월호의 아픔은 국민 모두의 아픔"이라며 "대통령 면담을 비롯해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이 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승 스님은 "유민 아버지가 바라는 바와 소원성취 위해서 기도하고 기원하겠다"며 "단식이 40일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힘들지만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이어 종교지도자들은 단식장 부근에서 제정 촉구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각 종교, 시민단체를격려했다. 단식장에는 조계종 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장로회 측이 함께 단식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계 NGO연대 단체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불시넷은 성명에서 "세월호의 피해자는 유족들뿐만이 아니라 안전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온 국민이 피해자"라며 "정치권이 몰염치와 무능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 전에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용주사 신임 주지 성월 스님 선출

산중총회서… 성관 스님 사퇴



관심을 모았던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신임 주지에 성월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용주사는 8월 20일 신임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했다. 전체 구성원 203명 가운데 193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 1차 투표에서 성월 스님은 112표, 성관 스님은 79표를 받아 성월 스님이 우세했다. 하지만 산중총회 구성원의 2/3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산중총회법에 따라 당선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에 성관 스님은 1차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고, 결국 2차 투표없이 성월 스님의 주지 당선이 확정됐다.

주지 당선자 성월 스님은 1977년과 1979년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한 이래 2009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현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상임이사와 강화 정수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이 게 정말 가능해?" '자아실현교실' 개강 안내

강호 현인, 기사, 이인께 알립니다.

저 고복자 효사는 지난 15년 전부터 '육임강의록' 등 육임학습서와 '육임래정비법' 등 육임활용서를 많이 써내여러분의 호응을 받아왔고, 이를 '효사활인천역집Ⅰ · Ⅱ · Ⅲ' '효사비결' 등 육임CD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해 더 큰 애호를 받아오던 중 지난 2012년에 이르러 '미국동양학대학교'(고교미필자 · 대학입학인증/학사/학사단축/석사/석박통합/박사과정)를 설립해 한국, 중국, 독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번 교육당국으로부터 제가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방송 진실보도 만인보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인가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자아실현교실'을 열고, 아래 내용의 육임술을 단기간에 '진검승부적'으로 인도해 드릴 작정입니다.

학(學)이 아닌 술(術)은 오래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육임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시면 육임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3개월에 그 진수를 충분히 인도해드릴 것이며, 여러분은 이를 매우 익숙하게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육임의 진수를 얻어 가십시오!
더도 덜도 아닌 3개월입니다!

수강신청 과목

① 육임귀신술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귀신을 보는곳
나. 작사귀와 병 귀 구별법
다. 해소시킬 개소 및 물건 지적, 또는 해소 가능여부와 수법 효과여부 판단법
라. 불제 등 제거 방법(부적/제례) 실기 시범 등

② 육임사주감정술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육임가정법으로 일생의 대별 즉각 판단술
나. 육임천장법으로 일생 행로 즉각 판단술
다. 육임기궁법으로 일생 초, 중, 말년의 복분과 육친관계 즉각 판단술
라. 육임공망법으로 일생 운명 및 육친 기복여부 즉각 판단술 등

③ 육임풍수 묘지속판단술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 묘지에 물이 찼는가? 뱀 구덩이인가? 뼈가 뒤집어져 있는가? 없어져 버렸는가? 등
나. 이 묘지가 자손에게 어떤 탈을 부리는가? 무슨 이로움을 주는 가?
다. 이 묘지의 1대, 2대, 3대, 4대, 5대의 생업과 흥망성쇠 및 그 연유는?
라. 이 묘지의 육친은 조, 부, 모 형제자매 누구며, 이장을 해야 하나? 화장을 해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마. 육임 명당술 및 후손의 천부적 직업 교시술 등

④ 육임주식매매적기(滴期)술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언제, 어떤 종목의 주식을 얼만 큼 사면 이익이 될 것인가?
나. 지금 팔까?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 최고로 오르내릴 시기는 언제인가? 등

⑤ 육임부동산매매시기(時期)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내 집, 내 땅이 언제 팔릴까?
나.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인가? 더 갖고 있으면 오를 것인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 등

⑥ 경매, 낙찰 성공술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번 경매낙찰에 성공하겠는가? 실패하겠는가?
나. 낙찰 경매에 성공할 금액은 얼마인가?
다. 현장에 누구(띠)를 지정해 보내야 할 것인가? 직접 참여해야 하겠는가? 등

⑦ 위 전체과목 수강은 200만원 입니다.

⑧ 신청 절차
검색창 미국동양학대학교 검색 / 첫 창 우측 상단 '평생교육원' 클릭 등록
입금계좌 : 외환은행 630-008387-338 미국동양학대학교
9월 1일 저녁 위 해당과목부터 개강 함.

단, 자기 자신의 방향성에 고민하는 분, 또 치열하게 습득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저와 이내각 박사께서는 위 내용에 한해서만큼은 여러분을 '프로'로
인도해 드릴 것을 자신 있게 약속 드립니다.

강사 : 육임가 고복자 효사 02)738-8680 만인보 부설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미국동양학대학교 1층 강당

아시아 종교인 한반도서 '평화'를 논하다

ACRP, 8월 25~29일 인천 송도 일원서 8차 총회

'조화 속 하나되는 아시아' 주제… 여성대회도 열려

35개국 450명의 아시아종교인들이 참석하는 제8차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si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이하 ACRP)가 인천 송도에서 8월 25~29일 동안 열렸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1986년 제3차 총회이후 28년 만이다. ACRP 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며 전 총회인 7차 대회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다.

ACRP 한국지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자승 스님은 8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8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총회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CRP는 1976년 틱낫한 스님, 마더 테레사 수녀 등 아시아 종교지도자들의 발의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창립된 종교간 국제협력기구다. 한국, 북한, 네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18개 회원이 있다.

'조화속에 하나되는 아시아(Unity and Harmony In Asia)'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평화교육과 화해', '인권과 행복', '개발과 환경위원회' 등 세 분과로 이뤄진다. 총회기간동안 분과별로 회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주제로도 종교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펼친다.

사전대회도 열렸는데 8월 23~25일부터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국내청년 40명, 해외청년 45명이 참석하는 종교청년 평화캠프가, 25일에는 국내외 여성 160여명이 참가한 여성 대회가 개최됐다.

ACRP 측은 이번 대회 후 한반도 평화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단을 호소하는 선언문을 채택, 종교인들이 사회적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평화교육센터 건립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평화교육센터는 1986년 대회 때부터 추진돼왔으나 재정부족으로 상설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 센터가 건립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북간, 아시아 국가간 갈등을 치유하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승 스님은 "단독개최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ACRP를 통한 남북종교 교류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총회가 아시아종교지도자들의 뜻을 한데 모으고 세계평화를 위한 기초로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총회 현장 차주 상세보도〉

역대 ACRP 총회 주제 및 개최지

1회 종교를 통한 평화 (Peace Through Religion), 싱가포르(1976)
2회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종교 (Religion in Action for Peace), 인도 뉴델리(1981)
3회 아시아 평화의 가교 (Bridge of Peace in Asia), 한국 서울(1986)
4회 21세기를 향한 아시아의 종교 (Asian Religions Toward The 21st Century), 네팔 카트만두(1991)
5회 아시아의 이웃 (Our Asian Neighborhood), 태국 아유타야(1996)
6회 조정자로서의 아시아 (Asia the Reconciler), 인도 조크자카르타(2002)
7회 아시아에서의 화해 (Peacemaking in Asia), 필리핀 마닐라(2008)

1986년 이후 28년만에 한국 개최

종교인 5백명 집결해 협력 논의

전쟁 종식 선언문 채택 계획도

방재부품 보증기한 방재라인 재점검 필요

긴급 점검– 불교문화재가 위험하다

① 문화재 특별 점검을 통해 본 성보관리 실태
② 흔들리는 불교 건축문화재 보존 대책은
③ 아직도 부실 위험, 예방적 보존 '방재'

국보 · 보물급 불교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불꽃감지기와 방수총 등이 작동하지 않고 경보조차 울리지 않는 등 화재에 무방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불방재라인의 잘못 설정으로 일부 사찰은 화재 발생시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이 8월 7일 발표한 문화재 종합점검 결과 소방 · 방재시설의 작동 미흡으로 보완 개선이 시급한 불교문화재가 25%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의 점검에서는 전통사찰방재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이 시행된 사찰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교문화재의 경우 총 95건이 조사됐는데 이중 24건이 C등급을 지적받았다. 국보 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의 경우 방수펌프가 기동이 되지 않으며 불꽃감지기도 불량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물인 여주 신륵사 조사당의 경우 방수총이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 압력에 미달해 화재 대응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예 소방수가 없는 사찰도 있었다. 보물162호 대웅전과 181호 하 대웅전이 있는 청양 장곡사의 경우 수원 확보가 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였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5월 감사원의 목조문화재 소방 실태 점검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34개 목조문화재의 소방시설을 표본 점검한 결과 작동하지 않는 소방시설을 그대로 방치된 사찰들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부 사찰의 경우 부품 보증기한을 넘겨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품을 교체해줘야 한다.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불교계도 방재설비 전산화를 통해 통합관리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찰방재시스템의 기기적인 불량과 함께 방재라인도 부실하다는데 있다. 정비되지 않은 방재라인은 흰개미 피해를 더욱 부추긴다. 우리나라에서 목조문화재에 대한 흰개미 피해는 기후 온난화 등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문화재청 통계에 따르면 2007~2009년 280건 중 126건에서 흰개미 피해(45%)가 발생했으며, 2011~2013년에는 193건 중 108건에서 흰개미 피해(56%)가 발생했다.

문화재청의 이번 조사에서는 국보급에서는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전과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강화 전등사 대웅전 등 국보 보물급 불교 목조문화재 12곳에서 흰개미 피해가 보고됐다.

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 보존과학과 교수는 "사찰 방재라인이 엉망인 곳이 많은데 방재라인이 완벽히 구축되지 못하면 산불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흰개미가 사찰로 들어오는 길목 역할을 한다"며 방재라인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소방방재 C등급을 받은 국보·보물급 불교문화재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불꽃감지기, CCTV불량
예산 수덕사 대웅전	CCTV불량
영암 도갑사 해탈문	CCTV불량
보은 법주사 팔상전	엔진펌프, 감지기 불량
창녕 관룡사 약사전	CCTV불량
강화 정수사 법당	소화전 불량
여주 신륵사 조사당	방수총 불량
창녕 관룡사 대웅전	CCTV불량
순천 송광사 하사당	CCTV불량
부안 개암사 대웅전	CCTV불량
부여 무량사 극락전	CCTV불량
여수 흥국사 대웅전	소화기 점검표 미비 및 옥보설비 작동 미흡
논산 쌍계사 대웅전	옥외소화전 불량
경산 환성사 대웅전	CCTV불량
영천 은해사 극락전	연기감지기 불량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엔진펌프 불량, CCTV불량
안성 석남사 영산전	불꽃감지기 불량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엔진펌프 불량
영광 불갑사 대웅전	CCTV불량
영주 성혈사 나한전	CCTV불량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CCTV불량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엔진펌프 시동불량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엔진펌프 시동불량
문경 봉암사 극락전	CCTV불량

문화재청 특별 점검서 불교문화재 24건 '℃ 화재 · 흰개미 문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

이제는 '도박 중독'도 템플스테이로 치유

문화사업단, 관련 매뉴얼 내놔

한국사회에서 도박 중독으로 시름하는 사람은 약 59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 매우 드물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이하 문화사업단)이 '도박 중독'을 템플스테이로 치유하기 위한 〈도박중독자 치유를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했다.

문화사업단이 정신분석클리닉 '넛부타의 숲'에 의뢰해 내놓은 이번 매뉴얼은 도박 중독자를 위한 집단 치유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상은 도박 중독자 본인과 가족이다.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아직 도박 중독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사찰은 없지만 향후 필요성이 제기돼 매뉴얼을 만든 것"이라며 "이번 매뉴얼은 도박뿐만 아니라 일반적 '중독'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사업단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해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도 발간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로 보는 자본주의 문제점과 대안

불교평론, 8월 29일 창간 15주년 맞이 심포지엄

불교평론 창간 15주년을 기념해 불교의 시각으로 자본주의 사상을 고찰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린다.

불교전문계간지 불교평론은 8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의 눈으로 자본주의를 말한다'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불교의 자본주의에 대한 시각을 비롯해 불교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시각과 대안공동체 사상과 불교공동체 운동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불교의 접합점이 모색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최갑수 서울대 교수의 '왜 자본주의를 말해야 하는가'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광수 한양여대 교수의 '불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는가'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불교'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의 '불교와 자본주의의 합심주의적 만남' △민경국 강원대 교수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능한가' △이도흠 한양대 교수의 '자본주의 체제의 비판과 대안의 모색'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의 '불교의 소비와 불교공동체 운동의 가능성'이 발표된다.

사회는 이혜숙 금강대 객원교수와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맡으며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불교평론 관계자는 "자본주의는 근대화 이후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운영원리로 작동돼 왔다. 이제는 자본주의와 불교는 어떤 관계로 설명될 지를 살펴할 때"라면서 "2014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열리는 '불교평론' 창간 15주년 학술세미나에서는 불교의 눈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관광 · 역사를 통한 포교활동 펼쳐야"

조계종 포교원 8월 22일 제주지역 전법네트워크 발대식 열어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법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제주지역 불자를 조직 · 활성화하기 위한 제주지역 전법네트워크 추진단 발대식 및 연합대법회를 가졌다.

포교원은 8월 22일 제주 보현사 내 제주불교문화대학 교육관에서 '제주지역 전법 실현을 위한 교구와 사찰역할'을 주제로 찾아가는 종책 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에서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이 '지역전법네트워크 구축과 제주지역 포교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으며, 관통사 주지 석연 스님이 '제주지역 포교역량 결집을 위한 포교 · 신도단체'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이 '제주지역에서의 승가연수 교육과정'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법상 스님은 "지금 제주 도심지역은 기독교 세력에 점점 잠식당하고 있다. 제주 농어촌지역은 불교가 우세하지만 도심지역은 어린이 · 청소년 및 청년 계층들이 점점 세를 불려나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심지역 어린이집이나 불교유치원, 사찰에서의 방과 후 학과 운영 및 무료영어 · 음악 교육 등 불교 학생회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관광코스와 제주의 역사적 특색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포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스님은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포 등 관광코스를 활용한 바닷길 행선 등 공간의 장점을 활용한 포교방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초 고령사회가 진행될 것이다. 이를 위한 실버포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교원은 이어 제주 한라대 스토니브룩 강당에서 제주지역 전법네트워크 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추진단 위원장은 제주 관음사 주지 성효 스님이, 증명 및 고문은 향운 스님(제주 천용사 주지)과 종호 스님(제주 관음사 회주)이 맡았으며 지오 · 진우 · 혜전 스님이 수석부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총무 · 기획 · 재무 · 문화 · 사회 등 각 분과별로 스님을 위원으로 모시고 윤두호 재가 불자 단장을 비롯한 분과별 부단장이 활동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일 주 문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참가자 모집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42기 단기 출가학교를 연다.



동국대 빅데이터 워크숍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8월 21일 경주시와 함께 교내 벤처창업 보육센터에서 '빅데이터 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악과 함께하는 불화전

박경귀 선아트스페이스 원장은 8월 22일~ 24일 북촌 전통예술 축제, 국악과 함께하는 불화전 '5音5色 세 번째 이야기' 를 펼쳤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동국대 명예박사 받아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8월 21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 2014학년도 가을 학위수여식에서 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 회장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축사에서 "이기흥 회장은 불교의 포교 활동영역을 스포츠 분야로 확장시켜 한국불교 발전과 국가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사업을 통해 자비와 나눔이라는 불교 정신을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총지종 前중앙종의회 의장 대자행 지수 열반

8월 21일 고결식 및 연화식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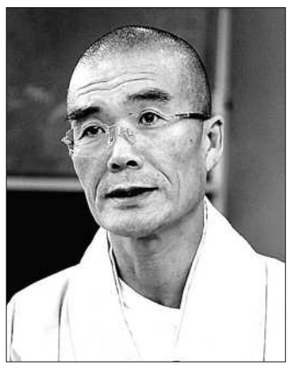


원정 대성사와 함께 불교총지종 창종을 함께한 대자행(大慈行) 지수가 8월 19일 새벽 열반했다. 속명은 김재영(金在泳). 세수 96세, 법랍 42년.

경북 달성 출신인 대자행 지수는 불교총지종 창종 초대 원로 스승 중 한 명이다. 불교총지종 재단법인 초대이사, 종령자문위원, 응신서원당 주교, 중앙종의회 의장, 지인사 주교를 역임했다. 다비식은 8월 21일 서울 연화원에서 열렸으며, 49재는 총지사에서 봉행된다. 김주일 기자

"세월호 해결책 계속 모색할 터"

세월호 특별법 촉구 단식 종료 조계종 노동위원 도철 스님



"단식 먼저 종료해 미안한 마음뿐"
세월호 사건 본질 흐려져 답답
통합적 대사회적 기구 필요

"세월호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동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8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3천배와 함께 32일간 단식을 해오다 종료한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 이하 노동위) 노동위원 도철 스님이 이 같이 말했다.

도철 스님은 8월 21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2일간 단식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단식을 하면서도 '이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유가족 옆에 앉아 있기가 때로는 민망하기도 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도철 스님은 세월호 특별법 촉구를 요구하며 광화문 세월호 가족 단식장에서 7월 14일부터 8월 16일 단식을 진행했다. 스님은 단식기간에 몸무게가 12kg 정도 빠졌으며 현재 조계사에서 몸을 보식하며 요양 중에 있다.

도철 스님은 "현재 몸은 괜찮다. 유민이 아버님(김영오 씨)이 걱정될 뿐"이라며 "단식을 먼저 종료하게 돼 미안한 마음이 앞서지만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어 주자는 마음으로 단식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철 스님은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이 본질과 다르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 같아 한국사회의 왜곡된 부분을 보는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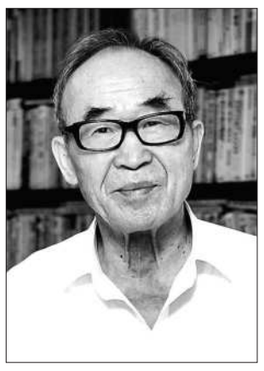
스님은 "사건의 본질을 요구하는 엄연한 당사자의 주장이 있음에도 특례 입학 및 보상이나 돈으로 치부되는 물질로 덧칠 해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모습에 많은 답답함을 느꼈다"며 "세월호 사건도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 자리지키기와 진급에 눈먼 행정관료 등 눈먼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에 불거지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이 문제라 본다"며 "해방 이후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 졌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상 조사 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진상 조사해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 세월호 가족의 뜻이자 국민들의 여망"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철 스님은 불교 종단도 사회적 실천기구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인권 · 노동 · 환경 · 장애 · 빈곤 ·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문제를 다루어 나갈 통합적인 대사회적 실천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노동위가 있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과 한계를 느낀다"며 "종령기구가 아닌 종헌기구로 제정,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해 스님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또 실질적으로 스님들이 중심을 잡으며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고은 시인, 황금화관상 받는다

8월 24일 수상… 노벨문학상 동급 권위



한국 문단의 대표적인 시인 고은(81 · 사진)이 8월 24일 마케도니아 스트루가 시 축제에서 '황금화관상' 을 수상한다.

마케도니아 스트루가 시 축제는 1962년부터 시작된 국제행사로 전세계 95개국 4,000여명의 시인 · 번역가 · 수필가 · 문학비평가들이 참여해왔다. 황금화관상은 축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파블로 네루다(1971년), 에우제니오 몬탈레(1975년), 조지프 브로드스키(1987년), 셰이머스 히니(1995년) 등 유명 시인이 다수 포진해 있다. 21일 오전10시(현지시각) 마케도니아에서 고은 시인의 식목행사와 시 낭송회가, 정오에는 기자회견이 개최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고은 시인은 18세의 나이로 출가하여 정진하던 중 1958년 〈현대시〉, 〈현대문학〉 등에 추천되어 문단활동을 시작한 후, 현재 150여권에 이르는 저서를 남겼다.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노르웨이 뵨슨문학훈장, 캐나다 그리핀공로상 등 국내외 문학상을 다수 수상한 대표적 문인이다. 고은 시인은 본지 창간 연재소설 〈수미산〉을 연재했으며 창간 논설위원도 지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그러진 인간 탈출 본능 표현

개인전 연 불자 도조 작가 기동규 씨



불자 도조 작가 기동규 씨〈사진〉가 초대전 '생각 너머(Beyond the thinking)' 를 8월 20일~26일 인사동 통인화랑에서 열었다. 도자기와 조각을 융합한 '도조' 분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그는 이번 전시에서 독특한 형상의 19점을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그의 작품은 육각의 프레임에 일그러진 도자기가 합쳐진 독특한 형상으로, 기존 규범에서 탈출하려는 인간 본능을 표현한다.

"프레임과 도자기를 각각 따로 초벌구이해 재벌구이 때 합쳐 구워내면서 우연의 효과로 작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자 작업과는 다른 역발상을 통해 디자인적 아름다움을 추구했죠."

17살 때부터 도자기를 시작해 도조 분야를 개척해온 그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었다. 마음치료 등으로 이를 극복하며 예술적 깊이는 더 깊어졌다. "퇴원하자마자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간의 생각을 모두 쏟아 부었죠. 한번 물레를 잡으면 하루 스무 시간씩 작업하며 삼매에 드는 듯 집중해요. 저는 그래서 작업 자체가 수행입니다."

한편, 기동규 작가는 청주대 공예학과를 졸업하고 경기 국제도자비엔날레, 대한민국미술대전 등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 뉴욕 등 해외에서 도조미술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천태종, 삼회향놀이 · 영산대재



영가천도와 평화통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천태종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가 삼회향놀이를 끝으로 여법하게 회향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8월 19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 소전식을 봉행했다.

8월 15일 입재한 영산대재에는 1만 불자가 동참했으며 19일 소전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본 의식 이후에는 충북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5호인 삼회향놀이가 펼쳐졌다. 삼회향놀이는 가무를 겸한 연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본 의식의 뒤풀이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각자 마음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주인공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불교조계종 금강계단 수계법회



청정계율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은 제21회 종단 금강계단 수계법회를 총본산 여주시 강천면 소재의 백화사에서 봉행했다.

수계법회에서는 전계대화상에 혜인 스님, 교수아사리에 혜일 스님, 갈마아사리 덕운 스님이, 정산, 정오, 혜일, 대봉, 법성, 태산, 금산스님이 7증사로 나섰다. 수계스님 13명과 각 사찰의 주지스님 50명과 신도 200여명이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전국연합캠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지난 7월 24~27일 낙산에어포트콘도 등 강원도 양양 일원에서 '제17회 청소년전국연합캠프' 를 개최했다.

'꿈을 찾아 떠나는 만남의 캠프'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캠프는 전국의 파라미타 700여 명과 지도자 200여 명 등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캠프는 입소식을 시작으로 청소년백일장대회와 청소년음악놀이축제, 명상, 발우공양게임, 공동체놀이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이나은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순수한 불제자로서 수행과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원장 석경보 / 사무총장 석도연

본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교리를 받들어 널리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고자 석가모니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한 가르침을 통해, 인간은 자연과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마음속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우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슬픔은 가실 수 없다. 인류의 삶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평등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인간에게 불만과 불평 그리고 분노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공포, 불안, 걱정, 슬픔, 불만,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괴로움이라합니다. 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통해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목표로 그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입종산내

1 입종 구비서류 (총본산 비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전후면 사진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찰 법당 내외부 사진1매
- 타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2 발급 증명서
- 승려증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간부 스님 임명장

문의 : ☎055)295-5100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총본산 제동산 관음사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길 43번길 13-11 (제동리 321-2번지)
전화 : 055)295-5100. 742-0246 홈페이지 : http://www.jogyejong.org

貪心 줄이기
탐심

–더 나누자

매일 호떡 4백개 보시… 나눔이 곧 기쁨

복지관 · 보육원 방문
호떡 무료 나눔 15년
"불행은 욕망서 비롯"

한여름에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호떡집이 있다. 다만 본점보다는 전국 지점이 인기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 내일은 강원도 강릉. 매일 오픈장소도 다르다. 김영욱(66) · 김용자(64) 부부가 굽는 사랑의 호떡은 7년째 전국 곳곳에서 신출귀몰한다. 매일 하루 호떡 400여개를 구워 이웃들에게 나눔을 전하는 '통큰 보시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김영욱 부부 내외가 호떡 기부를 시작한 것은 2000년. 호떡을 30년 넘게 팔아오면서 어느 날 가게 주변 경로당에서 간식거리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호떡을 대접한 것이 계기였다. 2009년 가게를 정리하고 트럭을 마련해 전국 복지관,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을 돌아다니며 무료로 호떡을 나눠줬다. 거리가 먼 곳에는 호떡 100장씩을 택배로 보내주기도 한다. 처음 봉사를 시작하며 마련한 설탕 1000포가 현재는 30포 가량 남았다.

봉사를 하려고 금 목걸이도 팔고 강릉에서 인천으로 이사한 김 할아버지. 현재는 인천 부평구에 '사랑의 호떡집'을 마련해 주말에만 가게를 열고 주중에는 봉사하러 다닌다. 점포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다. 김 할아버지 내외는 이곳에 딸린 작은 방에서 생활한다. "돈이 돌지 않고 한 군데 모여 있으면 곰팡이가 핀다"면서 "돈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 할아버지 내외의 생각이다.

이런 선행 덕분에 지난 20011년에는 한 기업 주최 우정선행인으로 선정돼 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마저 저소득층 지원과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사랑의 호떡' 봉사 김영욱 · 김용자 부부

호떡차안에는 '불행은 욕망에서 움트고 사랑은 믿음에서 싹트며 행복은 나눔에서 빛난다'는 할아버지의 생활신조가 쓰여있다.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의 소박함 역시 할아버지가 닮고자 하는 모습이다.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 독실한 불자였던 부모님께서 이웃들에게 보시행을 펼치는 것을 보고 감화를 받았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굶주린 누군가를 위해 항상 수저 한 벌 더 놓던 부모님이셨다.

"행복해지려고 다들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복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을 버는 이유와 사는 목적이 내게는 같습니다."

할아버지 내외는 행복이 나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선각자다. 호떡이 별 맛이냐 하겠지만 '사랑의 호떡'은 먹는 이들마다 감상이 다르다. 교도소 수용자들은 "어릴 적 추억이 담겨있는 따뜻한 호떡을 이곳에서 맛보게 될 줄 몰랐다"며 씁쓸달콤한 회한에 잠기고, 80세가 되도록 호떡 한번 먹어보지 못했다는 할머니는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사회복지사에게 부탁해 쓴 편지를 부쳐오기도 한다.

호떡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맙다고 말하는 할아버지 부부.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천리를 간다. 노부부의 고매한 인품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瞋心 줄이기
진심

–더 낮추자

"화나면 3분간 명상호흡… 나 어느새 잊어"

진심, 원하는 것 얻지 못하고
방해하는 상황 있을 때 생겨
욕심 버리면 분노 사라져

현대 자본사회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생산과 목표달성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사람들에게 막중한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을 겪게 한다. 분노는 모두 욕망에서 비롯된다.

동방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 교수 인경 스님은 "진심은 자기가 원하는 것[貪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 또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남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또 사람마다 분노의 표출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대신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인경 스님에 따르면 화(火)는 자신을 방해하는 요소나 장애를 분명하게 인식 할 때 일어난다. 우울감은 공격의 대상이 나 자신에게 향할 때 우울해 지며, 불안감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모를 때 생겨난다.

인경 스님은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진심을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욕심과 상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상대에게 원하는 걸 기대했는데 그만큼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화가 납니다."

스님은 만약 이미 화가 났다면 자신이 화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상을 통해 즉각 알아차려야 한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를 개선하는 기술을 향상시켜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것을 줄이고, 모든 대상에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인경 스님 (동방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 교수)

"자신을 통제하고 알아차려 자애의 마음을 이끄는 데는 명상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담을 공부하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절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과 상담은 같이 공부해야 극대화 됩니다."

하지만 스님은 분노와 화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인경 스님은 "성차별 등 사회적 정의나 차별에 대해서는 구분하면서 분노를 적절히 표현할 줄 도 알아야 한다"며 "과도하게 분노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며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이는 사회적 훈련이 결핍돼 일어나는 문제다. 이런 부분은 상담과 사회적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일어나는 각종 사건 · 사고에 대해 스님은 "입시, 경쟁, 경기 악화, 정치적 대립 등 사회적 문제로 비롯된거라 본다"며 "반드시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문제로 사회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경 스님은 화가 날 때 '3분 명상'을 해보라고 권했다. "3분간 명상호흡을 해보세요. 3분이 되면 자율신경계가 자동적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두 번째,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화내는 내가 진짜 나 일까? 무엇이 진짜 나 일까'를 생각하는겁니다. 이렇게 3분만 해보면 흥분상태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이나은 기자**

癡心 줄이기
치심

–더 비우자

"치심 극복, 아집버리는 데서 출발"

치심은 본성 망각서 비롯돼
법보시, 癡心 극복 위한 실천
스님 의지말고 독자성 지녀야

유식학의 최고 권위자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을 역임했던 한국불교학계 원로석학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대승불교연구원장)는 "치심 극복은 자신에 대한 아집을 버리는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오형근 명예교수는 현재 600부 반야경 전체를 해설한 해설서와 원효 스님의 선사상을 '원효선(元曉禪)'의 경지까지 끌어올려 한국적인 선수행의 정체성을 밝히는 〈원효선사상〉을 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 교수는 "치심 극복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망각을 없애야 하는 것"이라며 "유식학에서는 치가 말라식에서 일어나고, 아뢰야식을 망각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이어 "진리를 망각하고 육체를 조금 쉬게하는 것을 행복으로 아는데 이 것이 바로 치심의 근원"이라며 "진리를 완전히 파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명감이 나타나며 그로 인해 불철주야 중생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러한 치심이 나타나는 과정은 유식과 아함 등에 이론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많기에 대중들이 이론공부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교수는 대중들의 수행이 독자성을 지녀야 하며, 사찰 행사에 치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

"법회 등 사찰의 불사에 참여하되, 신도들끼리의 법회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법회에 참여해 법문을 듣고 그대로 잊곤 합니다. 불교교양대학에서 교학적인 내용을 함께 배우면 더 좋지만 그런 것이 힘들다면 신도들끼리라도 법사 · 교수 등을 모시고 한권 한권 깨우쳐 가야 합니다."

오 교수는 산중의 선수행 뿐만 아니라 속세에서 생활 속에서 진행하는 수행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속세는 현상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산 속에 있더라도 마음 속에 세상에 대한 번민이 있다면 그 곳이 속세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불교가 이웃종교에 비해 쇠락해 진 것은 우리세대의 잘못이 크다. 법문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주변에 전법을 할 수 있는 포교사로서의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결국에는 불교 책을 읽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법보시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법보시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함께 무명을 깨치는 치심 극복을 위한 또 다른 수행이라고 말했다.

"불교에는 치심에 대한 정리와 그 극복을 위한 내용이 이론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치심 극복을 위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논의하고, 생활 속에서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불련, 제5회 '영부디스트 캠프' 성료

8월 14~17일 강화도 전등사, 보문사 일대에서



대불련은 회원 120여명과 함께 8월 14~17일 3박 4일 일정으로 강화도 전등사와 보문사 일대에서 영부디스트 캠프를 진행했다.

대학생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를 논하는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신경선, 이하 대불련) 'Young Buddhist Camp'가 8월 14~17일 3박 4일간 일정으로 강화도 전등사, 보문사 일대에서 개최됐다.

'우리들의 가슴에 무엇이 있는가?' 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불련 캠프는 입재식에 이어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의 법문과 가면토크, 붓다워즈, 19금 붓다, 전등사, 보문사 순례와 별빛 문화제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 첫날인 14일, 입재식은 강화도 서해유스호스텔에서 거행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 강화불교사암연합회 회장 계성 스님,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 조계종중앙신도회 이기흥 회장, 대불련총동문회 백효흠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전준호 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120여명이 참석했다.

캠프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법우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Ice Break 프로그램과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 이야기를 나누는 가면토크를 비롯해 '미니운동회'와 '붓다워즈' '19금 붓다'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나은 기자

포교원, 제8회 전문포교사 합격자 발표

일반포교사 752명, 전문포교사 79명…9월 27~28일 품수식

제19회 포교사 및 제8회 전문포교사 합격자가 발표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8월 13일 '제5차 포교원회의'를 열고 일반포교사 752명, 전문포교사 79명을 최종합격자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일반포교사고시 합격자는 △대구경북지역 163명 △부산지역 139명 △서울지역 108명 순으로 많았으며, 송택규(봉은사불교대학) 씨가 86세로 최고령자 포교사 자격을, 홍현승(화계사불교대학)씨가 24세로 최연소자 포교사 자격을 받았다.

전문포교사고시 합격자는 강막례 포교사(문화예술전문포교사-불교문화해설포교분야) 등 79명의 포교사가 전문포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합격자는 9월 27~28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포교사단 8재계수계실천대법회에서 정식 품수를 받는다.

이나은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강사 파견기관 모집

9~11월 220회 강사 파견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노인복지기관 및 데이케어센터 등 55곳의 어르신 돌봄 기관에 총 220회에 걸쳐 웰다잉 강사를 파견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안전행정부가 지원하는 201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6~7월에 웰다잉강사교육 '아름다운 마침표, 그 마지막 성장과 하나됨' 25회기 수업을 실시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30명의 강사를 배출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08년 웰다잉운동본부를 설립해 불교의 생사일여 사상을 바탕으로 좋은 죽음 교육과 존엄한 죽음 준비를 통한 불교의 사회화와 대중화를 위해 웰다잉 강사를 파견하고 웰다잉 교육과 세미나, 워크숍, 웰다잉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일체 비용은 안전행정부 기금에서 지원되며,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불교여성개발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02)722-2101

이나은 기자

"언제 어디서든 염불하면 청정일심 돼"

염불수행 정진하는 사찰·단체

"평상시 염불을 배우고 정토법문을 닦아두면 목숨을 마칠 즈음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순조롭게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근·현대 중국불교의 가장 뛰어난 스승인 허운 대사에게 인가받은 중국 위앙종 9대 조사인 선화상인(1918~1995)은 염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염불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수행법 가운데 하나다. 기본적으로 염불 수행은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잡념을 한 생각으로 정리해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지만,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등 자신에게 익숙한 불보살 명호를 칭해도 좋다.

하지만 어느 새인가부터 염불은 선불교 중심의 한국 불교에서 하근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다 최근 들어 염불수행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만일동안 염불결사를 하는 사찰과 신도회를 비롯해, 염불수행을 하는 인터넷 모임 등이 있으며 염불봉사활동으로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봉사팀도 있다. 스님들의 염불수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염불수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기관인 염불원(念佛院)이 지난해 남양주 봉선사에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17일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제1회 학인염불시연대회'가 열렸다. 염불의 대중화와 일상화, 생활화 모색을 위해 열렸던 이 행사에는 108명이 응모하고, 12개팀이 지원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정해진 기간 동안 염불수행

염불수행을 하는 모임이나 사찰들 가운데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염불수행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



최근들어 염불 수행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만일동안 염불결사를 하는 사찰과 신도회를 비롯해 염불봉사활동으로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봉사팀도 있다. 사진은 2009년 염불만일회의 염불정진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만일염불결사회(회주 보광)는 2000년 6월 6일 입재해 2027년 10월 22일 회향하는 '만일염불결사'를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아미타불을 원불로 모시고 △하루 1000번 이상 염불 △매일 20분 이상 염불선 수행 등을 실천하고 있다. 보광 스님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종교운동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종교적이며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전개될 수 있는 신행형태 중 하나가 만일염불결사운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불교가 새로워지려면 전국 사원과 방방곳곳에서 염불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목탁소리가 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031)723-9797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도 정토세상을 발원하며 1998년 8월 6일 금강산 건봉사에서 결성돼 2025년 회향을 목표로 염불 정진을 한다. 매년 여름 월정사, 수덕사, 불국사 등 사찰에서 정진대회를 개최한 전국염불만일회는 지난 8월 2~3일 17차를 맞아 구룡사에서 24시간 동안 1만 번 아미타불을 염송했다. (02)732-1206

이밖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말사**에서도 53년간 끊임없이 계속돼 온 1개월 안거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평균 1000~1500명의 재가불자들은 안거에 들어 1달 동안 염불수행 정진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건봉사**는 지난 2012년 12월 8일 만일염불기도 1차 3년 입재에 들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을 해오고 있다. (033)682-8100

염불봉사로 수행정진

염불봉사를 통해 신심을 증장시키는 모임도 있다.

불교TV 염불공양모임(회장 하정선)은 1996년 창립돼 50여 명의 회원으로 꾸려진 지역봉사단체다. 부산지역사찰의 법회와 행사에 육법공양을 올리고, 불자가 임종하면 장례식장 빈소를 방문해 염불봉사로 유가족을 위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자비실천에 매진하고 있다. (051)633-4020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염불봉사팀(팀장 박기환)은 처음 포교사들의 목탁습의를 위해 모였다가 장례염불 봉사를 시작했다. 현재 40여 명의 포교사들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장례염불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염불봉사를 하며 정진하고 있다. (062)375-0107

염불봉사단 관음회는 2009년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염불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염불봉사 교육을 받으면서 생긴 이 모임은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돼 종교가 없는 이들이나 스님을 모시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유가족들에게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02)723-5101

안거동안 염불정진에만 매달려

봉선사 염불원에서는 2013년 동안거 기간 원장 인묵 스님(조계종 의례위원장)을 비롯해 총 6명의 스님이 방부를 들어 외부와 단절하고 아미타불 수행을 정진했다. 하루 일과는 1시간 30분 동안 진언과 다라니를 외우는 아침송주, 징과 북을 치며 염불하는 광쇠염불 등을 비롯해, 저녁송주와 염불선 등 오로지 염불을 위주로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염불 수행 정진의 열기가 점점 더해지는 가운데 일반 불자들은 일상에서 어떻게 염불수행을 하면 좋을까.

지난 6월 조계종 교육원이 개최한 '염불의 생활화 및 현대적 적용' 포럼에서 인묵 스님은 시간대별 염불을 제안했다. 스님은 "공양을 시작하고 끝날 때, 운전을 할 때, 업무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짤막한 의식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노느니 염불한다고, 언제든 염불할 수 있다.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화엄성중 등 칭명염불도 좋고 육자대명왕진언, 광명진언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언제 어디서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화쟁아카데미, 9월 가을강좌 개설

이미령·성해영 교수 '붓다의 행복론'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주제로

화쟁아카데미(대표 조성택)는 붓다의 가르침과 종교를 주제로 한 두 강좌를 오는 9월 개설한다.

불광교육원 전임강사인 이미령 교수가 '붓다의 행복론'을 주제로 9월 17일~ 11월 5일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8회에 걸쳐 강좌를 진행한다.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인 성해영 교수는 '인간의 마음과 마음 너머(1. 입문편):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라는 주제로 9월 18~10월 30일, 매주 목요일 7~9시, 총 6강(1, 2학기로 구성)의 강좌를 연다.

이미령 교수의 '붓다의 행복론'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붓다의 가르침을 '행복'이라는 소박한 주제로 풀어낼 계획이다. 니까야 경전에 담겨있는 개인적 차원의 행복, 사회적 차원의 행복, 종교적 차원의 행복으로 붓다의 행복론을 해석하는 이미령 교수의 강의는 평소 불교에 관심이 있었으나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미령 교수는 "불교는 사람을 향한, 사람에 대한, 사람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붓다는 평생 사람을 만나서 쉬지 않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붓다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었던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접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해영 교수는 '인간의 마음은 우리를 마음 너머의 그곳으로 안내하는 통로'라는 견해를 종교심리학과 신비주의, 종교적 체험의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 이런 방식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종교의 기본적인 이해와 종교 간 상호 대화에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지 조명할 계획이다. 현대사회에 무엇이 '종교'인가를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강좌로 종교적 신앙과 앎을 넘어선 깨달음에 대해 고민하는 불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강좌다.

성해영 교수는 "종교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이토록 애증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종교가 사회적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종교가 지적 사기이거나 원망(願望)의 투사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담론들이 종교 자체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어루만지고, 종교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적 위상을 정립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강료는 강좌당 1만원이며 화쟁아카데미 홈페이지(www.hwajaeng.or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070)8872-2023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대학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4년 9월 5일 금요일**

활안스님
제8회 80 화엄경 강의와 제3회 선문염송 특강

◇일 시 : 2014년 9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장 소 : 청량리 금강선원

※ 오늘날 현실에 맞는 화엄경 해석 강의

※ 80화엄경 사경본 보급합니다.
제1권 ~ 81권 (각권 10,000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도서관의 재발견… 신나는 동화책 축제

조용해야할 도서관이 웬일인지 시끌벅적하다. 책장 사이를 뛰어다니는 아이들 사이로 한쪽에서는 마술쇼가 펼쳐지는가 하면 알록달록 비누만들기도 한창이다. 책 읽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종이에 뭔가를 적거나 색칠하기 바쁜 아이들로 가득한 도서관. 서울 은평구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완)이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8월 20~22일 동안 열렸던 '신사어린이 도서관 축제' 에서다.

도서관과 축제.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 최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어린이가 도서관을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신사복지관내 자리한 신사어린이도서관도 개관한 지 10년 만에 축제 개최는 처음이다. 달팽이놀이, 딱지치기 등 전통 놀이로 시작을 알렸다. 컴퓨터, TV 대신 모처럼 마음껏 뛰어 다니기를 선택한 아이들 얼굴에 흥이 넘쳤다. 전래동화 속 놀이를 체험해보는 독후활동이다.

책은 혼자서 읽다 끝내는 것인 줄 알았는데 꽤나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책 속에 숨어있는 질문에 답하는 '책속 보물찾기' , 마술과 함께하는 '동화구연' , '페이스페인팅' , 친구들에게 책을 추천하는 '도서관나무 채우기' 〈호랑이 뱃속에 무슨일이〉라는 주제 도서 체험활동인 '호랑이 비누 만들기' 와 '호랑이 뱃속 꾸미기' 등이다.

아이들에게는 각 프로그램이 곧 미션이다. 하나의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주고 스탬프가 5개 이상인 아이에게는 행사 마지막날 선물이 주어진다. 3일 내리 왔다는 아이도, 9개의 미션이 적혀있는 카드에 도장을 꽉 채운 아이도 있다. 뭐니뭐니해도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 참여도와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의 반응이 성공적이다.

신사어린이도서관 하루 이용객수는 50명 선. 축제를 하고나서는 하루 100명 가까이 다녀갔다. 행사 아이디어와 내용은 모두 지역주민들에게서 나왔다. '얘들아~ 즐거운 책모험 떠나자!' 라는 축제명은 신채연(12) 어린이의 제안이다.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 나설 수 있었던 데는 서울시 마을지원 복지관 사업이 한몫했다. 지역 주민의 욕구를 복지관이 함께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서울시가 주민참여, 지역

책 테마로 동화구연 · 보물찾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도서관은 즐거운 곳' 인식

아이에게 책 대한 호기심 키워줘

조직화 사업을 적극 권장한 덕분에 신사어린이도서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축제 제안을 한 것도 주민들로 이루어진 도서관 운영위원이다. 이들은 책과 프로그램 선정 등 도서관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축제 논의는 지난 3월부터 이루어졌다. 테마는 '모험' 으로 가닥이 잡혔다. 각종 모험관련 책들이 주제 도서로 선정돼 전시 · 활용됐다. 테마북인 호랑이 뱃속으로 '모험' 을 떠난 나무꾼들의 이야기도 복지관 입구에서부터 도서관까지 올라가는 계단마다 전시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빅북(Big-book) 동화구연' 이다. 빅북은 말 그대로 가로세로 30cm이상 확대 · 제작한 책. '동화나라 옹달샘' 이라는 동화구연 봉사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빅북을 선보였다. 부직포, 색종이, 물감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만든 책에 아이들의 관심이 일제히 쏠렸다. 책 한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개월. 어르신들의 정성에 아이들도 자연스레 책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키운다.



8월 20~22일 열린 신사어린이 도서관 축제에서 어린이들이 빅북으로 하는 동화구연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장수진(10, 역촌초 3) 어린이 역시 축제 프로그램 중 "빅북이 제일 재미있었다" 며 "할머니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주셔서 놀라웠다" 고 말했다. 도서관 축제 소식에 신사어린이도서관을 처음 찾았다는 장양은 "도서관이 이렇게 재미있는 곳일지 몰랐다" 며 "앞으로 자주오고 싶다" 고 덧붙였다.

8살 아이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고 싶어 오게 됐다는 이우현(36)씨 역시 "내가 어릴적만 해도 생각치도 못했던 도서관" 이라며 "책을 놀이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이라고 꼽았다.

신사복지관 역시 참여율 저조에 대한 당초 우려와 달리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게 된데 대해 흐뭇해하는 분위기다. 큰 변수가 없다면 내년에도 도서관 축제를 개최할 생각이다. 1박2일 책 캠프 등 다양한 축제 아이디어도 얻었다.

도서관 한쪽 벽에 자리한 나무그림에 축제 소감을 적은 나뭇잎들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되게 새롭다, 즐겁다" 에서부터 "꿀잼('꿀' 은 강조, '잼' 은 재미의 줄임말. 즉 '매우 재미있다' 라는 뜻)" "책읽는 게 재미있다" 는 반응은 물론 "날아다니는 1인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 는 기상천외한 바람도 있다. 날아다니는 도서관이 허무맹랑하기만 할까. 조용히 잠자는 책들로만 가득했던 도서관이 진화중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예전엔 노숙인, 이제는 바리스타

보현의집, 18일 노숙인 카페 개설

한때는 노숙인이었지만 이제는 어엿한 바리스타다.

노숙인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수송보현의 집(시설장 신용삼)에서 8월 18일 '내 생애 에스프레소' 카페를 개설하고 오픈식을 가졌다. 카페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자리잡았다.

'내 생애 에스프레소' 는 노숙인 바리스타 양성 및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카페로 지난해 영등포보현의집에 1호점이 개설됐다. 현재 1호점에는 5명의 노숙인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바리스타 전문 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증까지 갖춘 상태다. 한 달 매출만 해도 1천만원 이상이 될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있다.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재노숙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사업은 3천만원의 서울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수송보현의집에는 현재 1명의 바리스타가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영등포보현의집 측은 "내 생에 에스프레소는 바리스타라는 직업 전문성을 부여함으로써 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일자리로 등재해 노숙인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려고 한다" 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도 이날 자리에 참석해 "새출발을 앞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줄 사회복지 현장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수송보현의집은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노숙인 자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내 생에 에스프레소' 카페를 개설했다. 사진은 오픈식 당일 축하 내빈들의 모습.

탤런트 김동완, 나눔의 집에 3천만원 전달

MBC '무한도전' 도 기부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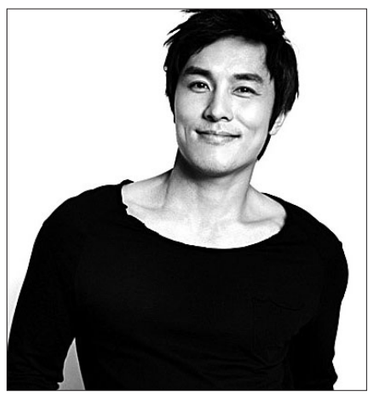
탤런트 김동완(36)〈사진〉씨가 8월 2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사장 월주)은 "8월 20일 탤런트 김동완씨가 '아픈 역사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는 뜻을 전하며 3천만원을 나눔의 집 후원계좌로 전달했다" 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금액을 나눔의 집에 전한 바 있다.

한편 MBC 주말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팀 역시 8월 18일 2천5백만원을 나눔의 집에 기부했다. 이번 기금은 무한도전 음반수익금 등을 합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 집은 각 후원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관 건립과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미니 사찰순례…아빠와 함께 밤길 걷기

조계사-봉은사 코스, 참가비는 기부금으로 활용

별빛과 함께 하는 도심 속 밤길 사찰순례가 열린다. 1만원 남짓한 참가비는 기부금으로 활용된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오는 10월 8일 '비움과 나눔 108DAY- 2014 아빠와 함께 아름다운 밤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특별한 추억을 통해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조계사와 봉은사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저녁 8시 조계사에서 시작해 약 14km를 걷게 된다. 참가자들은 야광풍선을 들고 청계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남산, 한남대교, 한강시민공원을 거쳐 다음날 새벽 봉은사에 도착하게 된다. 코스 중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과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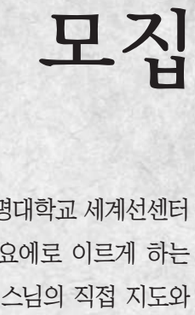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은 "108DAY는 불교적으로 의미 있는 108이라는 숫자에 기부문화를 접목시켜 특별함을 더했다" 며 "아빠와 함께 걷는 밤길은 점점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에 가족이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될 것" 이라고 많은 이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9월 28일까지 선착순 500명 모집이다. 참가비는 1인당 10,800원이며 전액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에 사용된다. 참가자에게는 티셔츠와 완주팔찌 등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dreaminus.org)를 참고하면 된다. (02)737-9595

배현진 기자

"기후변화 대응, 지금부터가 골든타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9일 기후변화 포럼



최근 독도에 온실가스 관측실이 생기고 브라질 아마존에 330m높이의 기후 전망대가 생겼다. 기후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다.

이상 기후가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 등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8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 을 주제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동우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사진〉는 "경제성장을 담보로 하는 복지국가는 대량생산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해 소홀했다" 며 "인간의 복지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복지국가 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수는 "다양성, 지역성, 상호부조와 연대적 특성이 살아있는 생태적 관점을 가진 복지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팀 선임담당관도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가 희망이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환경교육에만 집중하는 반면 정작 본인은 환경보존에 무감하다" 며 "앞으로부터의 시간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사회복지: 생태주의 관점으로의 전환' (한동우 교수, 강남대 사회복지학), '기후변화로 인한 천인재해 증가와 적응 한계' (김지석 선임담당관,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참여형 재난구호체계 구축 방안' (성기환 교수, 서일대 사회복지학)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배현진 기자

청암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 합니다.

참 맑은 하늘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청안하신지요?
윤달이 있는 해여서인지 가을바람이 일찍이 다가왔습니다.
일찍 찾아온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인연이 있는 그 곳
청암의 향기에 젖어 좋은 날 되시길 바라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58년(2014년) 9월 13일 (음 8월 20일) 토요일
| 장 소 - 청 암 사(054-439-9511)
| 총동문회의 - 오후 7시

청암사승가대학총동문회 회장 도림 합장

동명세계선센터
선수행학교 2기생 모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녕 어디로 가는 가.
염천의 더운 바람이 차라리 가을을 기다리는 양 다가오는 계절에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에서는 선으로 힐링하고 선으로 행복을 노래하며 끝내 영원의 고요에로 이르게 하는 선수행학교 2기생을 모집합니다.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이신 수진 스님의 직접 지도와 명쾌한 강의는 여러분의 삶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일 시 2014년 9월 3일 ~ 4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지도·강의 수진 스님 (범어사 율학대학원장, 선센터 선원장)
대 상 선 수행에 관심 있는 누구나 (단 스님은 제외)
장 소 동명대학교 세계 선센터 (동명관 4층)
수 학 료 4개월(10만원), 개근상(수진 스님 친필 한 폭)
접 수 ☎ 051) 629-3582 전송 051) 629-3589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 관허 수진 합장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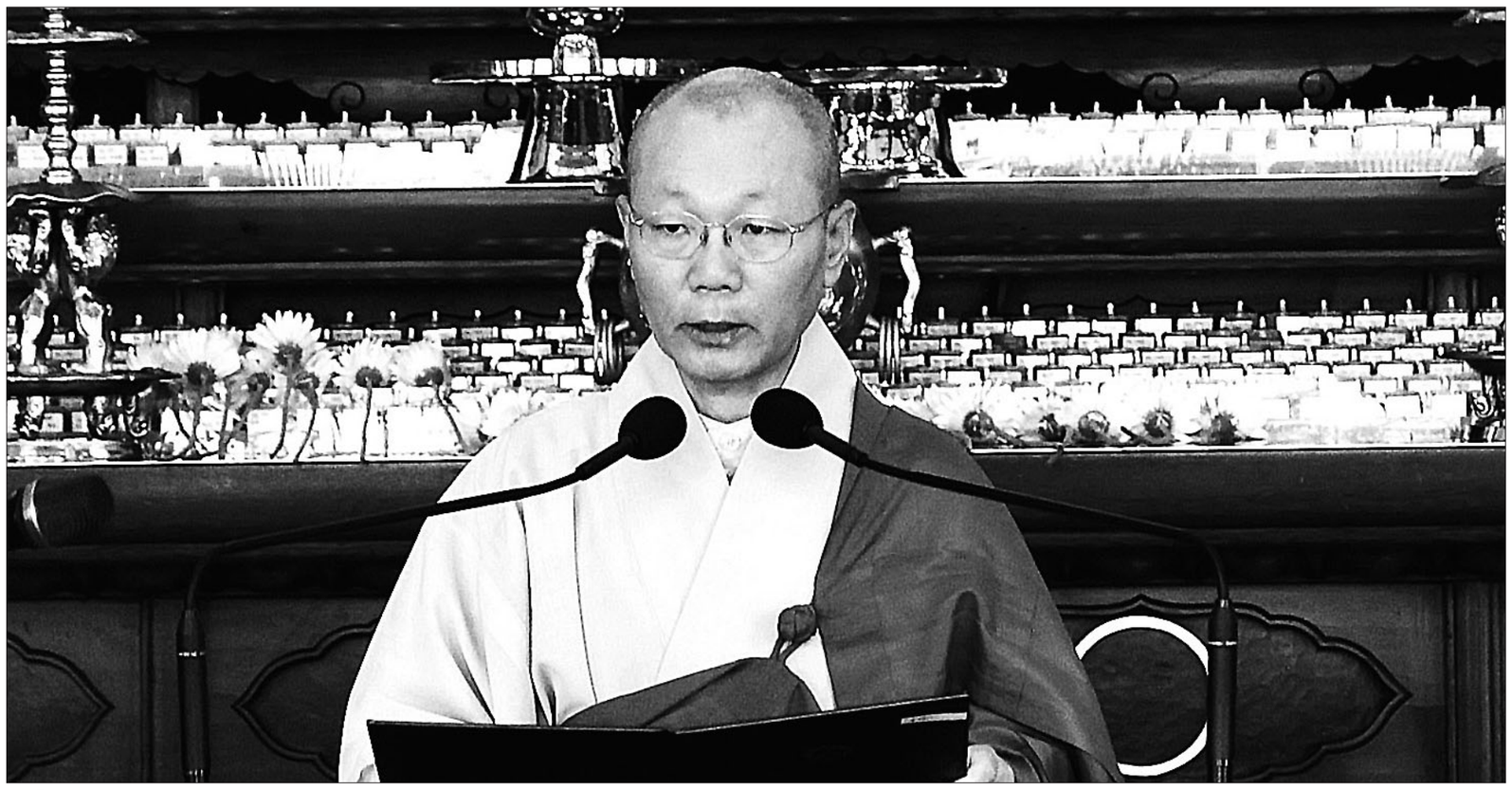
“無始無終, 오로지 오늘만 있을 뿐”

불광사 학업성취 100일 기도 입재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

수능시험을 앞두고 각 사찰마다 수능입재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서울 불광사에서도 수험생들의 원만한 학업성취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진행하며 법회를 열었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고3수험생을 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불자들에게 이날 법회는 부모와 자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수험생들 역시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스스로 의지를 다잡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 8월 5일 불광사에서의 수능 100일 입재기도 법회를 요약한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지홍 스님은 … 월간 〈불광〉 발행인, 불광사 회주. 1970년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1971년 사미계와 1974년 비구계를 수지하였으며, 1991년 광명 금강정사를 창건하였다.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원 겸 포교부장, 1999~2004년 조계사 주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회장, 제11~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이다.

자녀는 가정의 의지처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시련은 도약을 위한 과정’ 이라는 주제를 두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자식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이 우리 가정에 큰 의지처가 되어주고 행복의 중심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자식이죠. 자식이 정말 깊은 효심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열심히만 살아준다면 그 집안에 가장 믿음직스런 중심기둥이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그를 의지할 수 있겠죠. 또한 자식이 열심히 사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가정에 풍요로움이 있고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훌륭히 성장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은 지금이 어떤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험기간은 절대절명의 시간이죠.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 아이의 인생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대학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사회적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섣불리 반박을 하지 못하겠네요.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초조하고 간절하고 걱정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자식의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이 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부모죠. 수능 100일기도를 하러 오신 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께도 정성스레 기도할테지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외호를 해줘야 합니다. 왜 공부를 안 하냐는 다그침의 말보다는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꾸며주고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가정은 희비가 달라집니다. 학생도 부모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참 한량이 없죠. 최근에 한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쓴 편지글을 봤습니다. 먼저 간 아들은 평소 착하고 효심도 깊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명문대라고 불리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을 보고 있으면 부모 자신들의 미래가 밝아 보이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어버렸고 아버지는 아들의 49재에 편지를 썼습니다. 글은 눈물 없이 읽지 못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글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며 “부처님은 물론 너를 추모하며 49재에 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지도교수들과 너에게 기대했던 모든 집안의 어르신들, 너를 자랑스러워했던 이들에게 너는 실망과 슬픔을 안겨줬다. 부모보다 먼저 가고 부모 가슴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참회해라. 참회하는 길은 딱 한가지다. 효성있는 아들이었으니까 재업장을 짓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한다. 부디 극락세계에 왕생해서 무생법인을 깨달아라’ 라고 쓰여져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잊고 싶지 않아도 너는 잊혀질 테고 잊어지지 않아도 잊을 것이다”며 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행복, 평화, 희망이 무너졌다는 데 대해 아들을 보고 참회하라고 하는 말이 가슴이 시리죠. 아버지는 결국 아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고통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도록 상품상생하라라고 마지막까지 가르쳤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이 앞으로의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비스럽게 보살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과제입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

아침이다. 어둠을 뚫고 붉은 해가 솟아오른다. 해는 온 세상과 중생을 차별없이 비춘다. 모두들 마음의 각오 또한 새롭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마음을 새로이 할 수 있는 새날, 새아침이다.

어둠뚫고 매일 떠오르는 해처럼
우리에게는 매일이 새날, 새아침
마음 가다듬고 오늘에 충실해야

‘고통=행복 씨앗’ 이라는 생각으로
힘든 과정 최선 다해 극복하길

위 글에서처럼 우리들에게 매일매일은 새날, 새아침이고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벽암록에서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제가 있고, 내일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다.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 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오늘의 순간만이 있을 뿐이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 이라구요.

인생은 길다 하지만 하루하루 잘 살지 못하면 결국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가 모여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경험삼아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약합니다.

‘내일 죽을 운명처럼 오늘을 살아라’ 라는 말이 있죠. 내일 죽는다고 했을 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은 몇 시간을 포기해버릴 겁니까.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죽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입니다.

임제선사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進)’ 이라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주인으로 산다면 그가 어디에 살던 그곳은 참된 곳이다’ 라는 뜻이죠. 오늘도 내일도 주체적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불광사 대웅전에 송진이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치우지 않더군요. 누군가는 잘못 밟아서 양말이 더러워졌을 테지만 그 주위로 걸어다닌 흔적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다들 주인이라는 생각대신 자신은 지나가는 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무엇이든 소홀히 할 수 없고 성실히 대하기 마련입니다. 주인으로 살면 그곳이 행복의 터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 하는 공부다’ 하고 깨닫지 못하면 게으름 피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기 위한 방법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련두지 말고 미래에 헛된 기대도 하지 말며 오늘 내 삶과 역사의 주인으로 진실하고 열심히 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 행복하고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쩌다 불행이 그대의 시간에 검은 날개를 퍼덕이며 다가왔더라도 놀랄 것이 없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드는 기회가 아님을 명심하라. 불행은 원천적인 행복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어떻게 갈고 다듬느냐가 문제다”라는 글도 염두에 두고 읽어보십시오.

고통스런 과정 넘겨야 성장 가능

시련은 도약을 위한 과정이고 고통은 행복의 씨앗입니다. 고통스런 과정을 극복하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요. 수험생들에게는 지금 이 과정이 힘들 것입니다. 환경도 체력도 많은 것들이 힘들테죠.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을 찾으면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말은 이 과정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더욱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진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권력과 줄이 닿아야 편하게 살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 시험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을 모색하려면 더 힘이 듭니다. 학생여러분은 이 과정을 절대적으로 극복해 나가야합니다. 우리 사회에 비리가 많다 해서 좌절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실력이 성장되면 앞에 새로운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학생들이 이를 잘 알았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해줄 글귀가 많네요. 다음 글도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것은 생각하는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그것이 불행이고 재난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실수고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것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엎어진 물 양동이에는 빛이 들어갈 수 없고 죄없는 사람의 목에는 칼을 들이댈 수 없어요. 그것은 견고한 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대가 어떤 일을 마음먹은 대로만 한다면 어떤 불행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역시 견고한 이치입니다.”

사람만이 꿈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넘어야할 과정입니다. 앞서 갔던 선배들도 다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길 외에 다른 길은 더 험난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착하게 잘 극복해서 큰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9월 15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9월 16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9월 15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9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문 의 02)3147-2020

지부교육원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불교발전 위한 연구성과 쏟아져

2014년 하반기 불교박사 16명… 불교 응용 · 실천분야에 주목

2014년 하반기, 불교 종립대학에서는 불교를 주제로 한 다양한 논문이 선보였다. 총 16명의 박사들이 탄생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학문의 성과를 선보였다. 종립대학 별로 동국대 9명이었으며, 위덕대 2명, 동방대학원대 2명, 원광대 2명, 조선대 1명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중 일부 논문을 소개한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를 비롯한 불교계 종립대학들은 8월 21~24일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불교관련 박사로는 동국대 9명, 위덕대 2명, 동방대학원대 2명, 원광대 2명, 조선대 1명이 박사를 받았다. 사진은 2014 동국대 학위 수여식

법사, 불교 실천행의 핵심 위치

지일 스님은 '법사사상의 성립과 전개에 대한 연구' 에서 불교사에서 법사사상이 어떻게 성립되고 전개됐는지 고찰했다.

지일 스님은 논문에서 법사의 역할은 대자비심의 행원을 중심으로 사회 실천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교화자였기에 단순히 설법만 하는 설법자가 아니라, 대승불교의 중심인물이었음을 강조했다.

지일 스님은 초기부파불교에서는 설법교화의 주체인 아라한이 대표적인 법사였으며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바로 법사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사는 출가법사와 재가법사로 구분됐음을 설명했다.

업의 결과론 · 동기론적 해석에 학파 갈려

김영석 박사의 '불교 업론에 나타난 의지와 그 표출행위의 상관성 연구' 는 업의 형성과 발생의 과정 중 의지와 행위에 대해 설일체유부, 경량부, 유가행파에서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정리했다.

김 박사는 설일체유부는 의지가 업이라는 단층구조로 해석한 반면, 경량부는 사업과 사이업과 같은 개념으로 좀 더 복합적인 구조로 업을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행파에서는 업의 내적 작용을 의지 발현과 결정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유부는 업의 결과론, 경부와 유가행파는 업의 동기론으로 차이가 있음을 밝히며 '업' 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다양화된 불교의 학파 분열을 향후 철학적 담론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불교 영상미디어, 불교인간상 제시가 목적

최원섭 박사는 '영상미디어의 불교주제 구현 연구' 에서 불교계 영상미디어의 앞길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영화나 방송 등에서 인용할 수 있는 '불교적 코드' 의 해법을 의상 스님의 일승법계도 활용에서 찾았는데 65편의 불교영화와 드라마를 정리해 완성한 인물형, 치유하는 인물형, 세상을 바꾸는 인물형의 세가지 불교적 인물형을 모델로 제시했다. 최 박사는 이러한 인물형을 모두 갖춘 이를 화엄경의 선재동자임을 들었다.

최 박사는 또 영상미디어는 21세기 대안으로 불교적 인물형을 구현해 현실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시청자 스스로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정 비구승단 정신 계승 절실

진관 스님의 '백용성의 불교실천운동연구' 는 용성 스님의 불교 실천 운동의 사례를 예로 들고 새로운 불교실천운동을 제시했다. 특히 진관 스님은 근대불교 변혁 과정에서의 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의 공헌도에 비해 용성 스님 연구가 미약함을 들고, 이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재가불자 · 법사의 적극 활동 강조

영상포교 · 새불교모델 제시

불교인물사 · 사상사 재검토도

진관 스님은 용성 스님은 자주 자립하에 산중불교로 상징되는 무교단 상황에서 불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활동했다며 용성 스님이 염원했던 비구승단의 틀은 오늘날 갖추어져 있으나 그 정신과 사상은 공허에 그치고 있다며 현 종단의 각성을 촉구했다.

'출·재가 중간법계 제정' 사찰경영 맡겨야

박소령 박사는 '대승불교 재가불자의 신행과 위상 연구' 에서 재가불자들의 신행을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불교사적으로 검토해 그 정체성을 알리는데 주목했다.

박 박사는 불교교단은 사상적 특성상 출가와 재가를 엄격히 구분해 각자의 위상을 정립하기 어렵기에 미래 사회에서는 이 두 그룹의 중간 법계를 제정해 사찰 경영, 사회봉사 등 현실적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가자와 재가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가자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일본 다도문화, 한국불교와 시너지

전재현 박사는 '일본불교가 차문화콘텐츠 발전에 끼친 영향' 을 통해 한국불교의 차문화 콘텐츠 개발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전 박사는 일본의 차문화는 중국 차문화와 선사상을 바탕으로 일본식 전통문화로 정착했는데 형식과 격식을 강조함과 동시에 다양한 차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됐음을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문화재 보존 위해 불자들 힘모은다

불교문화재硏 · 대불청, 8월 19일 업무협약



불교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해 불교계 문화재연구기관과 청년단체가 손을 잡았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8월 19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불교문화유산 보존 · 관리 ·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전국 5093개 폐사지에 대한 조사 데이터와 교육프로그램을 대한불교청년회에 제공하며, 대한불교청년회는 폐사지에 대한 홍보와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이날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정안 스님은 "성보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수단" 이라며 "불자 청년들이 우리 성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준호 대불청 회장은 "지난해부터 1폐사지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불교문화재 지킴이가 대불청 브랜드가 되도록 할 계획" 이라며 "불교계 기관의 협력으로 성보 보존과 활용에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청년회는 이미 2013년에 이어 2014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한문화재 한지킴이' 사업에 선정돼 '폐사지 지킴이365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폐사지 보존과 음악회 등을 통한 폐사지 홍보 등의 활동이다.

노덕현 기자

한국연구재단, 종교연구 분야에 '불교' 포함

종교분야 전문위원 선정 과정 중 불교분야를 배제해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연구재단이 불교학분야를 포함시켰다.

한국연구재단은 8월 14일 불교학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종교분야에 불교학분야를 포함시켰음을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4월 30일 한국종교학회에 기독교 10명, 가톨릭 10명, 한국종교 10명의 책임전문위원과 전문위원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불교학분야를 제외해 불교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11개 불교 학술단체들은 '한국연구재단의 불교분야 배제는 종교편향이며 이를 개선하라' 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연구재단 측은 "종교편향적인 고의성이 없었으며 학술연구분야 분류안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불교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불교학계 대표로 권탄준 한국불교학회장을 비롯해 김용표 전 한국불교학회장 · 김성철 한국불교학회 부회장 · 이덕진 한국선학회장 등 관계자들은 학술연구분류표에 종교학 분야가 현재 한국/동양 종교 분야 정원을 차지함에도 대부분 기독교와 관련이 깊어 서양종교 분과로 포함시켜야 함을 지적했다.

권탄준 한국불교학회장은 "학술연구분야분류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술원, 고양 원각사 소장 불교고문헌 전면 조사

8월 27일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 · 촬영 업무협약식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은 8월 27일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에서 고양 원각사(주지 정각)와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 · 촬영 업무협약식'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2012년부터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동국대의 지원으로 수행해 온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 의 일환으로 원각사가 소장한 600여 점의 불교고문헌을 종합 조사하는 첫 시작이다.

원각사 소장 자료는 불교 전적 및 다라니류 410여 종, 사지(寺誌) 등 불교 고문서류 30여 종, 외서류 및 지도류 등 80여 종이 있다. 이외에도 불상, 탱화, 목판, 기와 등 다양한 불교 문화재를 380여 점 이상 소장하고 있다. 원각사 소장본 중에는 〈묘법연화경〉(언해본, 1463년) 권1, 4와 〈유가사지론〉 권42(고려시대 재조본)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치문경훈〉, 〈달마대사관심론〉 등 6건이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교 전적 및 외서 등 고문헌을 중심으로 한 600여 점에 대한 정밀조사와 촬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각사 소장 문헌은 5000만 화소의 고해상도로 촬영해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인터넷 시스템(kabc.dongguk.edu)' 을 통해서 서지와 이미지 자료가 공개된다.

한편, ABC사업은 한국불교가 전통문화유산으로 남긴 다양한 기록물에 대한 집성과 역주작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불교 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 및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확립하고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국대 ABC사업단 집성팀은 2012년 담양 용흥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0개의 사찰과 기관 등을 조사, 총 5천 6백여 점에 이르는 불교고문헌을 조사 ·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법화경요해〉 (2012년 조사, 2014년 보물 지정, 대구 용연사 소장), 〈강화도군기수목〉(2012년 조사, 1854년 필사본, 평창 지암정사 소장) 등 신자료를 발굴한 바 있다.

불교학술원 측은 "원각사 소장 불교 문헌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및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책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간기가 충실히 남아있는 선본(善本)들이 많다" 며 "정밀조사와 촬영을 통해 향후 불교학 뿐만 아니라 서지학 · 역사학계에 다양한 학문적 · 문화적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된다" 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원각사 소장 〈유가사지론〉

노덕현 기자

'오대산 사고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조명

동국사학회 · 월정사 8월 28일 공동학술회의

동국사학회(회장 이도학)는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함께 8월 28일, '오대산 사고와 사고본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를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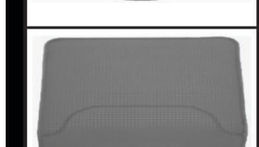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민족기록유산인 '오대산 사고' 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학술대회는 △동국대 교수 자현 스님 '오대산 사고의 입지배경과 사명당' △강문식 서울대 교수 '오대산 사고의 수직승도 운영' , △서인범 동국대 교수의 '실록 소장처, 명조의 황사성과 조선 오대산 사고의 비교' , 김성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외사고의 입지선택과 오대산 사고' , 배현숙 계명문화대 교수의 '오대산사고본의 유출과 환수' , △신병주 건국대 교수의 '오대산 사고본의 특징과 학술적 가치' 가 발표된다.

이어 손성필 고전번역원 연구원, 김용태 동국대 교수, 구자원 북경대 교수, 정재훈 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010)2248-7946

노덕현 기자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개신교 이번엔 "수덕사 무너져라"

C목사, '수덕사 무너지고 중은 개종…' 기와들고 촬영

부처님 정각성지 인도 부다가야에서 개신교 청년들의 땅밟기 기도를 자행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직 목사가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땅밟기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남 예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N교회 C담임목사는 지난해 4월 19일 수덕사에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사진에는 기와에 '마태복음 24:14'와 교회 십자가를 그리고 '수덕사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곳에 중들은 주님 안으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썼다. 문제가 불거지자 C 목사는 현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황이다.

C 목사의 이 같은 행위는 사실상 '땅밟기' 기도에 해당된다. 불교의 기와불사를 이용해 '사찰이 무너지길' 기원했기 때문이다.

2010년 찬양인도자학교의 봉은사 '땅밟기' 동영상로 알려진 선교 방식은 성경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종교 사원이나 성지에서 행해지는 이 같은 선교 행위는 매우 배타적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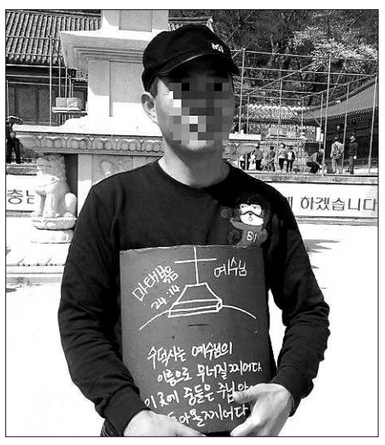
기와에 적혀있는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도 개신교가 선교의 당위성을 찾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경구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작년 5월부터 SNS에 버젓이 게재

"의도성 없이 재미로… 사과하겠다"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 고 쓰여 있다.

하지만 C 목사는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될지 몰랐고, 의도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C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쯤 김포에 청년들이 이곳으로 놀러왔고 수덕사에도 관광차 들린 것" 이라면서 "그중 한 청년이 사찰 기와 불사



현직 목사가 자신의 SNS에 올려 문제가 된 사진. 지난해 4월 촬영해 개제한 것으로 수덕사가 무너지길 기원하고 있다.

접수처에 가서 이 같은 문구를 써서 가지고 왔고, 돌아가면서 촬영했다"고 정황을 밝혔다. 물의가 될 만한 소재의 사진을 찍고 개제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 재미삼아 한 일"이라고 다소 황당한 해명을 했다.

이어 "직접 작성하지 않고 의도성도 없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 "수덕사에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 목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수덕사 사부대중은 불쾌감과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수덕사 중앙종회의원 정묵 스님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비록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그냥 지나가서는 안된다"면서 "일부 개신교 신자들의 배타적 '땅밟기' 행위는 단순히 수덕사 한 곳의 문제 아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의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덕사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뒤늦게 알려진 수덕사 땅밟기에 대해 해당 교단에 공문을 보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키로 했다.

조계종 종평위 관계자는 "이 같은 훼불 행위가 뒤늦게 알려진데 대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해당 교단에 공문을 보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운사의 아름다운 사계' 혜도 스님 사진전 9월 18일까지

사계절 제각각 특색있는 아름다움을 뽐내는 고창 선운사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있는 혜도스님이 첫 번째 전시회를 개최했다. '선운사의 사계' 라는 주제로 선운사 만세루에서 열리고 있는 혜도스님 사진전시회는 선운산의 아름다운 모습과 자연과 어우러진 선운사의 전각을 특유의 빛을 이용한 촬영기법으로 선보이고 있다. 혜도 스님은 "틈틈히 사진기를 들고 촬영해 왔다" 며 "그동안 촬영한 사진을 통해 선운사의 진면목을 보고 선운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렌즈를 통해 본 선운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앵글에 담아 선운사를 찾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솔천의 사계, 단풍, 일주문과 꽃무릇, 설경 등 계절별 선운사의 모습을 스님의 섬세한 시각으로 담아내고 있다.또 세월호 희생자들의 귀환을 바라는 선운사 대중들의 모습, 대중운력 모습, 예불 등 스님들의 일상을 담은 작품 33점이 전시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18일까지 선운사 만세루에서 전시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원 선원사, 종각 및 설법전 낙성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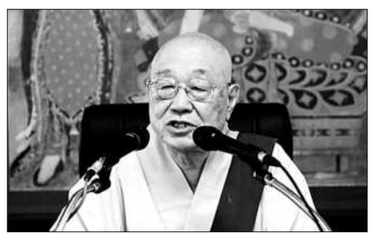
남원 선원사(주지 운천)는 8월 17일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강동원 국회의원, 이환주 남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각 및 설법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운천 스님은 인사말에서 "예로부터 선원사의 종소리는 남원8경중의 하나였다" 며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건립하게 된 설법전을 대중 선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봉사하는 삶이 바로 부처의 삶이다"며 "짜장 스님의 봉사정신을 본받아 이타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법회 후에는 백제 가야금 연주단, 무용가 한영애씨의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 짜장콘서트가 개최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증심사 한탑 스님 초청법회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8월 19일 경내 취백루에서 한탑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했다. '2014명사초청법회-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한탑 스님〈사진〉은 '달마대사 사행관' 에 대한 강연을 했다.

한탑 스님은 "깨달음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치(理致)로 되는 길과 행(行)으로 되는 것이다"라며, "이치로 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참 모습으로 돌아가 이치를 깨달아 분별할 것이 없이 적연무위(寂然無爲)하게 되는 것이다. 행으로 하는 것은 보원행(報怨行 원망이 없는 행), 수연행(隨緣行 인연을 따르는하는 행), 무소구행(無所求行 구하는 생각 말라는 행), 칭법행(稱法行 법에 맞추게 하라는 행)이다" 라고 말했다.

한탑 스님은 고려대 경제학을 전공한 후 출가하여 원각회와 불광법회 초대회장과 금산사, 안국사 등에서 상임법사를 지냈으며, 담양 정토사 문사수법회 회주를 맡고 있다.

증심사 명사초청법회는 9월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 10월 자현스님(조계종교수아사리), 11월 명법스님(조계종교수아사리), 12월 혜민스님(미국햄프셔교수) 등의 법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독서하고 싶으면 사찰로 오세요"

선덕사 작은도서관 효과 톡톡, 광주 408곳 중 불교계 2곳 불과


광주 선덕사 작은도서관. 사찰측은 이용자들이 신도로 등록하는 등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지역에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찰의 작은도서관이 화제다.

광주 선덕사는 2013년 12월 경내에 작은도서관을 성치해 운영하고 있다.

마을사랑방과 함께 공동운영되는 선덕사 작은 도서관은 부모 마인드코칭프로그램, 흙놀이, 문화 강좌 등이 열려 젊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으면서 신도 구성에도 변화가 이는 것이 특징이다.

선덕사 주지 원묵 스님은 "지난해 작은도서관 설치 이후 사찰에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사찰을 찾고 있다"며 작은 도서관의 효과를 말했다. 이어 스님은 "도서관 봉사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젊은 신도들의 조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덕사 작은도서관은 도서 정비를 끝내고 도서 대출을 시작하고 있다. 운영비의 경우에는 구청으로부터 400만원을 지원받아 부담도 덜었다.

선덕사 측은 예상보다 효과가 크자 도서업무 외에도 다양한 어린이 · 청소년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처럼 작은도서관 사업의 효과가 크지만 이에 대한 불교계의 참여는 미흡하다. 광주시의 작은도서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은 현재 408개 운영 중으로 이중 97개가 종교단체에서 설치한 곳이다. 하지만 불교계의 작은도서관은 선덕사와 아시아밝음센터 2곳에 불과하다.

주요 이용자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포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사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소재해 누구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설립와 운영이 쉽다. 시설기준 건물면적 33㎡이상 공간에 열람석 6석 이상으로 자료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후 관할시 ·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설비와 운영비는 관할구청에서 지원된다.

광주시는 작은도서관을 500개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인구 1000세당 1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작은도서관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자료선정과 프로그램 기획 등 교육을 연 3회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자료는 광주시 작은도서관(www.gwangjus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박물관,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전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유병하)는 8월 19일부터 올해말까지 익산 왕궁리 5층석탑 사리장엄구(국보 123호)를 특별전시한다.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된 미술공예실에는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남원지역의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등 40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은판에 금강경을 새겨 금도금한 금강경판과 보관함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이밖에 일제 강점기 일본에 반출됐다 환수된 전주 낙수정 범종(보물 1325호)도 함께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청자 가마로 알려진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를 비롯해 전북지역 청자 요지 출토품을 전시해 전북의 청자 발달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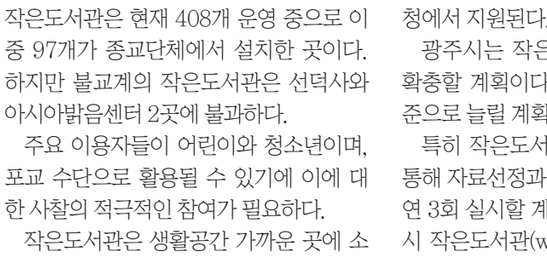
진정환 학예사는 "익산 왕궁리 사리장엄구는 미륵사지 사리장엄 이후 조성된 사리장엄구이다" 며 "그동안 흩어져 전시되고 있던 유물을 미술공예실의 단장과 함께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금강경판 19매와 보관함도 함께 전시하고 있어 많은 불자들의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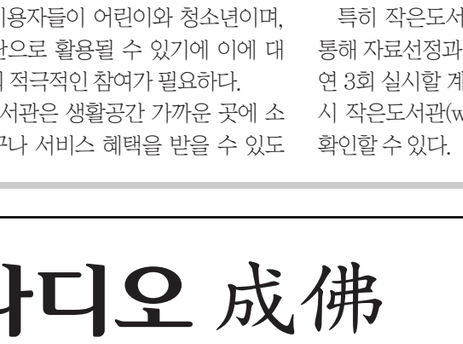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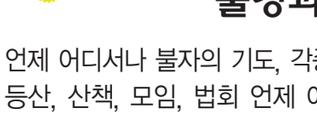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www.hyunbulshop.com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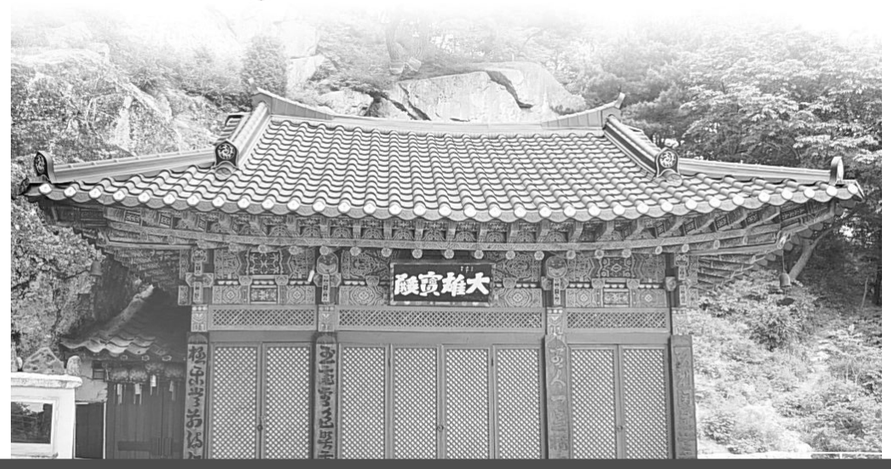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연극 재능보시로 나눔 배워요”

부산 금정중학교 해오름예술극단 하반기 연수

불교의 가르침으로 참된 교육을 이끌고 있는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이상엽)의 해오름예술극단(지도법사 이석언)이 하반기 공연을 위해 영천 보현자연수련원으로 2박 3일 연수를 실시했다. 금정중학교 18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해오름예술극단은 오는 하반기 창작공연 ‘홀로 아리랑(가칭)’을 완성하기 위해 8월 13일~15일까지 총 3일 동안의 합숙을 결정했다. 해오름예술극단은 이번 연수를 통해 연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현경로당 등에서 위로 공연을 선보이며 영천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해오름예술극단의 연수에는 해오름예술극단 출신인 허재석(18) 학생을 포함한 4명의 남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연극 지도를 위해 합류했다.

3년째 해오름예술극단에서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는 조상운(16) 학생은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고 가치 있다. 또한 이렇게 상을 받으면 친구들과 추억도 만들고 뿌듯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남승원(16) 학생은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긴다. 대외적인 상을 받으면 힘들었던 순간들이 사라진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사라졌다. 긍정적으로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극단의 장점을 꼽았다.

창단부터 지금까지 해오름예술극단을 이끌고 있는 이석언 법사는 “학생들이 연극을 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는 모습이 흐뭇하다. 또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들도 연극을 통해 바르게 성장한다. 불교를 주제로 한 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연극들은 학생들을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불교의 교리를 연극에 접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교의 효과도 있다”며 해오름예술극단의 이점을 밝혔다.



금정중학교 해오름예술극단은 1996년 창단 이래 다양한 창작 공연을 선보이며 불교단체 등에 공연을 펼쳐왔다.

96년 창단… 108배하며 연습
불교계 요양원 등서 공연 봉사

한편 해오름예술극단은 1996년 이석언 지도법사의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 후배인 이기호 부산 경성대학교 연극과 교수의 적극적인 권유로 시작됐다. 이석언 지도법사는 초파일 가장행렬을 시작으로 점차 단원들을 모아 1997년 파라미타 예술제에서 ‘성철’을 선보였고 2001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창단 공연으로 본격적인 해오름예술극단의 시작을 알렸다. 그 후 2003년 ‘님의 침묵’ 등 다양한 극을 금정노인요양원, 무량수요양원, 파라미타 등 불교기관에 정기적으로 선보이며 재능을 보시하고 있다.

또한 금정중학교 대표 동아리로 자리 잡은 해오름예술극단은 각종 대회 참여 및 수상으로 금정중학교를 2014 연극특성화학교로 지정케 하여 정부로부터 매년 천만 원씩의 지원금을 3년 동안 받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금정경찰서(서장 양두환)가 주최하는 2014 학교폭력 역할극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역대 단원 중 40여명은 연극 및 영화 관련 학과로 진학하기도 했다. 해오름예술극단은 새 학기초 오디션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되 소극적인 학생들에게는 이석언 법사가 적극적으로 권유해 활기찬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이석언 법사는 자신의 수행경험을 살려 금정중학교 내 법당 반야원에서 학생들과 108배 수행을 함께하는 등 학생들의 생활에 불교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오름예술극단은 이번 연수로 완성된 ‘홀로 아리랑(가칭)’으로 부산 내 불교기관에 지속적인 재능보시를 펼친다.

김나영 객원기자

소외된 이웃 돌보기 주민들 직접 나서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명지사랑 복지펀드’ 협약

진각복지재단 산하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돈오)이 8월 13일 부산 명지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임상학) 및 명지동 주민센터(동장 김종건)와 ‘명지사랑 복지펀드’ 협약을 체결했다. ‘명지사랑 복지펀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주민들 중에서 생활이 무척 어렵거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지역 내 이웃들을 돕고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뜻을 모아 만든 협약이다.

이 협약으로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자들을 발굴하고 긴급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기금관리 및 집행, 후원자 및 대상자 사례관리 등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날 사전 홍보로 십시일반 모은 후원신청서 50장을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명지사랑 복지펀드 협약식

김나영 객원기자

유라시아 횡단으로 ‘통일 기원’

고려인 국제 오토랠리팀 부산서 환영식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러시아 · 북한을 거쳐 부산으로 대장정에 오른 고려인 국제오토랠리팀(단장 김 에르네스트)이 8월 19일 부산 해운대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환영식을 가졌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무원 스님(삼광사 주지)은 축사에서 “자동차로 남북 횡단을 최초로 해낸 랠리팀으로 인해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로 연결됐다. 랠리팀의 역사적인 순간들이 한반도 국민의 마음에 불씨가 되어 통일의 불꽃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려인 30여 명으로 구성된 랠리팀은 이번 대장정을 통해 자신의 뿌리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교황에게 러시아 · 북한 · 남한 세 곳의 흙이 담긴 기념 화분을 전달하는 등 한반도와 러시아의 평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무원 스님(삼광사 주지)은 축사에서 “자동차로 남북 횡단을 최초로 해낸 랠리팀으로 인해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로 연결됐다. 랠리팀의 역사적인 순간들이 한반도 국민의 마음에 불씨가 되어 통일의 불꽃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랠리팀 김 에르네스트 단장은 “앞으로도 북한과 남한의 많은 교류로 소통의 차이를 줄여나가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제오토랠리팀은 러시아부터 부산까지 약 1만 5000㎞를 완주했으며 69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반도를 종단했다. 랠리팀은 8월 24일 (사)한국자동차협회와 강원 동해항으로 이어지는 고국산천 순례를 마지막 여정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고려인 국제 오토랠리팀 환영식

김나영 객원기자

김해 바라밀선원 승공법회 · 자비의 쌀 전달식

홀몸 어르신에게 쌀 50포대 전달

김해 바라밀선원(주지 인해)은 8월 17일 백중기도 회향을 맞아 ‘제2회 승공법회 및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바라밀선원 조실 요산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 등이 참여 지역 홀몸 어르신들에게 자비의 쌀 50포대를 인근 지역 동장들에게 전달했다.

발라밀선원주지 인해 스님은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비행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에는 100포대를 목표로 정해 지역주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박유미(51)씨는 “주지 스님께서 선원을 개원해 천일기도를 시작하신 이후부터 날마다 신심 있는 불자들이 늘어나고 봉사활동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올 해부터 시작한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계기로 차츰 공덕을 쌓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는 스님이 너무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바라밀선원 쌀 50포대 전달식 모습

김나영 객원기자

각성 스님 초청 대승기신론 특강

고운사, 8월 18일~22일 경내 선체험관서

제16교구 고운사(주지 호성)는 8월 18일~22일 경내 선체험관에서 부산 화엄사 각성 스님을 모시고 5일간의 대승기신론 특강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여해 하루 4시간의 강의를 경청했다.

고운사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 가운데 이는 ‘승려연수교육에 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수료자에게 30점의 점수가 부여 된다.

고운사는 앞으로도 각성 스님을 모시고 해제 때마다 특강을 이어갈 예정이다.


각성 스님의 고운사 특강 장면

박영애 영주지국장



천년의 풍상 비켜간 듯 태고적 신비가…

암자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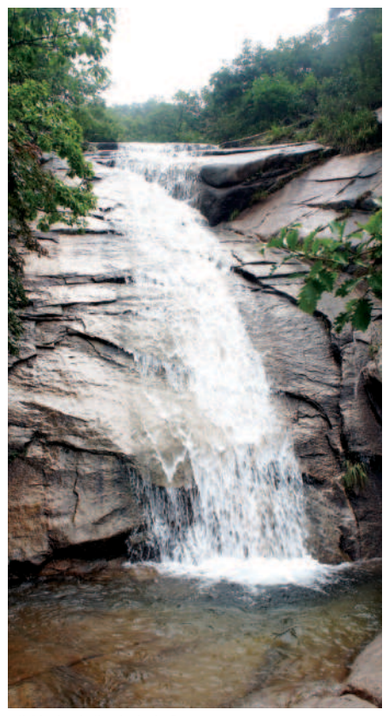
⑦ 수락산 내원암

'바위가 벽으로 둘러치고 있으니, 물이 굴러 떨어져 수락(水落)이요, 모래가 눈처럼 쌓였으니, 골짜기의 물이 맑아 구슬물이다. 바위들이 서로 걸터 앉았으니 이름하여 향로, 경천의 기봉을 이룬다.'

-〈내원암 칠성각 신건기〉



세칸 남짓한 대웅보전은 소박단정 하지만 지나가는 등산객들의 머리를 절로 숙이게 한다. 주변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기도수행자의 면모를 느끼게 한다.



내원암 아래 위치한 은류폭포



조선초기 제작된 것으로보이는 미륵마애불



내원암 마당의 석탑과 '성사' 편액이 걸린 전각

서울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남양주시에 걸쳐 있는 수락산(水落山)은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과 더불어 서울 북부지역의 4대 명산으로 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해발고도 638미터로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제법 덩치가 크고 우람한 암산이다. 실학자 신경준은 〈산경표〉에서 수락산을 '백두대간에서 뻗어 내린 한북정맥이 흐른다' 고 표현하기도 했다.

수락산에는 석벽과 암반으로 된 기암괴석이 즐비한데 산이 높으면 물이 깊듯, 많은 골짜기에 폭포로 유명하다. 수락산의 이름도 이러한 폭포 때문에 '물이 굴러 떨어진다' 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산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수락산은 여름철이 제격이다. 시원한 계곡과 폭포에서 더위를 씻기에 그만인 까닭이다.

이 중 수락산 내원암으로 오르는 마당바위 계곡은 수락산의 계곡 중에서 으뜸으로 꼽힌다. 이 계곡은 청락리, 옥류동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물 좋고 경치 좋은 골짜기에 붙는 청학, 백운, 옥류 등 이름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계곡의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계곡에는 예부터 이름난 3개의 폭포가 있다. 바로 옥류폭포, 은류폭포, 금류폭포다. 그러나 옥류폭포까지는 개인 소유지여서 난개발이 진행됐다. 호곡 남용익의 〈간폭정기〉에 실린 '수락산 옥류동의 아름다운 폭포 옆에 간폭정을 지었다' 는 그 곳, 옥류폭포에는 이미 장사하는 천막과 좌판으로 가득하다.

속상한 마음도 잠시, 20여분을 오르면 시멘트 포장길이 끝나고 맑고 깨끗한 계곡이 길손을 맞는다. 기암괴석 위로 나있는 돌층계와 200여개의 돌계단을 다 오를 즈음 길 좌측으로 은류폭포가 나타난다. 은류폭포는 수락산 중턱 위에 위치해있다. 시원한 물소리와 바람이 흐르는 땀과 열기를 금새 날려버린다. 은류폭포는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해가 동쪽에서 뜰 때 물이 은빛으로 빛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겨울철이면 빙벽 등반을 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마지막 관문인 돌계단은 끝이 없을 것 처럼 위로 이어져 숨을 턱에 닿게 한다. 여기서 오르면 금류폭포가 나온다.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데 암반 움푹 들어간 곳에는 맑은 물이 가득 고여 있고 넓은 바위에는 금류동천(金流洞天)이라고 힘찬 해서체 필치로 새겨 놓았다.

미륵불 현현하는 도량

이 금류폭포의 위가 바로 내원암이다. 내원(內院)이란 도솔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적한 후 56억 7000만년 뒤 이땅에 내려와 중상을 구원할 미륵불이 있는 곳이다. 내원암이란, '미륵불' 에 의해 구원을 얻을 사찰인 것이다.

내원암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금방 둘러볼 수 있다. 계단에 오르면 처음으로 만나는 마당 입구의 석탑이 인상적이다. 탑신은 사라졌고 옥개석만 삼층 남아 있다. 여러 곳에 뒹굴던 돌을 모은 것이 분명하다. 작은 돌탑이지만 내원암의 세월을 증명한다.

내원암은 신라시대 창건된 사찰로 조계종 봉선사의 말사다. 〈봉선사본말사지〉에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나타나있다. 조선 후기에는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사세가 번창했다고 한다.

1693년 숙종이 수락산에서 영원 스님으로 하여금 백일기도를 올리게 한 뒤 영조를 얻은 이후로 조선왕실의 기도처가 됐다.

특히 정조와의 인연이 깊은데 설화에 의하면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왕손을 얻고자 내원암에서 용파 스님과 농산 스님으로 하여금 100일 기도를 드리게 했고 기도 중 농산 스님이 환생해 순조가 됐다고 한다.

정조 때 강원도 건봉사의 스님이 묘향산에 있던 16나한을 옮겨 내원암에 봉안하여

신라시대 창건된 봉선사 말사
조선후기 왕실 후원으로 사세 번창
김시습 10년간 머물렀다고 전해져
수락산 바위 깎아 만든 미륵불 '눈길'

'성사' 라고도 불렸는데 지금까지도 전해내려오고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왕실 원당으로 수많은 왕실 여인들이 찾았다.

한국전쟁 때는 소실됐는데 1955년 다시 옛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에 대웅전을 새로 건립하였고 그 후 영산각과 미륵전을 복원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후 친일파 후손과 부지 소유권으로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최근 승소하였다

산 깊은 골짜기에 비탈을 고르고 축대를 쌓아 마련한 사찰공간의 여러 건물이 다양하다. 절집 범위가 그리 넓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암자다워 수행과 기도처로 적당한 곳이다.

내원암의 대웅전과 영산전 사이에 있는 미륵마애불은 갸름한 얼굴과 오똑한 코에 입고리가 살짝 올라간 작은 입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미인상을 이처럼 잘 표현한 마애불도 없을것 같다.

이 미륵마애불은 수락산의 바위를 깍아 만든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전쟁 당시 폐허가 된 절을 중건할 때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을 찾아 세웠다고 한다. 제작 시기는 정확치 않은데 표현 형식으로 보아 조선조 초기라고도 하고 고려 때라고도 한다. 그저 내원암 미륵불에서 민초들의 소박한 솜씨가 정겨워 보일 뿐이다.

단청을 올리지 않은 새 건물에는 편액이 두 개 걸려있다. 중앙에는 내원암, 오른쪽에는 같은 크기로 성사(聖寺)다. 앞서말한 것과같이 건봉사에 있던 16나한을 옮겨 봉안하면서 이처럼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대웅전은 세칸 남짓한 작은 크기로 소박단정하다. 앞마당에 등산객들이 지나다니는데,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주변이 깨끗하고 풀꽃 나무 한그루까지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 비구니 스님 사찰답다.

내원암에는 실물은 볼 수 없으나 경기도 유형문화재 197호로 지정된 '괘불' 이 있다. 괘불은 중앙에 석가모니불과 그 아래 관세음보살, 좌우로는 아난과 가섭을 그렸다. 1885년에 제작한 것인데 마름모꼴 인물 배치가 특징이라고 한다. 내원암 괘불은 법회나 큰 행사에만 내어 건다고 한다.

김시습의 절개가 아직도 전해져

수락산 내원암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의 주인공이며, 조선 세조 때 생육신으로 잘 알려진 매월당 김시습의 혼이 담겨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곳은 매월당집의 기록에 의하면 매월당 김시습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계기로 방랑하던 중 10년 간 머물렀다고 한다.

내원암 입구인 금류폭포의 안내문에도 매월당과 관련된 글귀가 적혀 있다.

'매월당집(梅月堂集)에 따르면 매월당은 10년간 이곳에 머물렀다 하고, 남용익의 간폭정기(看瀑亭記)에 따르면 옥류폭포 옆 간폭정에서 5리 오르면 김시습 구지(舊址)가 있다' 는 내용이니 김시습이 10년간 내원암에 머문 것을 증명한다.

내원암 아래에는 누가 가꾸었는지 모를 작은 텃밭이 형성돼 있다. 이 내원암에서 10여년을 살며 속세를 잊고 수많은 명작을 남긴 김시습을 생각하며 다시 산 아래로 발길을 옮긴다. 지금은 수백년이 흐르며 그때의 풍경이 사라졌지만, 수락산 내원암이 안고 있는 바위만큼은 그때, 김시습의 절개와 기도하는 조선왕실 여성들의 간절함을 간직하고 있는 듯 싶다.

남양주=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주변 둘러볼만한 곳

교통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환승 버스 10, 17, 33, 33-1→마당바위 하차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1번 출구→환승 버스 1155, 1225→청학리 하차→걷거나(15분) 버스 환승(10, 33번)→마당바위

걷기 코스

마당바위 입구→은류폭포 조망지점→금류폭포 아래→내원암→수락산장→수락산 정상

주변 볼거리

▲수락팔경

수락팔경은 내원암에 머물던 정허 거사가 내원암을 중심으로 한 수락산 동부의 풍경을 읊은데서 유래한다. 제1경은 옥류폭포, 2경은 은류폭포, 3경 금류폭포, 4경 미륵봉, 5경 향로봉 6경 칠성대(유두바위), 7경 내원암, 8경 영락대이다. 이중 등산객들에게 칠성대가 가장 인기다.



김시습의 시가 남아있는 매월정

▲매월정

수락산 매월정은 매월당 김시습을 기리기 위해 곰바위 정상에 지은 전통정자로 2008년 완공됐다. 수락산 주봉으로 향하면 깔딱고개 바로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시습이 남긴 시들이 안내문으로 남겨져 있다. 매월정에 오르면 서쪽으로는 도봉산이, 남쪽으로는 백운계곡 너머 불암산이 보인다.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소중한 그리움으로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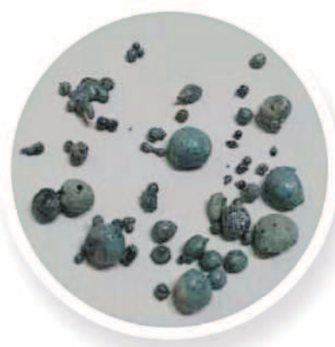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영원의 안식처를 제공해 드리는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 봉안

천혜의 명당 수락산에 자리한 천운사는 기존의 납골함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골의 부패와 악취, 해충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 연구 끝에 천운사 자성사리 결정체를 개발했습니다.
천운사 자성사리는 보석처럼 맑고 영롱한 결정체로 혐오감이나 두려움,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고인의 영가를 명예롭고 소중하게 모시는 천운사 자성사리는 화장된 고인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고인의 유골만으로 생성하는 자성사리이며 수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마음은 있어도 잘 모시지 못하는 마음을 이제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하실 수 있게 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법초, 성묘, 제사등 시간적, 경제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중한 고인을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 하시면 지장부처님의 월력으로 극락환생 발원. 잘못된 묫자리 또는 화장 후 유골의 부패와 해충으로 인한 집안의 우환과 부정적 악 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운사 자성사리는 가정집, 교회, 성당, 사찰,납골묘, 납골당 및 문중사당 재실 등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천운사는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 입구에 자리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의정부IC에서 2Km거리에 있으며, 수락산 전철역 3번 출구에서 700m에 있어 찾아오시기 아주 편리합니다.
국제선불교 조계종 천운사 지정전에 지장부처님 안에 자성사리로 봉안하시면 매일 영가 축원과 재수음식을 차려 정성껏 축원을 해 드립니다.







국제선불교조계종 천운사 TEL.02)952-9918 / HP.010-3566-3019 분양문의 (주)천운효행 TEL. 02)935-0521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00-6(수락산)

新 사찰 건축

14.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구 전통불교문화원)

불교의 본질 '비움' 건축 미학으로

"불교건축이 현대건축에서 공백으로 기록된 까닭이 조선시대 숭유배불 정책의 사유가 크긴 해도 현대에 이르러서도 불교계의 옛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불교의 본질에서 어긋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를 이 건축의 건축가로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그 족쇄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2009년 6월 11일 충남 공주 태화산에 한국문화연수원이 세워졌다. 불사는 건축가를 결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건축가를 선택하는 일이 건축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 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의 형태를 '고르는' 작업이 아니라 '시대적 요청' 에서 출발한 한 건축가의 '건축관(建築觀)' 을 받아들이는 문제였다. 건축가는 2002년 건축가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 로 선정된 건축가 승효상(62 · 이로재 대표) 씨였다. 그의 건축관은 '진보' 와 닿아 있는 것이었으며, 그 진보는 '옛 것' 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려는 '생각' 이었다. 건축의 의뢰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건축이 현대건축에서 공백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말하는 건축관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의 건축을 받아들였다. 한국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은 현대건축에 기록되기를 발원한 불교건축이다.

'마당', 우리 고유의 건축언어

"나는 불교 건축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비움이었으며, 불교의 본질이었다. 그래서 비움은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의 중요한 개념이 되어야 했다."

대지면적 14,867.00㎡, 건축면적 5,745.93㎡, 연면적 9,600.45㎡의 연수원은 크게 교육행정동과 숙박후생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교육행정동은 중앙의 마당을 중심으로 한 'ㄷ' 자 형태로 지어졌고, 일곱 개의 동으로 구성된 숙박후생동은 동과 동 사이를 길이라기 보다는 마당이라는 느낌의 공간으로 잇고 있다.

연수원은 건축가의 말대로 '비움' 으로 시작된 건축이다. 그 비움의 실천은 '여백' 이고, 그 여백의 구체적인 이름은 '마당' 인 것이다. 마당은 우리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개념이다. 연수원은 마당을 건축의 중심에 놓았던 우리 건축의 전통적인 구조를 기본 틀로 한 건축이다. 각 건물들은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됐다.

우리 전통 건축을 서양처럼 기둥이나 지붕 같은 요소의 양식으로 분석, 분류하여 한국건축의 특성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건축가는 말한다. 물질적 풍요보다 청빈낙도를 동경한 우리 선조들의 건축은, 국악이나 전통회화가 음과 음의 사이나 화면의 여백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던 것처럼 건물 자체가 아니라 방과 방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또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한 것이다. 즉 단일 건물보다는 '집합' 으로서의 건축적 조화가 우선이었던 이유로 그 집합의 중심에 놓이는 비움의 공간 마당은 우리 건축의 '키' 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건축의 마당은 서양인들이 건물과 대립적 요소로 사용한 정원과도 다른 것이며, 기후에서 비롯된 중동의 중정과도 다른 것이고, 관상의 의미가 큰 일본의 정원과도 다른 차원의 것이다. 주거에서 뿐만 아니라 사찰, 서원, 궁궐 등 모든 건축에서 그 중심에 자리하는 우리의 '마당' 은 때로는 작업공간으로, 때로는 공용공간으로, 혹은 축제의 공간으로, 심지어는 사유를 위한 공간으로 그 의미와 기능의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의 마당은 우리의 고유한 건축 언어이며, 문화적 가치인 것이다.

연수원 부지로 책정된 사곡면 마곡사로 1065번지 일대는 조선시대 가마터였다. 설계 전에 기와가마 56기와 그와 관련된 부속시설인 수혈수구 30여기들이 발굴됐다. 부지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이 건축금지 지역으로 고시됐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마당을 중심에 놓은 비움의 건축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시작됐다. 부지 중앙의 많은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비워야 했다. 자연스럽게 건물들이 여백의 끝에 놓이면서 마당을 중심으로 한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다. 연수원 안에는 많은 마당들이 독립적으로, 혹은 이어지면서 건축의 대마를 이룬다. 여기에서 건축물들은 그 마당을 한정하는 요소이고, 많은 마당들은 스스로 존재방식을 가지고 연결되면서 주변의 풍경과 거주의 일면을 담는다.

건물들의 특징

건물들은 박공형태의 여러 매스들이 기단 위에 얹혀있는 형태다. 건물의 외부재료는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돌과 나무로, 흙에 묻힌 옹벽부분은 자연석, 기단부분은 화강석으로 마감했다. 교육행정동의 강의실은 마당을 중심으로 주위 둘레를 따라 배치됐고,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사이를 비워 그 틈새로 주변 풍경을 볼 수 있고, 빛과 바람이 흘러들 수 있게 했다.

마당은 멀리 태화산 줄기와 가깝게 마곡천 계곡으로 열려있고, 마당 한 쪽 끝의 수반 위에 불상이 모셔져 있다. 이 마당은 안과 밖, 자연과 건축,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 교육행정동은 강의와 교육,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홀, 대강의실 소강의실, 분임 토론실과 선방으로 구성되어있다. 선방은 흙벽으로 마감되어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해 선체험 및 불교 관련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약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후생동은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숙박과 식사를 포함한 후생 및 편의 시설로서 숙소와 식당, 다실, 관리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숙박후생동은 많은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건축물 사이로 길게 경사진 마당은 담장으로 구획된 숙소의 크고 작은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다. 경사진 지형의 흐름에 따라 크지 않은 건물을 배치하여 주변 풍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최저층 부분에 서비스를 위한 공간을 두고, 마곡천 계곡을 따라 식당을 배치하여 넓은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후생동의 객실은 전통 한실 이미지의 공간으로, 1층에 위치한 객실은 각 동마다 변화있게 가꾸어진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했고, 2층의 객실은 먼 풍경까지 조망할 수 있게 배치해 각 동과 방마다 서로 다른 조망을 갖는다.

숙박후생동의 각 마당은 마사토마당, 박석마당, 이끼마당, 연지, 화계 등 각 마당마다 특색을 지니고 있다. 조경에 사용한 수목은 배롱나무, 단풍나무, 연, 불두화 보리수 등 사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종을 택했다.



2009년 6월 완공된 한국문화연수원은 우리 건축의 기본인 '마당' 을 중심에 둔 건축으로 '비움' 의 미학을 담고 있다.

시대적 요청의 건축관 수용
2009년 6월 준공 · 설계 승효상
우리 건축의 '마당' 기본틀로
나무, 돌 사용 주변과 조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량

세계적으로 문화가 '힘' 이 된 지 오래다. 때문에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는 '문화' 를 키우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자기문화, 자기사상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우리의 문화를 알고 키우는 일에 소홀할 수 없을 것이다. 오랜 세월 우리 문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온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통과 화합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수원은 '한국문화의 세계화' , '불교문화의 대중화' , '전통문화의 현대화' 를 위해 건립된 연수원이다. 한국문화연수원 건축불사는 우리의 문화를 '알고 키우는' '노력'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연수원 건축은 외형적인 면에서는 '옛 것' 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진보적인 현대건축을 선택했고, 그 밑그림은 우리의 전통 건축의 문화적 가치에서 시작했다. '옛 것' 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노력이 문화를 키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옛 것' 을 잊지 않은 일은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수용한 본 건축은 연수원 건립의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의 도량인 것이며, 그 도량이 시대적 요청을 수행해 나가는 일은 우리 문화의 힘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불교' 가 우리 문화를 알리고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문화연수원' 이라는 불사는 그런 우리의 문화적 소임을 펼치기 위한 도량의 마련인 것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숙박후생동은 여러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당을 중심으로 한 'ㄷ' 자형 건물의 교육행정동

건축가 승효상은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비엔나공과대학에서 수학했고, 15년간의 김수근 문화를 거쳐 1989년 이로재를 열었다. 수졸당, 수백단, 웰콤시티, 대전대 혜화문화관 등으로 여러 건축상을 수상했다. 파주출판도시의 코디네이터로 새로운 도시 건설을 지휘한 그는 2002년 미국건축가협회 명예펠로우의 자격을 부여받고, 같은 해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 로 선정됐다. 1998년 북 런던대학의 객원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한국중합예술학교에서 강의 하고 있다. 저서로는 〈빈자의 미학〉과 〈지혜의 도시 지혜의 건축〉, 〈Works:10×2〉, 〈건축, 사유의 기호〉, 〈비움의 구축〉 등이 있다.

석가탑! 영산불교 현지사에 우뚝 솟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존을 증명하다!

대적광전에 이은 지구촌 보물 2호 '현지사 석가탑', 소원성취와 업장소멸을 이루어주는 중생들의 복전(福田)이 되다



▷ 오색무지개가 걸려있는 석가탑

■ 2600년 전에 반열반에 드신 석가모니부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모든 부처님들은 반열반 이후 연화장세계의 자신의 원만보신불로 회귀하게 됩니다. 남섬부주 중생을 제도하고자 할 때 부처님들은 무량광 빛의 세계인 연화장세계에 자신의 원만보신을 남겨두고 영혼체가 빠져나와 육신의 몸을 받게 됩니다. 이 육신의 몸을 응화신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2600년 전 인도에서 성도(成道)와 열반(涅槃) 상을 방편으로 보인 것일 뿐 〈법화경 여래수량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도 육신의 멸도 후에 원만보신 노사나불로 회귀하여 계셨던 것입니다.

■ 마음이 정토? – 유심정토(唯心淨土)의 오류

정토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세계인 연화장세계가 실재하는 것처럼 보살들이 머무는 정토세계도 실제로 있습니다. 〈정토삼부경〉에서 설하고 있는 서방극락세계는 방편이 아닙니다. 정토는 아라한이 머무는 색계(色界)의 유정천을 지나 삼계 밖에 부처님의 원력으로 건립된, 보살들이 머무는 해탈열반의 세계입니다. 이 정토에서 각각의 부처님들이 보살들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아미타부처님의 서방 극락정토, 약사여래부처님의 동방 정유리정토, 다보여래부처님의 보정정토 등이 있습니다.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도솔천의 내원궁은 부처님을 낳은 부모님들이 가는 높은 하늘세계이지 정토는 아닙니다. 일부 불자들은 선종(禪宗)의 영향을 받아 '마음이 바로 정토' 이지 마음 밖에 따로 정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전혀 잘못입니다.

■ 석가모니부처님의 정토 – 영산정토(靈山淨土)

석가모니부처님의 정토는 다른 부처님들과 달리 사바세계 남섬부주 안에 있습니다. 서방극락정토나 동방정유리정토 보정정토는 모두 윤회세계인 삼계를 벗어나 있지만 석가모니부처님의 정토는 남섬부주 인도 영취산 상공에 있습니다. 이를 영산정토, 혹은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이므로 영산궁이라고도 합니다. 당신의 정토가 하늘세계도 아니고 인간세계에 있는 것은 석가모니부처님의 본원력으로서, 남섬부주 중생을 교화하는 남섬부주 교주(敎主)의 책임을 스스로 떠맡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법화행자들은 이 남섬부주를 부처님의 정토로 보는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천태종을 개창한 천태지의 스님은 '영산일회 엄연미산(靈山一會 嚴然未散 – 영산 당시의 모임이 엄연히 아직도 흩어지지 않고 있음)' 이라고 말했습니다. 법화삼매 속에서 영산정토 영산회상의 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 석가탑의 석가모니부처님

■ 〈법화경 여래수량품〉에서의 영산정토

법화경에서는 부처님 스스로 다음과 같이 영산정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이 국토를 겁(劫)의 불에 타 없어지고 근심 공포 온갖 고뇌가 가득찬 곳으로 보지만, 나의 이 정토는 영원히 변함 없느니라. 이런 모든 중생은 악한 업의 인연으로 아승지겁 지날지라도 삼보의 이름도 듣지 못하나, 공덕을 많이 닦아서 부드럽고 화평하며 곧은 사람은 모두 내가 이곳에 있어 설법하는 것을 보게 되느니라"

■ 석가탑 – 영산정토에 있는 무량광 빛의 탑을 재현하다

석가탑은 영산정토에 있는 실제의 탑으로서 이곳에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정삼매에 들기도 합니다. 현지사 석가탑은 영산정토에 있는 탑의 형상을 본 따 8각의 정자 형태로 조성했습니다. 4각 형태의 다보탑과 함께 석가탑은 불법의 진리 즉 4성제와 8정도를 각각 상징합니다. 현지사에서 석가탑을 조성한 이유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실존을 증명하고 현지사가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와계신 부처님 회상임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강법악(魔强法弱)의 말법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변치 않는 우주적 진리임을 만방(萬邦)에 선포하여 왜소화되고 왜곡되어 쇠잔해진 불법을 쇄신하고 중흥하여 새로운 정법시대를 개창하기 위해서입니다.

■ 지구촌 보물 2호 현지사 석가탑 – 실제의 석가탑과 빛으로 링크되다

현지사의 석가탑은 불과를 증한 대성자에 의해 점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산정토에 있는 실재의 석가탑과 빛으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불안으로 관찰하면 영산정토의 탑과 빛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석가탑이 아무리 무수히 만들어지더라도 점안이 바로 되지 않으면 부처님의 위신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건축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현지사의 석가탑은 부처님의 우주적 위신력을 곧바로 발휘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탑입니다.
말법시대에 중생의 복전이 됨은 물론이고, 중생의 간절한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중생들에게 업장소멸의 가피를 시현하는, 부처님의 자비가 실현되는 미증유(未曾有)한 보배탑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지사 석가탑은 대적광전에 이은 또 하나의 지구촌 보물입니다.



▷ 초파일날 불자들이 탑돌이를 하고 있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고성분원 정기법회
9월 1일(월) 오전 9시

※추석연휴 관계로 법회를 앞당겨서 개최합니다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47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33)681-5515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033)243-1787

화엄의 꽃 절집 천정

〈6〉 능가산 내소사 대웅보전

무위로 경영한 天衣無縫 장엄

〈천의무봉〉



대웅보전 천정 중앙에 경영한 우물천정에서 좌우 가장자리에 베푼 악기벽화. 총 10칸 모두에는 저마다 다른 악기를 그렸다.



천정에 장엄된 대표적 문양들. 천정에 물고기, 게 등 수중생물이 그려져 있다.



대웅보전 내진영역의 우물천정 장엄. 한가운데 팔엽 연화좌는 팔방금강연화좌를 상징한다.



빗반자와 우물천정 결합된 대웅보전 천정.

천정 중앙 10칸 각 다른 악기그려
대흥사, 통도사 등 비슷한 사례
종묘제례악의 장중함 느껴져
시대정신인 '예악사상' 반영 흔적

17~18세기 서민적 불교색채 대두

전란 이후 17세기에 이르면 조선사회에 치명적이었던 전란과 흉년, 역병 등으로 수륙재와 천도재의 서민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숭유억불의 사회에서 사찰중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서민의 영가천도와 기복신앙 수요를 불교가 수용하면서 서민적, 대중적 불교 색채를 띄게 된다. 일종의 불교에서 '브나르도 운동' 이라하겠다.

전란 후 차즘 사회경제체제가 안정되고 상품교역과 생산력이 확대되면서 부를 축적한 평민이 등장하게 된다. 그같은 경향은 강경포구 등 조운과 해상교역세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 17, 18세기 불전중창에서 새로운 시주계층으로 평민 속에서 대두하게 된 것이다. 중창불사를 위해 스님들 스스로 마련한 계(승계:僧契), 그 중에서도 일차적인 갑계(甲契)를 통해 재정기반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천도재, 수륙재 등을 통해 평민의 경제력을 불교 속으로 끌여들여 불사를 일구어 나갔다. 이러한 흐름은 상품교역이 활발히 전개되던 서남해안에서 특히 활발하였던 바, 미황사, 대흥사, 불회사, 불갑사, 내소사, 논산 쌍계사 등의 중창불사가 그러한 사례다.

생동감 있는 낭만주의 불전 장엄

영남의 범어사, 통도사, 불국사가 고전주의에 바탕을 둔 바로크적 장엄함을 추구하였다면, 서남해안의 미황사, 대흥사, 내소사 등은 보다 서정적이며,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낭만주의적 불전장엄을 조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기지역과 팔공산 중심의 영남지역에 국가왕실의 비호를 받는 원당사찰이 많았던 반면에, 서남해안지역에는 일반평민들의 불전참여가 보다 능동적이었던 까닭에 서남해안 불전장엄에서 민중적 취향이 반영될 수 밖에 없었다.

천도재 등이 활발해지면서 대웅전 등 사찰의 핵심불전이 스님 중심의 예배공간에서 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의식공간으로 바뀌고, 대웅전 한 공간에서 예불과 의례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져, 신중단, 영가단이 함께 통합된 삼단형식의 불전이 경영되었다. 대중이 참여하는 의례를 위해 불전은 3×3칸의 크기로 보편화되고, 불단은 장대하게 커졌으며, 후불벽은 더 뒤쪽으로 물러났으며, 천정은 보다 높이를 추구하게 되었다.

불전조영에 유, 불, 선의 습합

게다가 건축조영 책임제에 있어 변화가 일었다. 건축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던 대목제도가 퇴색하고, 부문별 책임제인 편수제도가 경향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분업화와 전문화의 과정이다. 건축역량의 중심에는 승인공장(僧人工匠), 곧 '승장(僧匠)' 이라 불리는 스님들이 있었다. 승장은 당대에 가장 조직적이며 숙련된 역량이었다.

불전장엄은 자연스레 민중적인 취향과 다소 분업화된 전문능력이 결합하여 다양하고도 자유로운 조형미술, 또는 건축장식으로 표현되었다. 몇몇의 장엄은 독립적인 영역을 과시라도 하듯 두드러진 인상으로 표출되었다. 화사하고 유려한 꽃살문의 창호가 조영되었고, 천정 빗반자에 선교적 분위기의 주악비천과 공양비천이 베풀어졌으며, 불단에는 도가적 길상이, 천정에는 삶의 향기와 구체적 생명들이 묘사되어 나타났다. 불전조영에 유,불,선이 통합된 우리나라 특유의 습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공포부재에서 유례없이 다채로운 장엄이 조영되었다. 내출목의 포작은 더없는 현란한 아름다움으로 중중무진의 숲을 이루었다. 전통적 불전조영의 통일성 위에 다양성과 독특한 인상을 자유로이 경영하여 생동감 있는 새로운 전형의 사찰장엄을 일구었던 것이다.

햇살 머금은 기둥…36.5도 체온 느껴져

내소사 대웅보전은 그같은 17세기 불전조영의 흐름을 고스란이 보여준다. 내소사 대웅보전은 인조 11년(1633년) 중건된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정방형 불전이다. 대웅보전의 외부 벽체에는 단청의 빛이 남김없이 육탈하고 본연의 뼈대가 드러나 있다. 건축의 질감은 아무런 들뜸이 없는 중도의 차분함으로 다정하기 그지없다. 어머니 품같이 따스하고 온유하다. 햇살을 머금은 기둥에는 36.5도의 사람 체온이 가이없이 느껴진다. 거드름과 위압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위로 경영한 천의무봉의 건축이 따로 없다.

8짝 창호에 경영한 꽃살문은 자연 그대로다.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자연주의 한국미의 한 전형으로 다가온다. 창호의 꽃은 흔들리거나 지우침이 없는 부동의 꽃이다. 부처는 꽃과 다르지 않다. 진리는 둘이 아니고 두 가지 모양을 갖지 않는다. '법계일상(法界一相)' 이다. 중생과 부처를 잇는 불이(不二)의 꽃이다.

내5출목 포작, 생명에너지 전해

대웅보전 천정은 빗반자와 우물천정이 결합된 양식이다. 내출목은 무려 5출목이다. 17, 18세기에 조영된 불전의 절대다수는 외2내3출목, 또는 외3내4출목이다. 내5출목을 경영한 곳은 대구 동화사 대웅전,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정도로 몇 되지 않는다. 내5출목의 평행층급을 따라 살미의 부재들이 층층이 높아 오르는데, 그 모습이 일렁이는 파도처럼 장관이다. 일렁이는 듯한 운동성이 집합적 위상공간을 이루어 공간에 흐르는 신성의 기운들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부재의 끝을 8개의 붉은 연꽃 봉오리로 마감한 까닭에 불잉걸의 숯불을 보는 듯이 생명의 에너지가 활활 타오는 것만 같다.

서남해안 사찰의 쌍연꽃과 물고기

내5출목 포작 위로는 빗반자를 가설하였다. 외진주 영역에 올린 빗반자에는 칸칸이 연꽃줄기가 서로 꼬인 4쌍의 쌍연꽃을 조영하였다. 연꽃 봉오리는 붉은 빛을 입혔고, 연꽃 줄기는 연한 청색이다. 꼬인 쌍연꽃 문양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서남해안 지방의 독특한 문양이다. 나주 불회사와 해남 대흥사 천불전, 고흥 금탑사 등에서만 나타난다.

특히 이들 불전에 경영된 쌍연꽃 사이에는 물고기와 거북, 게 등이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바, 지역의 해양성과 밀접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바다가 아니라, 신령의 기운이 흐르는 법계다. 그 본질은 걸림이 없는 무애원융의 화현이다. 일체만유는 법신불의 화현이자, 권화(權化)다. 특히 대들보 위 충량의 용이 물고 있는 물고기는 여의보주와 같다. 물과 얼음이 둘이 아닌 이치와 같다. 그 본질은 윤회로부터 자유로운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곧 무상정등각의 성취일 것이다. 고전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민중적 자유로움이 읽혀진다. 장엄의 세계가 보다 다채롭고, 자유로우며, 생동감이 넘치는 낭만주의적, 자연주의적 경향성이 엿보인다. 그를 통해 이 시기 불교가 지향하고 있는 대중성을 간파할 수 있으며, 시대정신의 도도한 흐름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11가지 악기 표현한 희소성

그러한 민중적 구체성과 자유분방함의 의지는 내진주 영역의 천정 중앙칸에도 일정하게 유지되어 표출되고 있다. 천정 중앙칸은 우물천정이다. 중앙의 양 끝 5칸씩, 총 10칸 모두에는 저마다 다른 악기를 그려 넣었다. 한 곳에는 동시에 두 악기를 그려서 총 악기 수는 11가지다. 장구, 북, 해금, 비파, 바라, 태평소, 생황, 피리, 아쟁 등의 악기다. 악기에 입힌 색채는 빨강, 청색, 노랑, 검정, 흰색의 오채색이지만, 고전적 오채의 원색을 피하고, 중간톤을 입혀서 색감이 맑고 다정하다. 악기의 집합에서 삼현육각의 신명적 에너지와 종묘제례악 같은 정악의 장중함이 느껴진다.

악기벽화의 본질은 예경과 찬탄

17, 18세기 불전조영에서 일반적으로 천정의 빗반자엔 주악비천이나 공양비천, 고사인물도 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내소사 대웅보전에서 처럼 다양한 악기만 표현한 경우는 흔하지 않은 사례다.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과 양산 통도사 북극전 등에서 희소하게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 조형미술의 원형질을 찾아 거슬러 오르면 고구려 고분벽화 오회분 4호묘, 5호묘에 이를 것이고, 보다 가까이는 15세기 조선불화 〈관경16관변상도〉에서 조형의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 지온인 소장 조선불화 〈관경16관 변상도〉(1465년)는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에 장엄한 악기의 본질을 조형언어로 직지하고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예경이자, 찬탄의 공양이다.

음악성의 조형은 유교지배체제의 핵심내용, 그러니까 시대정신을 일정하게 반영한다. 그것은 '예악사상(禮樂思想')이다. '예(禮)' 는 신분과 계급처럼 엄격한 사회질서다. 그래서 예는 이것과 저것을 분별한다. 그에 반해 '악(樂)' 은 음악처럼 즐거움으로 조화롭게 통합한다. 악(樂)의 본질은 부드러움과 조화로움이다. 그래서 예악(禮樂)은 조화로운 질서다. 불교장엄에서 음악은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예경이면서, 동시에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일승임을 환희심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중앙에 영산회 팔방연화좌

중앙의 우물천정은 8×6=48칸의 우물칸을 조성했다. 가운데 4×3칸은 팔엽연화좌를 마련해 놓았다. 범종의 조형에서 몸통 사방에 베푼 아홉연화좌를 연상시키며, 동시에 불국사 석가탑 주변에 경영한 팔방금강좌를 연상케 한다. 중앙의 석가탑을 연화좌로 치환하면 그 역시 아홉연화좌다. 그것은 석가모니께서 영산회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백호에서 광명을 놓아서 팔방에 금강연화좌를 만들고는 삼천대천에 상주하시는 부처님의 분신을 앉게 하여 다보여래를 친견할 수 있도록 하신 상서와 연결된다. 천정의 한가운데에 팔엽연화좌를 내어 팔엽에 육자진언을 새겨 넣은 뜻은 바로 그 영산회의 희유한 상서를 조형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범종을 울렸을 때 천지간에 일승원음의 진리법이 가득 차는 것과 같은 이치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말했다.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데 있다." 우리에게도 절집의 천정장엄을 보는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한국불교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인증 과정

스님들을 위한 자비명상!

공개강좌

일 시 : 2014년 9월 1일 14시
장 소 : 동국대 평생교육원 학술관 211호
강의일정 : 매주 월요일 14 ~ 16시. 15주간
지도법사 : 마가스님
전화번호 : 02)2260-3728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승가가 깨어나야
한국불교가 새로워집니다!!!

스님들을 위한 전문상담센터 운영합니다.

전 화 : 02)3666-0260
이 메 일 : gomagga@hanmail.net
홈페이지 : http://jurira.net

자비명상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분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성태'

성태를 길러라 ①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도력을 얻지 못합니다. 어제 얘기했죠. 어젯밤에 얘기한 것. 망심이 없어서 정도(正道)를 써야 된다. 망심이 있어서 정도를 쓰면 그 정도는 사도(邪道)가 돼 버려. 그와 마찬가지로 정정(正定), 바를 정자 정할 정자. 정(定)자를 우리말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자를 가라앉는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앉은 자리다. 정할 정자거든요. 이건 바를 정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정정, 바로 가라앉는 것, 정정을 얻지 못하면은 바로 삿된 마음이 아니고 바른 마음, 아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그러면 차분하게 가라앉을래야 가라앉을 것이 없어요. 그 마음에 번뇌 망상을 일으키지 안 해. 번뇌 망상.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망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정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자로서 바를 정자하고 정할 정자하고 이래 써 놨으니 말이죠 아,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만 내 마음이 어디 머물지 안 해. 밉다 곱다 이런 데 머물지 안 해. 분별을 일으키지 안 해. 번뇌를 일으키지 안 해. 요것이 정정입니다. 이거 우리말로 억지로 새길라 하면은 '바로 가라앉음' 이래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가라앉는다는 말이 또 붙어버리네. 가라앉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가라앉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내가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맞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근사(近似)하지만은 내 마음이 분별을 일으키지 안 해. 가라앉힐래야 가라앉힐 것이 뭐 있어요? 내 마음이 분별을 일으키지 안 해. 분별은 어디서 오느냐. 분별을 일으키면 번뇌가 나와. 가지고 싶다 버리고 싶다 번뇌가 생겨. 그러하니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 고것이 아까 말한 성태, 그 자리 그것이 바를 정자 정할 정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력을 갖다 기르려면 정정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이 턱 가라앉음으로써 그만 삼매정중에 들어서 한 생각을 턱 일으켜. 마음대로 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가 간난이 집에 갔을 때에, 언제라도 부처님은 정정이거든요. 언제라도 정정이라. 그런데 아난 존자가 그 자리에 안 왔다 말이죠. 안 왔으니까 그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지금 어디에 있는고' 하고 한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죠.

정정에서 한 마음을 일으켰어요. 일으켜 놓고 보니 아난 존자가 간난이 집에서 야단을 만났다 말이죠. 이걸 보고 그래서 그 자리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성태를 기른다 하는 것은 정정이 되자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쓴 성태, 거룩한 태. 이것은 정정이 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정이 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눈하고 타협을 하지 안 해. 귀하고 타협을 하지 안 해. 입하고 혓바닥하고 타협을 하지 안 해. 눈으로 보긴 봐. 보지만은 그대로 볼 뿐이여. 귀로 듣긴 들어. 듣지만은 그대로 들을 뿐이여. 거기서 시시비비를 따

> **우리는 숱한 번뇌 망상의**
> **구름을 일으키고 있다.**
> **분별심으로 허공 될 수 없어**
> **'정정', '바른 가라앉음' 은**
> **눈 · 귀 · 혀와 타협 하지 않고**
>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게한다.**

지지 안 해. 아 이건 잘 한다 좋다 나쁘다. 이걸 따지질 안 해. 요것이 바로 성태를 기르는 것이고 거룩한 태를 기르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이름으로 말하자면 정정, 바른 가라앉음,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님도 요 문제에 있어서, 너희가 한 식경이라도, 밥 한술 뜨는 사이라도 이렇게 정정이 돼. 성태가 돼. 이러하면은 그 허공중에 칠보탑을 쌓는 그 공보다는 훨씬 많느니라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본래 소식은, 본래의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정정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성태거든요. 우리 중생들은 뭣이냐 할 테면 말이죠 부처님이나 똑같은 그것이지만은, 우리는 숱한 번뇌 망상의 구름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아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래해야 되겠다 저래해야 되겠다.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래해야 된다는 불견을 일으켜. 저래해야 된다는 법견을 일으켜. 이래놓으니 허공은 하나 같은 허공인데 그만 거기에 시커먼 구름이 꽉 끼어서 허공이 안 돼. 이와 마찬가집니다.

그러하니 본래 여러분들은 정정자립니다. 바로 거룩한 태의 자리라. 본래로부터. 원래 해말쑥한 그 자리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해말쑥한 그 자리기 때문에 이 자체성이 없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뭘 보기도 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뭘 듣기도 하고 혓바닥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하니 눈 자체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 거울의 역할밖에 안 하거든. 귀 자체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 마이크 역할밖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이크 자체는 모릅니다. 뭘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혓바닥, 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라. 혓바닥 이거 자체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도리를 알아. 이런 도리를 알아버리면은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한 여김 일으켜서 먹구름을 일으키듯이 이렇게 해서 그만 하늘을 덮는 거나 한가지구나. 이렇게 턱 알아버리면은 먹구름이 그만 없어져 버립니다. 어느 사이에 없어졌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런 번뇌 망상들 이거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 내가 '번뇌 망상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번뇌 망상을 없애겠다는 요 마음 요것도 번뇌라요. 그러니까 번뇌 하나를 더 짊어지는 거나 한가지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어가는데 망상이 오거든 망상 그대로 받아 버려요. 응 니 왔드나 이 정도로 해서 관심을 더 가지지 말아요. 내가 번뇌가 일어나. 아 니가 번뇌가 왔드나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니는 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차차차차 번뇌 망상의 당처가 빈 줄도 알 뿐 아니라, 그대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내의 성품자리가 환하게 드러납니다. 요것이 정정입니다. 그러하니 정정이 돼야 도력이 인자 발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도력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도의 힘, 도력(道力)인데. 그런데 이거는 제이의 소식입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극락세계에 들어 복된 생활을…

11. 보위사승부모급

수호품(守護品)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망면 되게 나니 남이니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어 내가 해야만 된다고 여기거나, 둘째는 안으로 자기 마음에는 번뇌를 꽉 채웠고 밖으로는 모든 악취(惡聚)를 만날 경우, 이런 때는 내가, 내 아성(我性), 나라 하는 이것이 매우 증대(增大)해 있는 것이다.

셋째는 안팎이 이미 달라져 있는 때, 좋은 생각도 멸해지는 경우다. 그러면서 좋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남 잘하는 것을 보고 좋게 여져기기 않을 뿐더러 부러워하는 맘도 없이, 그런 것 대수롭지 않다고 보는 그런 때다.

넷째는 삼업(三業)을 방자하게 한다. 입도 험하게 놀리고 몸도 함부로 허둥 대둥 행동하고 뜻도 방자하게 자져 어떤 악이든지 닥치는대로 다 하는 때. 다섯째 비록 크지 않은 작은 일이지만 마음을 잔뜩 나쁘게 먹었을 때. 여섯째 나쁜 생각이 가득하여 성숙해서 간단없이 계속하는 때. 일곱째 허물을 덮고 변호와 자기 합리화를 일삼을 때. 일상생활에서도 이리 저리 눈가림해 나가는 그런 일이 많다. 여덟째 아주 독살스럽게 무엇에든지 용감히 덤벼드는 행동, 악을 의식치도 않고 겁 없이 척척해 나가는 때. 모진 짓을 하는 때. 아홉째 부끄러움 없이 철면피로 구는 때. 범상한 사람이나 거룩한 이나 존경할 줄 모르고 손아프게 생각지 않는 때. 열째 인과율을 거부해 버리는 때.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그럭저럭 지나가 버리면 된다고 하는 때.

위의 잘못된 생각을 돌려 바로잡아 나가는데 또 열 가지의 좋은 일이 있다.

첫째는 밝게 인과를 보고 믿는다. 둘째, 언제나 참회하고 자신을 이겨 나간다. 셋째, 악도(惡道) 나쁜 길을 무척 겁낸다. 넷째, 자기 잘못을 숨기려 말고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고백하고 결말을 짓는다. 다섯째, 항상 이어 나가는 즉 상담하는 생각을 끊어 버린다. 여섯째, 보리심(菩提心)을 어디까지나 깨쳐 나간다. 우리가 부처를 믿어 나가고, 아뜰해야 되고, 우리가 잘 알고 남을 알게 하고, 그러므로 행동하고 정진해야 된다. 일곱째, 모든 공적을 닦고, 그릇된 일. 과실을 보상한다. 여덟째, 정법(正法)을 수호한다. 우리는 진리와 대의(大義)를 지키고 복원해 나간다.

아홉째, 시방에 부처님을 생각한다. 열째 스스로의 죄성(罪性)을 항상 비워 나가기를 힘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심 참회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얘기한 경전 가운데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일까? 조석으로 권청(勸請)하고 예불(禮佛)하는 일은 사참(事懺)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이나 무량수경(無量壽經)에 의지할 참회다. 정토문(淨土門)을 설명한 경전에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관무량수경 다음은 소아미타경(小阿彌陀經), 무령수경이다. 이를 대아미타경(大阿彌陀經)이라고도 한다.

> **지금에야 착한 일을 닦아**
> **안락인(安樂因)을 마련하리니**
> **죽음에 닿아 엎드렸을 때**
> **낱낱 인연이 눈에 보인다면**
> **아미타불 얼굴 우러르고 싶다.**
> **부처님 본원으로 큰 생명 굽이치니**
> **아미타불이시여!**
> **눈물 흘리고 당신 앞으로**
> **걸어나갑니다.**

'지심 참회 – 반성문'

부처님 앞에 엎드려 소제할 것

바라옵건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에야 착한 일을 닦아 우리 모두 함께 마음 돌려 안락인(安樂因)을 마련하리니 바로옵건데 모두 다 목숨이 끊어져 엎드렸을 때, 낱낱 인연이 눈에 보인다면, 아미타불의 얼굴을 우러르고 싶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세존(世尊)이시어, 신비로운 빛을 손에 들고 우리한테 던져주시니, 부처님 본원으로 크낙한 생명 굽이치는 여기 다시 태어나 목숨을 돌이켜 공손히 쳐다봅니다. 아미타불이시여,

눈물 흘리고, 마음을 떨쳐 먹고 당신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자타가 모두 함께 안태한 극락세계로 찾아들어 복된 생활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무량수경에는 참회에 관한 대목이 많이 있다. 특히 원효대사의 무량수경종요(無量壽經宗要) 가운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가 많다.

12. 보경회향문(普敬廻向文)

言普皆廻向者. 從初禮拜. 乃至隨順. 所有功德. 皆悉廻向盡法界. 虛空界. 一切衆生. 常得安樂. 如是行願. 虛空界盡. 衆生界盡. 衆生煩惱盡. 我此行願. 無有窮盡. 念念相續. 無有間斷. 身語意業. 無有疲厭

이 보경회향문의 자수(字數)는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은 복잡하다.

첫째에는 수순(隨順)하고 취입(趣入)한다. 즉 모든 곳에 들어간다는 뜻이 있다.

둘째는 원령중생상득안락(願令衆生常得安樂)이다.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을 얻도록 해주어야 겠다. 이러한 우리의 신(信)과 행(行)의 발원이 있다.

셋째, 염염상속(念念相續)이다. 굳은 신앙으로써 우리가 실천하는 이것이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싫증이 나는 일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해 나간다. 기쁜 마음은 감사와 보은을 바탕으로 하여 우러나온다.

우리가 발심으로 중생의 고를 대신하여 지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고찰해 보면 대략 일곱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희비의락(喜悲意樂)이다.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 마음이 퍽이나 쾌락한 지경을 말함이다.

둘째는 수제고행(修諸苦行)이다. 모든 고행을 닦는 것.

셋째는 유혹윤생(留惑潤生). 잘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따위의 유혹에 빠져 고를 받고 허덕인다. 이런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설법을 해야 되고,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발을 떼어야 된다, 그런 데에 빠져 있으면 악을 짓는 것이므로, 유혹의 원인을 없애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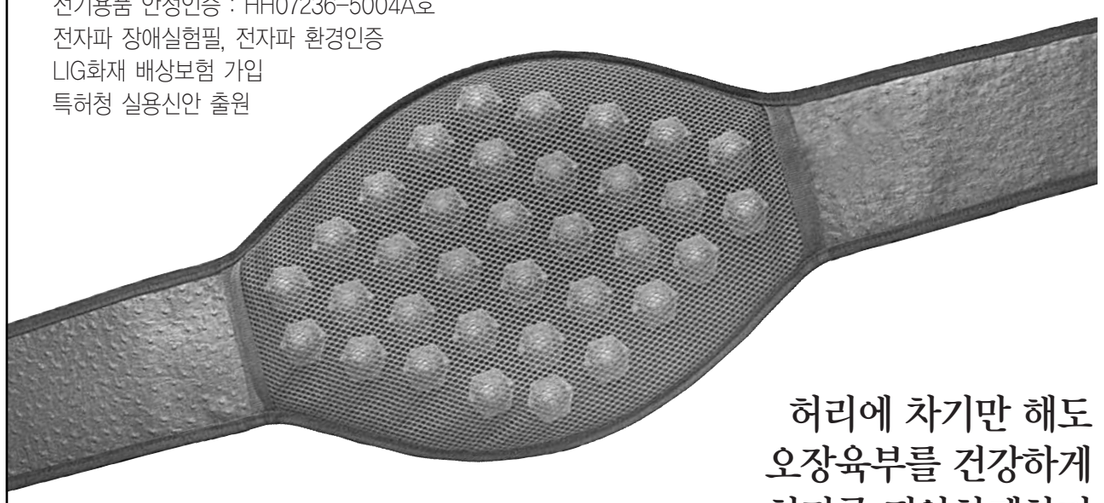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나는 '작은 사람' … 지구촌 곳곳 누비며

김재령 국제구호활동가



김재령씨는 … 1971년 강원도 태백 철암에서 출생했고 영남대 국문과에서 공부했다. 운동권 학생이던 그는 1996년~1998년 굶주리는 북한동포 생명 살리기 운동을 했으며 1999년 정토회에 입재했다. 2000년~2003년 정토회 산하 (사)좋은벗들에서 통일 교육 및 북한동포 돕기를 했다. 2003년 JTS에서 아프가니스탄 구호 활동을 거쳐 2003년~ 2012년 (사) JTS에서 인도 구호 및 마을개발 활동을 했다. 이는 국내 국제구호활동가 중 최장기 해외체류 기록이다. 귀국후 2년 동안 SNS에 올린 글들을 모아서 엮은 〈나는 작은 사람〉을 최근 출간했으며, 국제구호 활동을 위한 모임을 준비중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강원도에서 대구로 전학 온 가난하고 키 작은 소년은 덩치 큰 아이들한테 맞고 돈도 빼앗기면서 세상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덩치 큰 애가 세상을 주도할까. 왜 잘 생긴 애들은 인기가 많은데 뚱뚱하고 못생긴 애들은 관심을 못 받고 외로울까. 잘생기든 못생기든, 크든 작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은 없을까. 소년은 부처님도 그랬듯이 불공평한 세상의 모순을 타파하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운동권에서 활동했고 대학을 중퇴하고는 좋은벗들서 북한동포돕기 활동을 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되면서 국제구호활동가가 되었다. 10년 넘게 해외에서 국제구호활동가로 살아온 아눕브라더 김재령 씨는 자신이 오랜 시간 해외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작은 사람' 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의 별칭이기도 한 아눕은 '새로움' 이라는 인도어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겼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인도의 불가촉천민, 캄보디아의 소수 부족 등 그는 '작은 사람' 들이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다.

북한동포 돕기에서 국제구호까지

국제구호활동가 김재령 씨(44)가 최근 책 〈나는 작은 사람〉(마호)을 펴냈다. 최장기 해외 체류 국제구호 활동 기록을 가진 그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SNS에 올린 587일간의 글을 책으로 묶었다. 농부시인이 되고 싶었던 그는 왜 제 3세계 국가에서 10년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됐을까?

"대학시절 운동권 학생이었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던 21세기진보학생연합에서 북한동포 돕기를 했어요. 중소도시를 돌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모금한 돈을 국제구호단체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이 정토회 JTS였어요. 당시 법륜 스님 강의도 들었는데 스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냐? 사람들(북한 동포)이 다 죽고 난 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냐' 고 하시면서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학비를 쓸만큼의 용기가 있는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밥 한 끼만큼 절실한 것은 없다' 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김 씨는 당시 공납금을 반납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를 내지는 못했다. 그리고 대학을 그만두고 서서히 북한동포 돕기에 대한 생각은 잊혀져갔다. 당시 생명사상에 심취한 그는 농부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북한강 유역 유기농 농업 단지를 찾아가 배추를 키웠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그는 스스로에 대해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 배추 값 100원~200원에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자신의 중생심을 보았던 것이다. 생명사상을 중요시 여겨 농사를 짓겠다던 그가 농사의 본질보다는 외부조건에 휘둘리니 스스로도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때 우연찮게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좋은벗들 관계자가 출연해 북한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를 했어요. 한동안 북한동포에 대한 생각은 잊었는데 그때까지 여전히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해서 1999년 찾아간 곳이 정토회에요. 저와 동료들 계획은 연변에 가서 농사 지어 북한으로 식량을 보내는 것이었는데 그게 여러 사정상 여의치 않았어요. 저는 정토회 좋은벗들 간사를 하면서 통일교육 등으로 4년을 보냈죠. 그러니 남한에서 북한돕기를 한 셈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로

정토회 상근 자원활동가로 서초동 정토법당 생활을 시작한 그의 삶에도 서서히 변화가 왔다. 절에서 기도하고 자원봉사하고 불법을 배우니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불교도 인간의 행복을 궁극적 목표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막연히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생구제의 원력을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만나면서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이 해야할 일에 대해 좀더 명확한 관점이 섰다. 그러던 어느날 그에게 새 임무가 주어진다.

북한동포돕기로 시작해
아프간 인도 캄보디아 등
10여년 동안 국제구호 활동
학교짓기 등 건축불사에 참여
마을 주민들과 소통 통해 진행

15년간 매일 아침 기도 수행
세상 바라보는 시각 달라져
SNS에 올린 587일 활동 기록
〈나는 작은 사람〉 책으로 묶어

2003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에 학교를 지어줄 자원활동가로 파견을 가게된 것이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운전, 영어, 건축경험. 하지만 저에게는 어떤 것도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JTS 측에서 저에게 실무자로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아마도 북한동포를 돕겠다고 한 원력을 높이 사신 거 같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프가니스탄 일도 잘해낼 수 있을거라 믿어주신 거 같아요.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되면서 국제구호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아프가니스탄은 참혹했다. 탱크가 뒤집어져 있었고 곳곳이 지뢰밭이었으며 집들은 무너져 있었고 집집마다 가족을 잃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고아들이 넘쳐났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6.25전쟁 이후 우리의 모습이 이럴 것 같았어요. 특히 난민촌 아이들이 천막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손목이나 발목이 잘리고 제대로 먹지도 배우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일었어요. 전쟁은 어른들이 했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런 고통을 받는지 정말 슬프고 분통이 터졌어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그는 아이들과 함께 공놀이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공놀이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했어요. 아이들이 웃으니 저도 너무 행복했죠. 당시 탈레반들은 외국인들의 지원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탈레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이들과 노는 것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총에 맞아 죽어도 탈레반을 원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1년 정도의 구호활동을 마치고 그는 2004년 인도JTS로 파견을 나가게 된다. 불가촉천민 지역 둥게스와리 곳곳에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였다. "아프가니스탄은 여러 사정상 JTS의 학교 공사는 중단되어 다른 NGO가 학교 건설을 하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학교 건축을 시작한 것은 인도에서죠. 건축 분야에 전혀 생소했던 저였지만 현장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JTS는 학교 건물을 세울 때 단순히 건물을 지어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함께 학교를 짓고 그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 주민들이 학교와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자는 의도다.

"처음 마을 주민들을 대했을 때는 어딘지 모르게 무기력해 보였어요. 불가촉천민이라는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적 한계에서 오는 공허함이 느껴졌지요. 돈도 없고 교육도 못 받고 신분도 낮고 능력이나 기술이 없으니 술로 하루를 때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어요."

한국의 청소년들이 너무 꽉 짜여진 일상과 과도한 목표의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인도 불가촉천민 지역 아이들은 무기력한 것이 문제였다. 규제없이 욕망대로 사는 삶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어떤 목표도 없는 삶이 인간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그는 보았던 것이다.

"저희가 매년 15~16세 된 아이들을 고용해서 건축기술을 가르쳐주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일을 하면 기술자가 되어 직업도 갖고 가정도 꾸리게 되죠. 삶의 목표가 생기면 아이들 눈빛도 살아나고 활력도 넘치고 또 희망을 꿈꾸는 표정이 돼요."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동안 그도 성장해 나갔다. 건축적 지식이 전혀 없었던 그 또한 책과 현장 경험을 통해 건축을 배웠고 이제는 설계도만 있으면 학교 한 채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생겼다.

회향, 공장 노동자 그리고 작가로

10여년 동안 JTS에서 일한 그는 어느날 회향을 결심한다. 사실 10년 넘게 일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한곳에서 일하다 보니 소위 '장판 때(?)' 가 묻기 시작했다고 그는 표현한다.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바닥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JTS 실무자는 무보시로 봉사하며 살기 때문에 돈은 없지만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이 모두 보장 되죠. 또 업무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냥 성실히 일만 하면 돼요. 또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니 큰 자부심도 있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저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로 당신의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암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

학교 짓기 12년 '구슬땀'



김재령 씨(사진 가운데)는 제3세계 국가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학교를 지으며 10여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왔다. 사진은 캄보디아 소수부족 아이들과 학교 공사의 첫삽을 뜨는 장면.



2003년 아프가니스탄 긴급 구호 당시 겨울옷과 담요를 지원하는 김재령씨.



2010년 인도불가촉 천민지역 우물공사를 마치고 주민들과 함께 환호하고있다.

한테 좋은 일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음적으로는 스스로 우쭐해지고 일에 있어서는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되었죠."

김 씨는 꼬박 13년 청춘의 시간을 쏟아 부은 정토회를 나오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막상 다른 일을 하려니 마흔살이 넘어 갈 수 있는 곳은 공장뿐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NGO쪽 일보다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며 찾아간 곳이 부모님이 계시는 대구 인근 공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주물공장의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일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자 일감이 없다며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관리자가 저는 성실히 일잘하니 계속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다른 누군가는 해고를 당해야 한다는 뜻인데 나 살겠다고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물공장을 그만두었어요. 이후 섬유공장을 다녔는데 그곳은 고급 옷감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화학약품을 사용했어요. 환경오염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 무렵 JTS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캄보디아에서 학교를 짓고 있는데 현장의 어려움이 많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다. 그는 주저 없이 공장을 그만두고 다시 국제구호활동가로 나섰다. 캄보디아 현장에 가니 실무자와 주민들과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학교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마을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공사를 재기했죠. 1년 남짓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3개의 학교를 완성한 뒤 이후 2개를 더 짓고 왔죠. 공사가 끝난 뒤 마을 잔치를 하며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너무 뿌듯했죠." 일이 마무리 되자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공장을 가는 대신 국제구호활동가의 경험을 살린 일들을 찾아나섰다. 학교와 NGO 단체 등의 강의는 물론 인도에서 돌아온 이후 SNS에 실린 글을 엮은 〈나는 작은 사람〉을 8월 출간했다.

"출판사 사장님께서 제 글을 보시고 출판을 한번해보자고 하셨어요. 세월호로 인해 지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 말하셨죠. 이런 이유로 제 글이 이번에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지만 인세가 생긴다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무엇을 할까만 고민하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않아 걱정이라는 그는 앞으로도 낮은 곳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 탈핵도보순례, 세월호참사 집회 등 사회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활동하는 그이기에 앞으로 3세계 노동자, 이주민, 소외계층, 여성노동자 등 사회의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제 3세계 노동자들이 한 달을 꼬박 일해도 100달러 받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쓰는 값싼 제품들이 제 3세계 노동자들의 노동력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미안할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저는 그들을 돕는다는 생각보다는 세상에 진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을 이 사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해 꿈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임을 만들 생각입니다."

건축 노동을 하는 인도 불가촉천민 지역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일이 의사나 교사만큼 중요한 일이다. 당신들이 이 일을 안 하면 어찌 그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냐"며 늘 자부심을 심어주었다는 김재령 씨. 세상 모든 존재는 존귀하며 모두의 삶은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인도 불가촉천민들의 삶도 이주노동자의 삶도 소외계층의 삶도 모두가 존귀하다. '작은 사람' 김재령 씨는 그들의 존귀한 삶을 그 자체로 밝혀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간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어려운 이웃 위한 마라톤 수행

부처님은 달리라고 설법하신 적이 없다. 하지만 극한의 고통을 반복하며 달리기를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한 수행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라톤이 어디 쉬운 운동인가. 새벽 2시, 굽이굽이 이어진 깊은 산골을 달리다 보면 간혹 전봇대가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발을 헛디뎌 아슬아슬할 때가 있다. 졸음이 밀려들면서 환각상태가 찾아오고 앞이 보이지 않아 어지럼증도 도진다. 발은 물집이 잡혀 엉망이다.

한 발 디디기도 어려운 몸을 끌고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버티는 순간이다. 졸음이 몰려들면 허벅지를 꼬집고 뺨을 때리기도 하면서 달린다.

정말 이렇게까지 달려야 하나 싶어 눈물이 솟구칠 때가 있다.

맨살을 드러내는 일을 금기시하는 보수적인 불교계에서는 마라톤복을 입고 뛰는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저런 소문을 들으셨는지 하루는 내게 법명을 내려주신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팬티만 입고 뛰더라. 앞으론 그러지 마라"

걱정의 말씀이셨다. 그러나 아무리 승려라 해도 승복을 입고 장거리 마라톤을 할 수는 없었다.

여러 어려움에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 먼저 승복 입고 깊은 산중에 있어야 할 스님이 속세로 나와 달리기를 하니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다.

사찰을 지을 때도, 여러 사람의 손길과 정성이 모일 때 더 좋은 의미를 갖는다. 한 사람이 10억원을 내서 짓는 절보다 열 사람이 1억원씩 내서 짓는 것이 낫고, 그보다는 1000명이 100만원씩 내서 짓는 것이 낫다. 더 나아가 1만명이 적은 돈을 모아 사찰을 짓는다면 더 무량한 공덕이 쌓이는 것이다. 좋은 마음들이 모여 좋은 열매를 맺자는 의미가 컸다.

나는 사람들이 '스님이 왜 달릴까' 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다. 그렇게 모아진 사람들의 관심을 국내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본에서는 황거(皇居)공원에서 출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인 미야기현 이시노마끼시까지 왕복 1000㎞를 완주했다. 2013년 한독수교 130주년, 파독광부 50주년을 맞아 독일의 옛 수도 본에서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까지 700㎞를 달렸다.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달리기를 멈추자는 의견도 있었고 차를 타고 이동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나는 달려야만 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녹록치 않은 삶, 소외받는 이들을 생각하며 달리는 것이 답이었다. 그 거리를 완주하자면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몸은 힘들어도 역시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 · 박구원

현재 베트남에서 '해우소 108개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베트남에서 마라톤을 할 때는,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베트남 국기를 들고 달린다.

그 때 현지인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다. 자신들도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했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다. 그 중 어떤 이들은 현지에서 마라톤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한국에서 보다 먼 타국에서 더 큰 관심에 다시 힘이 나곤 한다.

베트남에는 베트남전 상처뿐 아니라 라이따이한과 결혼이주여성 문제로 현지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나의 마라톤을 통해 조금이나마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관계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종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원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스님과 감독, 앙코르 문명 모태 지킨다

캄보디아 앙코르 문명의 모태로 알려진 아렝(Areng) 계곡을 보존하기 위해 미국 감독과 캄보디아 스님들이 만났다.

〈뉴욕타임즈〉지는 "아렝 계곡을 보존하려는 캄보디아 불교계의 젊은 스님들과 그들의 노력을 영상으로 엮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캄보디아계 미국인 켈야니 만(Kalyanee Mam) 감독이 수몰 위기에 처한 아렝 계곡의 안타까운 소식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스님과 감독의 노력으로 세계는 이제 찬란한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품은 카르다움 산맥의 아렝 계곡이 수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아렝 계곡의 수몰 위기는 캄보디아 정부가 아렝 계곡 일대에서 17개의 수력 발전 댐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아렝 계곡 일대에 댐이 건설되면 약 26,000에이커가 수몰될 것"이라고 운은 땐 총치엠(Chong chieam) 스님은 "댐 건설로, 이곳에서 터를 닦고 있던 1,500여 명의 주민들은 이주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뭇 생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 스님들이 프놈펜에서 이곳 아렝 계곡까지 150마일 이상을 도보로 걸어온 것은 이 위기를 피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찬란한 불교 유산이 태동했던 곳, 수많은 희귀종이 살아가는 곳에 수몰 위기가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캄보디아계 미국인으로서 할 일이 없을까 고민했다"고 말한 켈야니 만 감독은 "캄보디아 불교계의 젊은 스님들이 이곳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담으면 되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불교계 젊은 스님들의 신심과 캄보디아계 미국인 켈야니 만 감독의 예심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

아렝 계곡을 찾아나선 스님들의 150마일 여정을 담은 켈야니 만 감독의 다큐멘터리 "A River Changes Course"는 지난해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즉, 스님과 감독의 만남이 캄보디아 아렝 계곡에 대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단초가 된 셈이다.

"돈과 명예가 전부가 아닌 '진정한 행복'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한 〈뉴욕타임즈〉지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내 수요를 만족시킬 에너지를 바라며 17 댐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켈야니 만 감독의 다큐멘터리는 댐 건설이 캄보디아 정부에게 경제적 이득을 약속할 수 있겠지만, 그와 함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당한 비용 역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카르다움 산맥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야생 지역"이라는 데 주목한 〈뉴욕타임즈〉지는 "태초의 신비로움과 그대로의 거친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는 현존하는 포유류 중 가장 신비한 동물 쿠프레, 보넷 긴팔 원숭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 희귀 동물의 마지막 안식처"라며 "이들과 함께 무려 31종의 개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댐의 위험을 경고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총치엠(Chong chieam) 스님 등이 아렝계곡 보존을 위해 150마일 도보순례를 하고 있다.


아렝 계곡의 전경,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계곡과 호수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캄보디아 아렝 계곡, 댐 건설로 수몰 위기

스님들 도보 순례…켈야니만 감독 다큐멘터리 제작

美 대학 캠퍼스에 불교사원 들어선다

부탄불교계, UTFP에 전통사원 실물 모형 건축해

실제 규모와 기능 재현 … 2008년 스미스소니언 민속축제 때 세워

미국의 한 대학 캠퍼스에 사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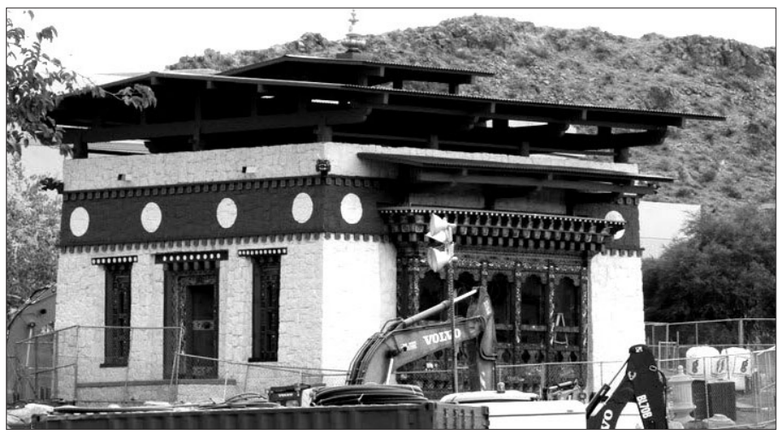
인터넷 저널 〈Borderzine〉는 18일 "텍사스 엘파소 대학 UTFP(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캠퍼스에 부탄불교 전통사원이 세워지고 있다."며 "구미 대륙을 통틀어 대학 내 첫 불교사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UTFP 캠퍼스에 세워지고 있는 부탄불교 전통사원은 지난 2008년 스미스소니언(Smithsonian) 박물관 주최 민속축제 현장에서 선보인 실물 크기의 사원 모형으로, 올해 초 부탄불교계의 '사원 모형 건축물 기증 의사'를 UTFP 측이 수락해, 옮겨질 수 있었다.

"비록 민속축제에 전시된 '사원 모형 건축물'이지만, 실제 법회를 봉행해도 될 만큼 사원의 실제 규모와 기능 등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설명한 로쌍 쌈텐(Losang Samten) 스님은 "UTFP 재학생들이 새로운 종교문화를 접하는 데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로쌍 쌈텐 스님은 사원 모형 건축물을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UTFP 캠퍼스로 옮기는 일을 총괄하고 있다.

"대학 당국이나 재학생 모두 '의미 있는 건축물'이라는 데 동의해, 부탄불교 전통사원의 모형 건축물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한 헨렌 입(Helen Yip、종교학) 박사는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은 UTEP는 '물질보다는 정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록 모형 건축물이지만, '새로운 정신세계를 엿보자'는 대학 당국과 학생의 뜻이 있어 부탄불교 전통사찰을 캠퍼스에 세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UTFP 캠퍼스에 세워지고 있는 부탄불교 전통사찰 모형 건축물. 2008년 스미스소니언 박물곤의 '민속 축제' 현장에서 설치된 것으로, 부탄불교계가 UTFP 측에 기증했다.

"부탄불교 전통사찰 모형 건축물은 오는 9월 말 내부 장엄을 마치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힌 〈Borderzine〉는 로쌍 쌈텐(Losang Samten) 스님의 말을 인용, "만다라 시연 등 부탄불교 관련 문화、예술 공연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며 "대학 당국이 일련의 공연을 진행하며 개교 100주년의 의미도 더하는 한편, 9월중 개원될 '부탄불교 전통사찰 모형 건축물'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中 판롱사, 관광객 산문 출입 금지

위안성 지방정부의 '사찰 공공 서비스 강화'에 반발


위난(Yunnan)성 판롱(Panlong)사 일주문과 '관광객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판롱사는 지난 8월 15일 위난성 지방 정부의 '사찰 공공 서비스 강화'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관광객의 산문 출입을 막아섰다.

중국 위난성 3대 사찰 중의 한 곳인 판롱(Panlong)사가 지난 8월 15일부터 관광객의 산문 출입을 금지하고 나섰다.

〈EPOCH TIMES〉에 따르면, 위난성 지방 정부가 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찰의 공공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행정 지침을 내놓자, 그에 대한 반발로 판롱사가 '산문 출입'이라는 강경책으로 맞선 것이다.

위난성 지방정부가 판롱사 등에 제안한 '공공 서비스'란 위난성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사찰 소유의 차량이나 숙소 등을 무료 제공하자는 것으로, 위난성 일대의 '유명 사찰 관광 벨트'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 정부 관광청에서 주도하고 있다. "위난성의 고찰 대부분 차마고도 인근의 수려한 경관의 입지에 있어, 매년 막대한 관광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전제한 위난성 관광청은 "이번 '사찰 상용화'는 '관광 수익에 대한 사회적 분배'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판롱사 등 위난성의 사찰 대부분 "수행 환경을 간과한 채 관광 수입에만 매달린 우둔한 정책"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세속을 등진 스님들이 어떻게 '상용화'라는 굴레에 다시 들어가야 하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판롱사가 지난 15일 산문에 '수행 환경을 지키기 위해 관광객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관광객 추입을 통제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이에 대해 〈EPOCH TIMES〉는 "위난성 주요 사찰이 지방 정부의 정책을 끝까지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단했다. 1347년 개원한 판롱사 경우, 빼어난 입지 조건에 힘입어 위난성 방문 관광객의 40%가 매년 사찰을 방문하고 있어, 지방 정부는 물론 지역 주민조차 '관광 수익의 사회적 분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POCH TIMES〉는 "중국에서 종교는 결코 정부 위에 설 수 없다"는 시아 시아오치앙(Xia Xiaoqiang) 위난성 공산당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고, "문화 혁명 당시 '사찰 파괴'에 앞장선 정부가 이제는 '사찰 경제권'을 거머쥐려 하고 있다."며 "판롱사의 반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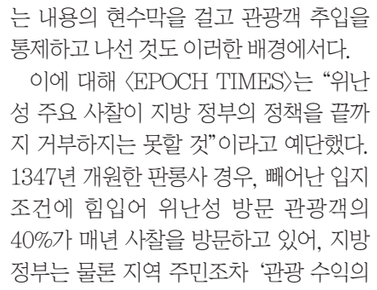
버마, 캐나다 관광객 추방

다리의 '석가모니 문신' 문제 삼아

한 캐나다 관광객이 버마에서 강제 추방됐다. 다리에 새긴 '석가모니 문신'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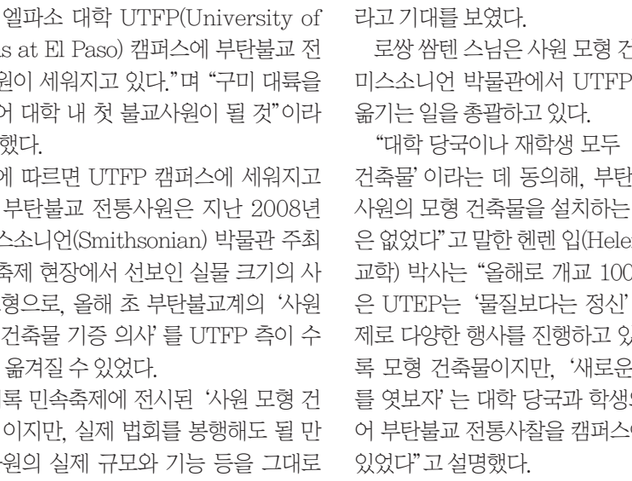
〈World〉지는 "버마 관광길에 나섰던 제이슨 폴리(Jason Polley、Hong Kong Baptist University) 교수가 강제 추방됐다"며 "그의 다리의 석가모니 문신이 SNS에 노출되면서, 버마 당국이 출국 조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버마 당국은 "전체 인구의 90%가 불교도인 버마에서 하체 부분은 '부정한 신체 부위'라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자신의 다리에 석가모니 문신을 한 것은 자칫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강제 추방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제이슨 폴리 교수가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 새긴 '석가모니 문신'. 그는 최근 이 문신으로 버마에서 강제 추방됐다.

폴리 교수는 〈World〉 지와 인터뷰에서 "불교가 버마 사회의 '기둥'이라는 뜻에서 다리에 문신을 하였다"며 "외국인의 정서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점이 못내 아쉽다"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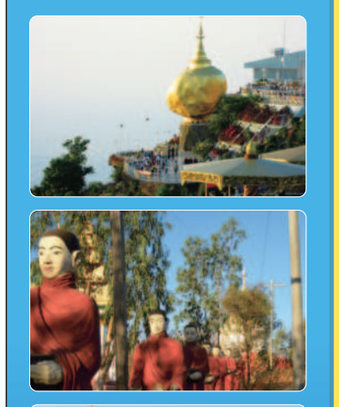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마하연 투 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9월27일. 10월25일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 5일 — 9월 20일, 10월 15일
양곤/바간/헤호 5일 — 9월 13일, 10월 8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9월 20일, 9월 27일, 10월 4일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비엔티엔 / 방비엥 / 루앙프라방 5일 — 10월 15일, 10월 27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 인도

인도&네팔 8대 성지

– 중국 4대불산

지장 + 관음도량 6일 — 11월 25일
보현도량 (아미산) 5일 — 9월 16일, 9월 25일
문수도량 6일
구채구 황룡 6일

– 대만 정통순례 5일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쿼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상형문자로 재해석한 '일체유심조'

동방대학원대학교 이영철 교수 서예전



이영철 교수는 현대적 언어로 서예 작품을 재해석했다. 대표작인 '일체유심조'.

동방대학원대학교 이영철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가 8월 28~9월 3일 백악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오랜 시간 서예작가로 활동해온 이 교수는 환갑을 맞아 불교와 유교 사상이 담긴 서예작품 76점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어린 시절 서당 훈장인 조부로부터 한학을 배우며 서예를 배웠다는 그는 그동안 중국전시와 국내 단체전 등에 출품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이번 전시를 열게 되었다.

"서예란 예술로 이해하기 이전에 철학과 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작품은 자연과의 조화와 마음자리를 표현하고픈 '유심조(唯心造)' 를 시작으로, 지난날의 자취를 쫓아 오늘을 열겠다는 '복고개금(復古開今)' 에 뜻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옛글자들을 현대 미학으로 조명해 재해석해보고자 했죠.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회화와 문자는 하나에서 출발했죠. 이런 의미를 작품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유심조(唯心造)' 는 이 교수가 대표작으로 뽑는 작품이다. 상형문자를 그만의 시각으로 해석해 새의 모양 등으로 글자를 표현하고 일체유심조의 의미를 담아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슬픈 마음, 웃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 행복한 마음과 불행한 마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등 셀 수 없는 수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마음이라는 한 곳의 결과물이죠. 이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입니다. 서예 역시 유심조(唯心造)입니다. 서(書)가 현상이라면 예(藝)는 마음이니 이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기원전 1600년 경 사용되었다는 갑골문자도 그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신심명' 으로 탄생했다. 신심명은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도는) 화통해져 명백히 드러난다' 는 의미를 담아 작품으로 완성했다.

이밖에도 태고국사 시, 예장종경선사의 선시, 진각국사의 시 등을 그만의 필체에 담아냈다. 절수행과 해인사 백련암 아비라 기도를 하며 작품을 완성했다는 그는 불교의 정신을 듬뿍 담은 다양한 작품들을 대중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절수행으로 마음 닦아
'신신명' 등 불교 정신 담은
고문의 현대화 시도 '눈길'

한편, 이영철 교수는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북경대학교에서 고문자학 전공 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중국서안교통대학 초대전(2014년)을 연 바 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이사, 한국전각협회 이사, 한국서예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와 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02)734-4205

정혜숙 기자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4인 4색 법문

법현·월도·남전·선업 스님이 펼치는 '생방송 BTN 즉문즉설'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라니 기도 관음기도 다양한 기도를 해봤는데 무엇이 저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할까요?"

"불자로서 복덕과 공덕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법화경 사경을 16번 정도 했는데 그냥 집에 두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회향해야 할까요?"

불자들의 고민을 4인 4색의 스님들이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어 화제다. '생방송 BTN 즉문즉설' (담당 허찬 PD)은 지난 5월 19일 개편 이후 △부부가족 치료 전문가 선업 스님(팜센터 원장) △쉽고 재미있는 생활법문을 이끌어주는 월도 스님(분당 대광사 주지) △저잣거리 포교의 선봉장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초보 불자들의 길라잡이,남전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등 네 명의 스님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한 명씩 출연자로 나서 생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화와 문자, 현장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불자들이 안방에서 편안하게 고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시청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다.

BTN은 "궁금하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신행상담, 꽉 막혀 답답했던 삶의 고민, 속으로만 삭혀온 가족과 다양한 관계 속 갈등 등의 고민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답답한 우리 삶에 대한 물음표를 깨달음의 느낌표로 바꿔 주는 네 분 스님들의 답변을 통해 각자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취지를 전한다.

가족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선업 스님은 가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주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선업 스님은 "생방송으로 불자들의 사연을 직접 듣고 답하다보니 대중들과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다. 그동안 가족 문제를 전문으로 다양한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방송 역시 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각자의 스트레스가 트라우마가 되고 이것이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담을 통해 스스로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다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월도 스님(분당 대광사 주지)은 불자들이 불교의 그릇된 인식을 타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교리 내지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신행 교리 가족문제 등 다양한 고민
현장에서 전화와 문자로 상담하며
스스로 해답 얻는 지혜의 길 안내

부분들을 많이 질문해주신다. 특히 방송을 하면서 다양한 수행 방법을 놓고 고민하는 불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지도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자신의 방법이 최고라고 하다 보니 생긴 문제인거 같다. 불교는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은 폭넓은 시각의 답변을 통해 질문자 스스로 해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스님은 "교리교학과 수행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다. 재가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폭 넓은 답변을 위해 방청객들의 참여를 유도, 질문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방송에 대해 설명한다.

남전 스님은 신행의 기본부터 체계적 설명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불자들의 신행이 타인을 위한 '행' 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의 부재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불자들의 질문에 단순하게 답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한 다음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주고자 한다"고 전한다.

담당 허찬 PD는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닌 네 분의 스님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바른 신행상활로 안내하고자 한다. 네 분 스님들의 각기 다른 해답이 불자들의 답답한 일상에 시원한 감로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자들의 고민을 4인 4색의 스님들이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는 '생방송 BTN 즉문즉설' 이 눈길을 끈다. 사진은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법현 스님, 월도 스님, 선업 스님, 남전 스님

법현 스님
운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태고종 총무부장, 교무부장, 사회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열린선원을 통해 저잣거리 포교에 힘쓰고 있다.

월도 스님
노인복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천태종 총무부장이자 분당 대광사 주지를 맡고 있다.

남전 스님
신문과 방송을 통해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이끌어 왔으며, 현재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과 서울 창동 정혜사 주지로 활동하며 포교에 힘쓰고 있다.

선업 스님
상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가족치료학을 전공하고 스님으로서는 드물게 상담전문가 1급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팜센터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흥사 12호 사찰도서관으로 선정

조계종 문화부 백천문화재단 지원… 8월 21일 기증식 개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관하고, 백천문화재단이 후원하는 '부처님 글사랑, 신흥사 사찰도서관 불서기증식' 이 8월 21일 울산 신흥사에서 열렸다.

신흥사 사찰도서관은,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고 어린이 및 청소년의 포교활동을 꾸준히 펼치는 점을 인정받아 조계종 문화부가 선정하는 12호 사찰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이날 기증식에는 1,000여권의 불서가 전달됐고 '부처님글사랑' 현판 및 기증서도 전달됐다. 불서를 기증한 백천문화재단은 장학사업, 병원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출판 및 도서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 문화부는 지난 5월 부처님 오신날에 봉행했던 불교 도서전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9월 중 제13호 사찰 도서관 거창 행복한절에 지원한다.

정혜숙 기자

불교박람회 조직위 중국 샤먼 국제전람회 참여

10월 15일~19일…한국관 7팀 참여

2015 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10월 15일~19일 5일간 제9회 중국 샤먼 국제 불사용품전람회에 참여한다. 중국 샤먼 불사용품전람회는 세계 최대 규모로 중국 푸젠성(福建省) 샤먼시(厦門市) 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며 '한국관' 에는 불교예술 작가와 전통 산업 분야 업체 등 총 7팀이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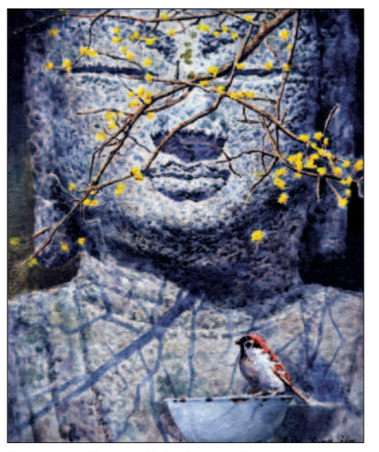
불상조각가 서칠교 씨는 그의 대표작인 33관음 도상 조각을 출품한다. 서 작가는 홍익대에서 서양 조각을 공부하고 불교미술에 심취 불상 제작에 매진해왔다.

이진형, 이재윤 부자 작가의 출품도 눈길을 끈다. 젊은 작가 이재윤 씨는 불교조각장 이진형 씨의 아들이다. 지난해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14 불교박람회 '붓다 아트페스티벌' 에 동참했다. 대전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조각가 이진형 조각장은 2011년 평생을 바쳐 조성한 불교미술관을 조계종에 희사한 바 있다.

갤러리 나무는 임상진 작가와 이영섭 작가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나무는 특색 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신인작가를 발굴해 부산경남 지역 미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4 불교박람회에서 선정한 '부디즘어워즈 우수업체상' 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샤먼 불사용품전람회는 전 세계 13개 국가 1000여 곳에 이르는 관련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갤러리 나무가 출품한 임상진 작가의 '불'

since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상호인쇄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원
이천부 이상 @ 9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26.5cm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원
이천부 이상 @ 1100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cm×31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원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원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규격 : 9.5cm×13.4cm
@ 650원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규격 : 8.9cm×9.5cm
@ 450원

문화人

불음 포교는 평생 숙원 불사 "전문화된 합창단원 양성 절실"

대한불교중앙합창단 설립하는 황학현 예술감독



황학현 예술 감독은 108명 단원을 목표로 대한불교중앙합창단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오페라 등 불교계 대형공연 위한 전문 혼성합창단원 108명 목표 9월 6일부터 매주 오디션 진행

"최근 불교 관련 칸타타나 오페라 등 대형 음악회가 1년에 3,4회 이상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음악의 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 불교계는 전문 혼성합창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죠. 대형곡을 소화할 불교혼성합창단이 없으니 매 공연마다 외부 전문합창단이나 대학의 성악과 학생들을 단체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늘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불교중앙합창단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생각했습니다."

혼성합창단 '대한불교중앙합창단' (이사장 초격, 이하 불교중앙합창단) 설립을 위한 오디션이 9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종로구 견지동 전법회관 6층에서 개최된다. (사)예술로 여는 복된 세상 해피월드(이하 해피월드) 황학현 예술 감독은 108 단원을 목표로 불교중앙합창단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황 감독은 불자들로 구성된 전문 합창단 설립으로 신행과 예술활동을 겸한 합창단을 이끌 예정이다.

황 감독은 1970년대말 조계사 어린이법회 지도를 시작으로 찬불가를 보급해 오다가 1993년 대한불교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을 창단 어린이 합창단의 전문화를 꾀해왔다. 이곳에서 그는 지난 20여년간 졸업생 4백여명과 음악전공자 40여명을 배출했다. 이중 성악 전공자들은 조계사, 석왕사, 삼선포교원, 보광사 등에서 불교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고 20여명은 국립합창단과 시립합창단 등에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어 불자 음악인 양성의 산파 역할을 해왔다.

그가 불교중앙합창단 설립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지난 1월 미주 전법 50주년 기념사업회 초청으로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미주 4개 도시를 순회하면서다. 여기에 같이 합류한 서울 · 경기남부불교합창단연합회 회원들이 전문화된 혼성합창단 양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황 감독은 공연 중심의 전문 불교혼성합창단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해피월드는 기존 서울 · 경기남부불교합창단연합회 회원과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50여 단원을 확보 연습을 시작한 상태이며, 108명 선발을 목표로 단원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테너 이승훈 씨를 지휘자로 영입해 단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승훈 지휘자는 미국 줄리아드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성악전공) 졸업, 동국대 연극학부(뮤지컬) 등에 출강하고 있는 실력파 음악가다.

황 감독은 합창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력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초창기 어린이 합창단을 구성할 때는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쁜 의상을 입고 무대 구성을 잘해서 노래를 부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찬불가의 보급을 위해서는 합창단의 전문화가 절실하다고 느꼈죠. 이번 불교중앙합창단 역시 전문화된 합창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훌륭한 지도자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이승훈 지휘자의 꼼꼼한 지도에 단원들이 너무나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단원들을 모집해 본격적인 연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불교합창은 문화예술 활동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신앙이며 수행이며 복전이라고 말하는 황 감독. 그는 중앙합창단이 교계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부에서 영입한 비불자 합창단원들이 찬불가를 감동적으로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혹 이들이 성공적인 연주회를 했다고 해도 순수한 불자의 공연이라고 할 수 없죠. 앞으로 108명의 전속 불자 합창단원을 양성해 불교계의 영향력 있는 혼성합창단을 구성해 감흥의 무대를 펼칠 생각입니다."

불교중앙합창단은 30세~65세 성인 불자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108명 정단원을 목표로 9월 6일부터 매주 오후 5시 오디션을 이어간다. 가창(자유곡) 및 면담으로 오디션이 이루어지며 장소는 종로구 견지동 전법회관 6층이다. (02)725-7849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20주년 기념공연



미주 50주년 기념사업회 초청공연. 캐나다 더글라스칼리지서 공연했다.

흩날리는 꽃잎 밟고 홀로 돌아가는 사람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㉞ 봉선사 ㊦





봉선사 일주문 전경. 선비들은 봉선사에서 여유와 흥취를 느끼며 시를 지었다.

아침과 저녁, 그 다른 느낌

그렇다면 김상헌에게 지어준 장유의 시는 어떤 것일까? 〈계곡선생집〉제29권에 실린 5언율시 '광릉을 봉심하러 가는 도중에 시 한 수가 이루어졌기에 청음 종백과 해숭 도위에게 써서 드리다[奉審光陵途間吟成 錄呈淸陰宗伯海嵩都尉]' 이다.

옹전경사원(擁傳經沙苑)
명가도석량(鳴珂度石梁)
조휘쟁엄영(朝暉爭掩映)
악색송청창(嶽色送靑蒼)
요요천원형(繚繞川原迥)
인온초수향(ø 草樹香)
정도접헌개(征途接軒蓋)
쇠졸역휘광(衰拙亦輝光)

숭전을 받들고서 모래 화원 지나가고
말방울 울리면서 돌다리 건너가네.
다투어 명멸하는 눈부신 아침 햇살
짙은 쪽빛 배어나는 산악의 색깔
멀리 강과 언덕 휘둘러 에워싸고.
숨이 온통 막힐 듯 자욱한 초목 향기
수레를 접하고 이렇게 길 가다니
변변찮은 이 몸에겐 또한 영광이외다.

장유는 아침나절 광릉을 향해 가며 만나는 풍경과 정취를 매우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무엇보다 오감을 자극하는 시어들로 광릉을 향해 가는 선비들의 행로를 묘사하고 있다. 말방울 소리를 들려주고, 눈부신 아침 해와 쪽빛 산악을 보여주고, 초목의 향기를 맡게 해 주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광릉을 향해 가는 아침나절이 한 편의 시로 완성되었는데, 광릉에서 일을 다 보고 봉선사에 들린 이야기도 시로 지어져 전하고 있다. 그의 문집에 실린 '봉선사를 제목으로(題奉先寺)' 라는 시에서는 광릉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봉선사에서 묵는 과정을 정갈하게 그렸다.

승집인왕사(勝集因王事)
자유본불기(玆遊本不期)
역정비개지(驛程飛盖地)
승원대상시(僧院對床時)
옥루종음철(玉漏鐘音徹)
금파찰경이(金波刹影移)
귀래진토리(歸來塵土裏)
왕적입신시(往跡入新詩)

빼어난 이 모임 왕릉 일 때문이지만
여기에 노닐 줄은 미리 알지 못했네.
마치 땅을 덮치듯 달려오니
절에서는 저녁공양 시간이로다.
옥루의 종소리 하늘을 뚫는 듯한데
금빛 물결에 절 모습 옮겨져 있네.
속진으로 돌아갈 때에
갔다 온 자취 새로 지은 시에 들어 있네.

아침에 올 때와는 사뭇 다른 여유와 흥이 느껴진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봉선사에 와서 저녁을 먹고 종소리를 듣는 그 여유 속에서 선비의 마음은 새로운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절에서 하루를 묵고 가는 그 마음이 드러난 결구는 한 수행자의 오도송에 가깝다. 속진으로 다시 돌아갈 때 뭔가 '새로운 마음' 이 새로 지은 시에 들어 있다는 것은 자신도 몰랐던 흥취를 시로 표현했음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비밀스러운 그 무엇을 독자들에게 상상해 보라고 맡겨 버린 듯이.

종명원사월함산(鐘鳴遠寺月含山)
은영촌등수리간(隱映村燈樹裡看)
청효독심전로거(淸曉獨尋前路去)
통음추색백운한(洞陰秋色白雲寒)

먼 절 종소리 들리고 달빛 산 머금었는데
어리비치는 마을 등불이
숲속에서 아른거리네.
이른 새벽 홀로 왔던 길 돌아보니
가을 그윽한 그늘 흰 구름에 더욱 차갑네.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의 시다. 제목은 '제봉선사(題奉先寺)' 이며 그의 문집 〈문곡집〉제2권에 전한다.

어떤 연유로 왔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김수항은 지금 봉선사 근처에 있다. 그것도 이른 새벽이다. 새벽에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빠지게 한다. 종소리가 들리는 그 시간 살아 온 날들을 회고 하는 한 선비의 심정은 어땠을까?

김수항 역시 오도송을 읊은 듯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정황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가을의 이른 새벽 흰 구름이 풍경이 더욱 차갑게 느껴진다는 술회로 시를 마무리하고 말았다. "인생이라는 거? 이른 아침 흰 구름 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듯이 말이다.

절은 깨달음의 공간

아무래도 절은 깨달음의 공간이다. 절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시를 짓고 삶의 궤적을 더듬는 동안 가슴 속에 묻혀 있던 본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한 편의 시로 표현되는 것이다.

효몽회청성(曉夢回淸聲)
공렴만원춘(空簾滿院春)
암등고좌불(暗燈孤坐佛)
잔월독귀인(殘月獨歸人)
마답림화락(馬踏林花落)
의첨초로신(衣沾草露新)
전계명인수(前溪鳴咽水)
사소객래빈(似訴客來頻)

새벽꿈에 청량한 소리 들리더니
빈 주렴에 봄기운 가득하다.
어둑한 등불에 외로운 좌불상
지는 달빛에 홀로 돌아가는 사람 있네.
말은 숲 속 흩날리는 꽃을 밟고 달리니
옷은 풀잎에 맺힌 이슬에 젖는구나.
앞 시내 오열하는 물소리
마치 객이 와서 자주 하소연 하는 듯.

〈대동시선〉에 전하는 이단상(李端相 1628~1669)의 시다. 제목은 '저문 봄날 광릉 봉선사에서 자다(暮春宿光陵奉先寺)' 이다. 제목부터 매우 서정적이고 운치가 있다. 이 시에 흐르는 분위기 또한 한 수의 오도송이라 할 만하다.

시를 절반 나누어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 새벽 절집에서 잠을 자고 돌아가는 선비는 흩날리는 꽃길을 달린다. 꽃길, 그 길이 깨달음의 길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마음이 이미 더없이 충만한 열락의 길, 그래서 시냇물 소리가 오열하는 듯 들리는 것으로 읽힌다. 물소리의 오열은 세상살이의 온갖 시름이겠거니.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 〉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 中

마음꽃 펴어라,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3 ~ 8/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성철 스님의 화두공부 하는 법	성철	해인사출판부
3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정여	맑은소리맑은나라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수트라 (여시아독)	범일	김영사
6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남회근, 송찬문	마하연
7	현판기행	김봉규	담앤북스
8	사랑이 온다(화해와 치유의 그림편지)	이영철	해조음
9	두 글자로 깨치는 불교	가섭	불광출판사
10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	운주사



학담평석 아함경 – 전 12책(20권)

학담 지음 | 한길사 펴냄 | 전권 44만원



4아함 완전 해체, 새 틀의 〈아함경〉

기존 '장아함' 등의 분류에서
귀명·불보·법모·승보장으로 분류
전 12책 20권의 새로운 체계
원고 4만 매 집필 4년 편집 2년

가르침 '내용' 별로 분류하고 묶어
"모든 대승불전의 문자반야는
아가마(아함)의 확대부연"
우리 시대의 언어로 쓰인 '아함'
통합적 해석 불법 새롭게 조명



새로운 형식의 〈아함경〉이다. '분류'도 '제목'도 '해석'도 책의 분량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아함경〉이다. 기원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사이에 산스크리트 전승의 4아함이 중국에서 한역되었고, 팔리어 전승의 니까야 5부는 남방 상좌부라는 단일 부파에서 전승해온 것이 온전히 보존되었다.

책은 기존의 4아함(장아함, 중아함, 잡아함, 증일아함)과 5니까야(장부, 중부, 상응부, 증지부, 소부)불전 전체를 해체하여 귀명장·불보장·법모장·승보장으로 나누어 전 12책 20권의 새로운 틀로 가려 엮은 〈아함경〉 평석이다.

이번 책은 선(禪)과 교(敎), 선(禪)과 사회적 실천(普賢行)의 하나 됨을 주장하며 그간 많은 불전 해석서를 발간해왔던 학담 스님〈사진〉이 오랜 세월 각고의 정진 끝에 이룬 대작불사다. 연찬 30년, 원고 4만 여 매, 집필 4년, 편집에 2년이 걸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승된 초기의 방법은 암송에 의한 구전이다. 암송해서 구전되던 것을 서사하여 전하면서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를 겪었다. 기존의 '아함'이나 '니까야'의 완성 과정은 암송의 결집인 것이다. 암송의 '순서'에 의해 쌓인 텍스트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저자인 학담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묶었다. 기존의 제목들을 버리고 유사한 내용들 끼리 묶어 그 내용을 대표하는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붙였다.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해 좀 더 큰 전법의 결실을 보고자 함이다.

"모든 대승불전의 문자반야는 아가마(아함)에서 여래가 맨 처음 열어 보인 교설의 확대부연이므로 대승은 아함으로 읽고, 아함은 대승에서 다시 풀이한 뜻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학적 입장이 나의 확신이고 본서 편집의 기본 관점이다. 비록 방대한 양의 경전을 번역하고 풀이했지만 문자로 된 경전풀이에 그 누구라도 한계를 안지 않을 수 없다. 언어적으로 팔리어 니까야가 인도어의 남방 전승언어로 원전이라 할 수 있지만, 인도고전에 대한 언어 해독의 능력만으로 경전 문자가 보이는 반야의 지취(旨趣)가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모든 언어로 된 경전 풀이의 한계와 빠뜨림에 대해 '아가마' 원전은 모든 법의 실상(諸法實相)이며, 법계의 경을 읽고 법계의 경을 설하는 것이 〈아함경〉을 읽는 것이다' 라는 한 마디로 우리들의 그 모든 허물을 녹여내고자 한다."

이번 〈아함경〉은 기존의 것에서 볼 수 없었던 '수치'와 '형식' 말고도 많은 성과를 담고 있는 출간이다. 철학과 사학과 문학을 관통하는 우리 시대의 언어로 쓰인 '아함'이며, 모든 경을 대승 교설과 회통하여 깊고 명쾌하게 평석함으로써 불교철학의 진수를 보여준다.

〈아함경〉의 주요 술어에 대해 남·북전 원어와 비교·검토·보완하여, 난해하고 복잡한 경을 이 시대의 생동하는 해탈의 언어로 풀어냈다. 용어와 개념을 한글화하여 불교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선(禪)과 교(敎)에 대한 이원적 이해를 넘어서는 통합적 해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조명했다.

이번 〈아함경〉 간행은 부처님 육성의 설법을 시대의 언어로 되살려낸 것이며, 이 시대 대중에게 큰 위안과 힘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시대의 여러 고난을 해결할 지혜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상과 정신의 자량(資糧)이 되기를 바라는 불사다. 박재완 기자

〈표〉 '학담평석 아함경'의 구성

아함경	책제		권제
제1권	연기법의 믿음과 우러름	귀명장	귀명장 1 삼보의 역사적 출현과 해탈의 길 귀명장 2 우러름과 깨달음
제2권	붇다의 생애	불보장	불보장 1 붇다, 그 거룩한 삶 위대한 길
제3권	붇다의 진실과 보디의 길	불보장	불보장 2 붇다의 참모습과 보디의 행 불보장 3 붇다에 대한 찬송과 붇다됨의 길
제4권	연기법의 언어	법보장	법보장 1 연기법의 언어 연기법의 가르침
제5권	아함경의 비유	법보장	법보장 2 진실의 비유와 비유의 진실
제6권	시대철학과 연기법의 진리	법보장	법보장 3 시대철학, 그 연기론적 비판과 포용 법보장 4 연기법의 진리
제7권	연기법의 세계관과 실천관	법보장	법보장 5 연기법에서 존재·인식·실천
제8권	선과 니르바나	법보장	법보장 6 세 가지 배움과 해탈의 실천 법보장 7 선(禪),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하나됨 법보장 8 존재의 실상, 해탈의 현실인 니르바나
제9권	상가와 출가수행	승보장	승보장 1 진리의 공동체, 상가의 성격과 구성 승보장 2 출가교단과 출가수행자의 생활
제10권	상가의 아란야와 출가수행자	승보장	승보장 3 나아감과 돌아옴의 곳, 상가의 아란야 승보장 4 상가공동체의 거룩한 수행자들
제11권	출가의 길과 세간생활의 도	승보장	승보장 5 속박의 집을 나와 해탈의 길로 승보장 6 해탈의 길, 정토의 세상
제12권	아함경 독해의 길잡이	길잡이	

학담 스님은

1970년 경주 분황사 도문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용성선사의 근본 도량인 대각사에서 출가 초기를 보내며, 용선선사의 1세대 제자들인 동헌선사와 동광선사로부터 선(禪)을 훈도 받았다. 상원사·망월사·해인사·봉암사·백련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20대에 이미 3년여 장좌불와의 수행을 감당했다. 20대 말 아함의 한 구절에서 중도의 지견을 밝혔다. 용성선사 유업 계승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에 대승사를 열고 역경불사를 진행하여 〈사십이장경강의〉 〈돈오입도요문론〉 〈원각경관심석〉 〈육조법보단경〉 〈법화삼매의 길〉 등 많은 불전 해석서를 발간했다.

'불이증도'는 이 세계 자체의 본질

유마경

현장 한역 | 김태완 번역 및 주석
침묵의향기 펴냄 | 2만원



〈유마경〉은 불이법(不二法)을 탁월하게 설하는 불가사의 해탈법문(不可思議解脫法門)이다.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이 엄밀하면서도 쉬운 말로 번역하고 풍부한 주석을 붙인 〈유마경〉이다.

〈유마경〉의 정확한 명칭은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이며 줄여서 〈유마힐경〉 〈유마경〉이라 한다. 유마힐은 경전의 주인공인 거사로서 리차비족의 수도인 베살리에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는 부호라고 하나 실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경은 3회 14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마거사가 병으로 앓아눕자 부처는 지혜 제일인 사리불을 비롯하여 가섭·수보리 등을 병문안 가게 권하나 그들 모두 유마거사의 높은 법력이 두려워 문병가기를 꺼린다. 결국 문수보살이 가게 되는데 유마거사와의 대화에서 문수보살은 대승의 깊은 교리인 불이(不二)법문을 유마거사의 침묵을 통해 깨우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경에 대한 한역은 7가지가 있었다고 하나, 현존하는 것은 3가지로 지겸(支謙) 역의 〈유마힐경〉 2권, 구마라습 역의 〈유마힐소설경〉 3권, 현장 역의 〈설무구칭경(說無垢稱經)〉 6권이 있다. 책은 당나라 현장이 한역(漢譯)한 〈설무구칭경〉을 원전으로 했다. 현장의 번역본은 티베트어 본과 내용이 가장 유사하며 산스크리트어 원본에 가장 충실한 번역본으로 알려져 있다.

〈유마경〉은 철저히 불이법문이다. 불이증도를 통한 해탈의 길을 탁월한 통찰력과 논변으로 설하며, 불이증도란 무엇인지를 다양한 상황에 대입하여 자세히 설법한다. 그리하여 결국 불이증도란 이 세계 자체의 본질임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불법(佛法)은 불이법(不二法)이다. 〈유마경〉이 예로부터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경전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불이법을 탁월하게 설하는 불가사의해탈법문(不可思議解脫法門)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중국에서도 선종을 비롯한 각 종파에서 중심 경전으로 삼아 열독했으며, 수많은 해설서들이 집필되었고, 육조단경과 증도가 등 선종의 주요 문헌들에서도 다수 인용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먼 미래에 오실 부처님 미리 만난다

미륵삼부경

웅산 편역 | 인북스 펴냄 | 1만원



책은 금강산 화암사가 미륵부처님을 모시며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출간한 것으로, 화암사 주지 웅산 스님 편역의 〈미륵삼부경(彌勒三部經)〉이다.

미륵은 대승불교의 대표적 보살 가운데 하나로, 석가모니불에 이어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부처님이며, 〈미륵삼부경〉은 미륵보살에 대한 교설을 담은 세 부의 경전을 말한다. 미륵보살의 상생·하생·성불과 관련된 교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섯 부의 경전을 〈미륵육부경〉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 다시 세 부의 경전을 묶어서 〈미륵삼부경〉이라고 한다.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 〈미륵대성불경(彌勒大成佛經)〉을 말한다.

책은 위 세 부의 〈미륵삼부경〉과 〈미륵상생경종요〉로 엮었다. 원문은 〈대정신수대장경〉의 원전을 바탕으로 했다. 〈미륵삼부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륵상생경종요〉을 실었다. 번역은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의 단락을 나누고 표제어를 제시하여 편집했다. 주(註)는 〈불광대사전〉과 〈시공불교사전〉 〈불교대사전〉에 의거하여 풀었다. 먼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책으로 먼저 만나본다. 박재완 기자



인생 고비서 만난 불보살 지혜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모과나무 편집부 엮음 | 1만2천원



"아내가 내 곁을 떠난 지 어느새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언젠가 아내를 다시 만난다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 당신은 부처님이 내게 보내준 관세음보살이었다고…." (조희성)

"잘 나가던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났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만난 이후에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주셨기에 생활은 상당히 어려웠지만 마음만은 어느때보다 행복했다. 돈이 주는 행복이 제일 크다고 믿었던 나에게 부처님 법을 만나서 얻은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환희로웠다." (전명숙)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불치의 병마가 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 연이은 사업 실패에 따른 극단적인 좌절감, 숙명처럼 주어진 장애를 가진 이의 고독감과 절망감 등이 닥친다면 과연 어떨까.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엄습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신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끝에서 오히려 숙연함이 들 것이다. 이때 누군가가 내 의지처가 되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위로해 준다면 인생의 아픔을 희망으로 바꿔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에 소개된 20편 글들은 바로 인생의 위기서 우연한 기회로 만난 불교와의

제1회 조계종 신행수기 모음집
20편 신행담 큰 감동 전해줘

인연으로 시련을 극복하며 참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한마디로 신행수기 모음집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법보신문과 불교방송이 주관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제 1회 신행수기 공모에서 뽑힌 글들을 가려 묶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머리말에서 "신행수기 공모는 기도와 신심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을 공표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며 "온갖 어려움에 직면해 불보살님의 지혜와 가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들은 불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새로운 신행문화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체험을 적어내려간 이 글들속에 등장하는 공모 당선자들의 삶은 저마다 고단했다. 70대 초반 노년기에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삶 속에서 하나씩 참회하고 깨닫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90년대를 지나면서 겪은 심한 경제적 문제와 좌절감 속에서 정면 대응하며 자신만의 일을 꿋꿋하게 챙기며 당찬 삶을 살아온 50대 여성 이야기, 장애인으로서의 고립감을 극복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 이야기 등 기도와 눈물로 써 내려간 가슴 절절한 감동의 기록이 담겨 있다. 특히 이 글들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나의 문제로도 절실히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어떤 대목에서는 눈물이 앞을 가려 책장이 흥건히 적셔지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네 삶은 누구에게나 천차만별의 고단이 뒤따른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 역경을 극복한 신행담은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분명 신행수기 모음집은 이 시대의 신행문화를 하나로 묶은 결집과 발원의 장이며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불교의례 알면 지향점 보인다

한국불교 의례체계연구

이성운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3천원



의례란 교리나 사상이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나 정형화된 것이다. 종교의 의례는 그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구체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의례는 불교의 지향점, 즉 내가 부처가 되고, 다른 이들이 부처가 되도록 도와주는 반복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불교가 비록 깨달음의 종교라 할지라도 그 신앙행위의 실제를 보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대상에 대한 신앙과 예경, 공양, 그리고 그들에게 소원을 비는 의례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현재 한국불교 의례체계에 대해서로 다른 견해와 인식이 상존하는 것을 전제하고, 현행 의례의 구조와 형성돼온 과정과 그것에 대한 의례 수용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의례 체계를 밝힌 것이다. 그 가운데서 특히 한국불교의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상용의례인 시식과 공양, 예경과 송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시식의례로는 관음시식, 공양의례로는 삼보통청을 고찰한다. 또한 불교의례의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한국불교 의례체계의 특수성을 정리했다.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 모두 6장으로 구성됐다.

제 2장 '한국불교 의례' 편에서는 한국불교 의례의 종류와 분류 유형, 구조 체계 등을 개괄하고 있다. 먼저 한국불교의 의례

의례체계 일목요연히 정리
관음시식과 삼보통청 체계 밝혀

를 담고 있는 의례 서적의 자료 목록을 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눠 제시한다. 이어 한국불교 의례의 분류 유형을 살펴보고, 끝으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상용의례인 관음시식과 삼보통청의 구조와 그 체계들을 밝힌다.

또한 제 4장 '공양의례' 편에서는 음식 등 일체의 물건을 올리는 의례를 공양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에 의거해 시식이나 공양이라는 용어를 구분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 공양의례 구조와 주요 개념을 개괄한 뒤에 한국불교의 주요 공양의례라고 할 수 있는 삼보통청과 진언권공, 사시마지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공양의례를 소청(봉청)에서 헌좌, 변공, 헌공, 풍경, 표백의식에 이르는 여섯 단계로 나눠 그 체계와 인식 등을 설명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지금껏 한국불교의 상용의례인 시식 · 공양의례와 그 의례를 여법히 봉행하기 위한 수행인 예경 · 송주 의례의 구조와 의미, 형성추이와 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것에 대해 한국불교 의례 구조의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한국불교 의례 체계를 밝히는 것은 의례를 옛날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체계를 바로 이해해 바르게 알고 설행하자는 데 있다.

불교의례를 바로 알면 한국불교 의례의 특징인 역동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 역동성은 의례현장에 적합한 새로운 의례를 늘 생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례체계의 이해가 절대적이라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이런 한국불교 의례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시해 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힐링명상 통해 '참나' 찾자

참나를 찾는 행복명상

곽도영 지음 | 중도기획 펴냄 | 1만 8천원



힐링명상이 시대적 트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용인대 교양학부서 명상학을 강의하는 곽도영 박사는 힐링명상의 텍스트가 될 만한 책, 〈참나를 찾는 행복명상〉을 펴냈다.

저자 서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밝힌다. "명상은 참나를 찾는 진정한 수행입니다. 참나를 찾는 일은 사바세계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일지라도 분석과 추리는 잘할 수 있으나, 단순화시켜 지혜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상은 안팎으로 마음 흐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변화를 알아차려, 온전하게 현재의 '깨어있음' 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은 몸이 하는 것을 마음이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이고 나아가 우주와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용인대는 물론 (사)한자교육진흥원 평생교육원과 공무원 및 공공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강연, 사찰 명상법회 등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상학 강의 교재형식을 취했다.

이 책은 총 10강으로 나눠져 있다. 이중 행복을 부르는 명상 및 웰빙과 웰다잉 명상 등을 다룬 제 5강 참나를 찾는 행복명상 편과 제 10강 종교에 대한 명상편은 명상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주고 있다. 특히 제 10강은 몸과 마음을 닦는 불교수행법, 사홍서원에 대한 명상 등을 다룬다. 저자는 "참나를 찾는 그 날부터 자신의 삶은 고통서 기쁨으로, 좌절서 열정으로, 불행서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꾸준히 힐링명상을 한다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정신이 건강한 세상으로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저자 곽도영 박사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동국대불교대학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동국대 대학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용인대 교양학부서 명상학을 강의중이다.

10여년 '이뭣고' 수행 소회

비우고 떠나기

청운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1만5천원



10여 년의 '이뭣꼬' 수행 끝에 찾아낸 스님의 한 살림을 풀어 놓았다. 화두를 들면 온갖 중생들의 번뇌가 들끓는 현실이 안타까워 한 소식을 풀어 대중에게 지혜를 심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이 책은 스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생들의 지혜를 열고자 한다.

몸을 편안하게,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삼계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원력 때문이다. 중생은 생과 사를 둘로 본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육안으로는 육신밖에 못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법안(法眼)으로 법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는 것이다. 즉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이는 생사를 하나로 본다. 더 나아가 생사마저도 없다고 설명한다.

한국 불교는 간화선을 추구하는 종교로서 화두를 탐구한다. 의심에 의심을 품고 뚫고 나가는 간화선은 한국불교를 대표한다. 저자인 청운 스님도 간화선을 통해 지혜가 열리는 기쁨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의 원력으로 알리고자 했다.

저자는 " '이뭣고' 는 중생의 중병을 고치기 위한 단방약으로 금생성불은 물론 욕계의 삶 속에서 대변혁을 이루고, 집착과 애착을 비워 생사없는 높은 차원의 세계로 가기 위한 수행법"이라고 말했다.

책은 총 3장에 걸쳐 주제별로 나뉘어져 있다. 제 1장인 '하늘 거울에 비친 내모습' 을 비롯해 2장 '오직 모르고 모를 뿐이다' 제 3장 '수 많은 나 속의 참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제별로 조사어록과 경전 내용을 인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예를들면 '주인공으로 살아라' 편에서는 대주혜해 선사와 마조선사의 일화를 들었다. 대주 선사가 물었다. "어떤 것이 제 집에 있는 보물 창고입니까?" 그러자 마조가 대답한다. "지금 나에게 묻는 그대가 바로 보물 창고이다. 가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마음껏 쓸 수 있는데, 어찌 밖으로만 그것을 구하려 하는가?"라고 답했다. 대주 선사는 마조의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달아 뛸 듯이 기뻐하며 큰 절을 올렸다.

김주일 기자

나누면 기쁨이 배가된다

행복바이러스/선재의 거짓말/아침으로 간 아이

부복정, 박종한, 김혜란 글 | 김춘재 그림
참글 어린이 펴냄



〈행복 바이러스〉는 동화를 통해 나눔이란 누구를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고도 명료하게 가르쳐 준다. 주인공 누리의 입을 통해서다.

누리는 "저는 그냥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나누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냥요."라고 짧고 쉽게 이야기한다.

다른 것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는 나눔이 아니라 나누는 행위 그 자체로 벌써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책은 불교신문 신춘문예 동화 부문 당선작 세 편을 모은 책이다. 부복정의 〈행복 바이러스〉는 2013년, 박종한의 〈선재의 거짓말〉은 1998년, 김혜란의 〈아침으로 간 아이〉는 2004년에 각각 당선됐다. 대략의 줄거리들은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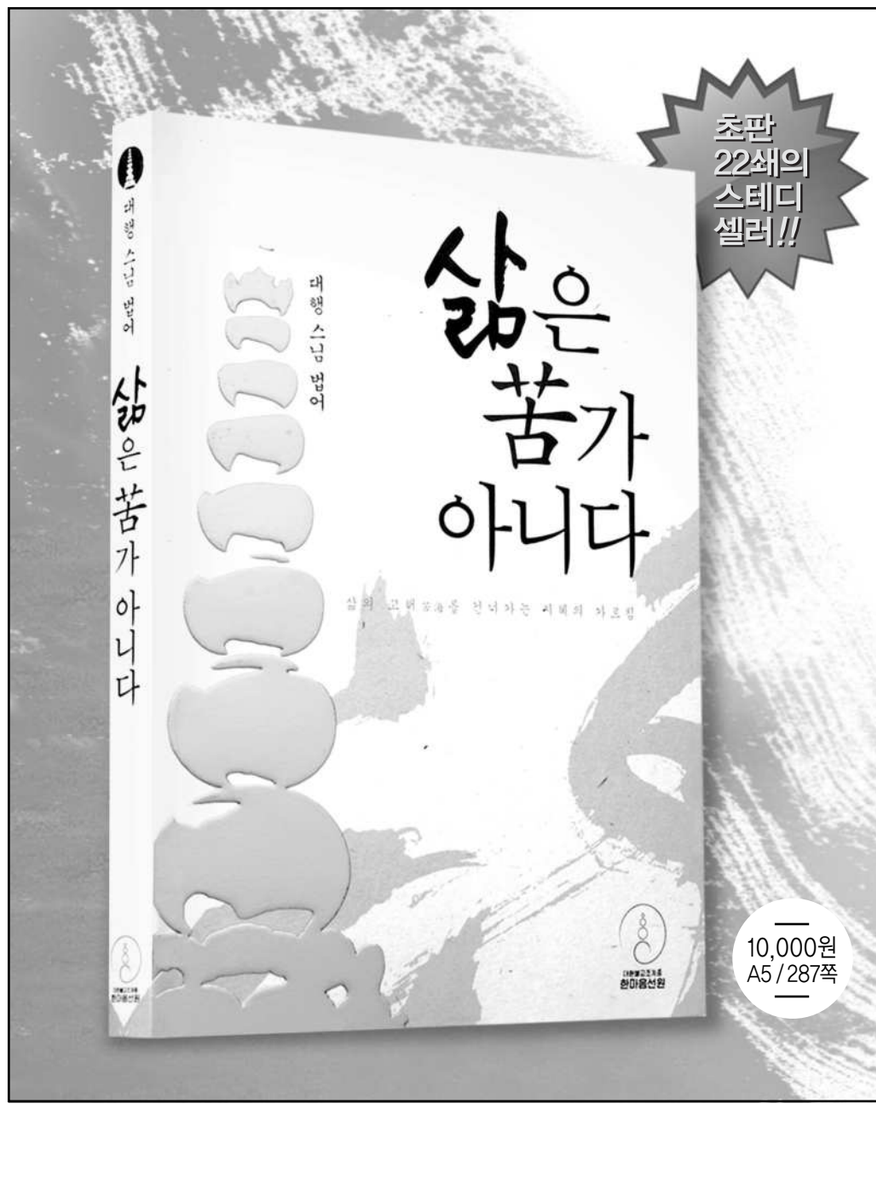
〈행복 바이러스〉는 나눔의 기쁨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이다. 누리는 할머니와 둘이 산다. 엄마, 아빠가 어린 누리를 두고 멀리 돈을 벌러 가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누리가 학교에 결석하게 됐다. 할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할머니 대신 김밥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그제서야 누리가 김밥 장수인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가정의 아이임을 알게 되었다. 누리를 찾아가 도와준 반 친구들은 누리에게 봉사와 나눔의 마음씨를 배워 '누리 봉사단' 을 만들고 열심히 활동했다.

이런 소문이 퍼져 누리네 학교가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인터뷰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동안 소식조차 끊겼던 누리의 아빠가 TV를 보고 누리를 찾아와, 누리는 이제 정말로 부러울 것 없는 아이가 되었다.

이외에도 〈선재의 거짓말〉은 부처님 오신 날, 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주제며, 〈아침으로 간 아이〉는 절에 사는 연우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그렸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품절]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상대성은 곧 연기법… '一水四見'의 세계

불교로 읽는 古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양형진
고려대 반도체물리학과 교수

상대론에는 뉴턴역학에서 사용하는 갈릴레이의 상대론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과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론이 있다. 일반상대론(general theory of relativity)은 중력의 효과를 포함한 보편적인 경우의 상대론이고, 특수상대론(special theory of relativity)은 중력의 효과가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대론이다. 이 세 상대론은 전부 "모든 속도는 상대속도다"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이는 상대론이 관측자에게 나타나는 세계의 상대성에 주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갈릴레이 상대론부터 살펴보자.

기차에 탄 사람에게 선반에 있는 가방은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철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가방은 시속 10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를 탄 사람에게 비행기의 날개는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비행기의 날개는 시속 900km로 날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관측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속도는 상대속도이므로 둘 중의 어느 하나만 옳은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얘기다.

이처럼 관측 대상의 운동 속도는 대상 자체의 속성에 의해 관측 이전에 이미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관측 대상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계는 달라진다. 따라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수만큼의 서로 다른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각자의 체계 안에서 일관성만 유지한다면 모든 관점이 정당하다는 것이 상대론이다.

여기까지는 고전적인 갈릴레이의 상대론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나 마찬가지다.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척도가 변하느냐의 문제다. 고전역학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과거인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도 과거에 일어난 것이고, 어느 한 사람에게 미래인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며, 어느 한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 상식적인 믿음이 특수상대성이론에서는 붕괴된다.

상식의 붕괴 '특수상대성이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 가설에서 출발한다. 첫 번째 가설은 갈릴레이의 상대론도 인정하는 것으로서, 모든 속도는 상대속도라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관측자나 광원의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광속도가 언제나 일정하다는 것이다. 고전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믿기 어려운 이 두 번째 가설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은 갈릴레이의 상대론과 전적으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상대론의 이 두 가설로부터 어렵지 않게 로렌츠 변환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등속도로 상대 운동을 하는 두 관측자는 시간과 공간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이 상황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상당히 긴 우주선이 정지해 있으며, 그 중앙에 관측자 I가 있고 우주선 밖에 있는 관측자 O는 I의 바로 옆에 있다고 하자. 우주선의 맨 앞과 뒤에는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의 전등이 있고, I와 O가 있는 우주선의 중앙에서 두 전등까지의 거리는 같다. 두 전등이 순간적으로 반짝하면서 빛을 발하고 나서, 두 빛이 관측자 O에게 동시에 도달했다면 I에게도 동시에 도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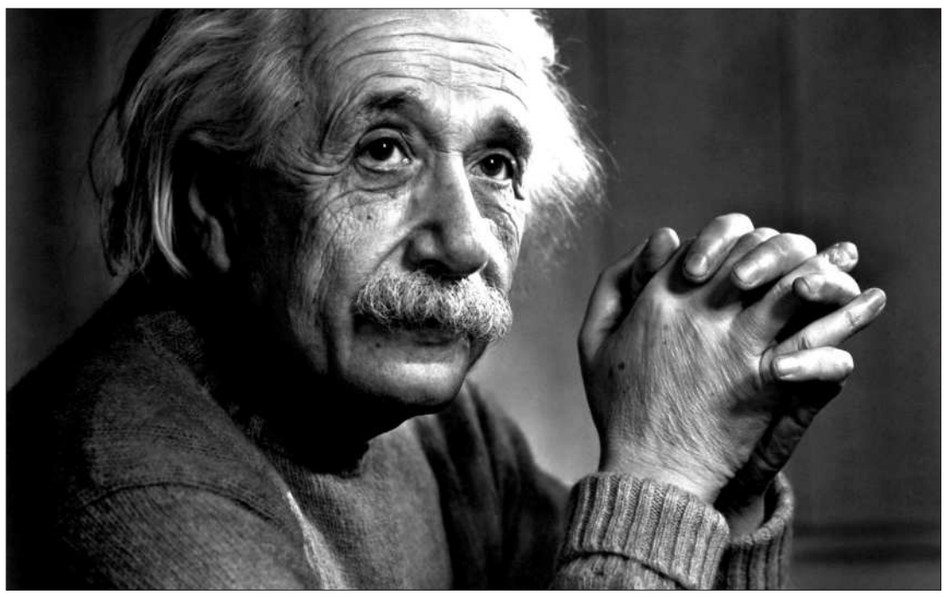
우주선이 상당히 빨리 움직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빨강과 파랑의 두 빛이 O에게 동시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I에게는 동시에 도달하지 못한다. 우주선에 탄 I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므로 관측자 O가 두 빛을 함께 본 순간에 I는 O보다 앞에 가 있게 되므로, 앞에서 오는 빨간빛은 이미 그를 지나갔지만 뒤에서 오는 파란빛은 아직 그에게 도달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측자 O는 두 전등이 동시에 반짝였다고 생각하지만, 관측자 I는 빨간 전등이 먼저 반짝였고 파란 전등이 나중에 반짝였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서는 두 사건의 동시관계 내지는 선후관계가 두 관측자에게 서로 다르게 관측된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지의 여부가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동시성(Simultaneity)의 문제' 라고 하는데, 여기엔 사건의 선후관계가 바뀌는 것까지 포함된다. 선후관계의 바뀜을 포함하여 사건의 발생 시간을 두 관측자가 서로 다르게 관측한다는 것은 두 관측자가 서로 다른 시간의 세계에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의해 생겨나는 또 하나의 특이한 상황이 길이의 수축이다.

정지해 있는 물체의 길이란 그 물체의 양끝 사이의 거리다.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에는 어느 한 순간 물체 양 끝의 위치를 기록하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된다. 이 때, 양 끝의 위치를 동시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특수상대론에서는 두 관측자가 동시관계를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두 관측자는 한 물체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측정하게 된다. 그리고 물체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은 공간의 거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특수상대론에서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뿐 아니라 공간도 달라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운동을 하는 두 관측자의 시간과 공간과 그들 사이의 상대속도는 서로 연관돼있다. 그러므로 서로 분리돼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서로 뒤얽혀 있는 시공간이 된다. 그래서 상대론이 나온 이후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 대신 4차원 시공간(space-time)이란 용어를 쓰게 됐다.

이 4차원 시공간에서는 사건의 선후관계가 바뀌기도 하고, 한 사건의 발생 시간을 두 관측자가 서로 다르게 관측하기도 한다. 두 관측자는 서로 다른 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간의 세계에 산다. 이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관측자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게 된다. 이런 시간의 지연은 빠르게 운동하는 입자가 정지상태의 입자보다 아주 오랫동안 붕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실험적으로 확인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의 사진. 그는 기존의 물리 상식을 뒤집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절대 시간과 공간이라는 고전 역학은 그의 이론으로 붕괴됐고,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에 대한 직관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상대 속도 속 시공간은 서로 뒤얽혀
3차원 아닌 '4차원' 시공간 개념 도입
뉴턴의 '절대 시공간' 이론 붕괴돼

識에 따라 나의 인식 세계 달라지듯
우주는 우리와 대상의 '연기적 그림'

이처럼 빠르게 운동하는 사람이 볼 때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공간의 길이는 줄어든다. 결국,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계와 자를 가지고 있는 셈이어서, 공간의 길이와 시간의 진행 속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공간에 사는 셈이다. 모든 존재자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뉴턴의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의 개념은 여기서 붕괴된다. 관측자와 관측 대상 사이에 서로 다른 시간과 서로 다른 공간이 형성돼 있는 우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상대론적 우주'에 산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중력이나 가속도의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상대론으로서 특수상대성 이론보다 보편적인 이론이다. 일반상대론은 중력과 가속도의 등가 원리에서 출발한다. 다른 물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우주 공간을 여행할 때, 우리 몸이 뒤로 쏠리는 경험을 했다고 하자. 우주선의 외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우주선이 가속해서 몸이 뒤로 쏠리는 것인지 아니면 큰 중력을 내는 물체가 뒤로 다가와서 몸이 뒤로 쏠리는 것인지를 (어떤 물리적 실험을 통해서도) 구별할 수 없다. 이처럼 중력과 가속도의 효과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무중력 상태에서의 물리법칙을 가속 운동을 하는 관측자가 기술하면 중력이 존재하는 시공간에서의 물리법칙이 되는데, 이것이 일반상대론이 기술하는 세계다. 그런데 가속도가 있게 되면 빛의 경로가 굽어진다는 것을 간단한 사고실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여기에 중력과 가속도의 등가 원리를 적용하면,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는 빛이 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빛이 휜다는 데서 보는 바와 같이, 중력이 있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휘어진 공간이 된다. 이는 시공간의 구조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과 그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턴역학에서 시간과 공간은 우주의 전제조건이었다. 어떤 상황이나 구조와도 상관없이 우주의 배경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시간과 공간을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이라고 한다.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존재 여부나 배열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주어진 시공간이다. 이와 달리 상대론에서의 시공간은 우주와 함께 형성된 것이어서, 우주의 구조와 배열에 의해 정해지는 시공간이다. 우주 안의 물질과 상관없이 저절로 주어진 우주의 배경 같은 것이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물질과 그 분포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공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관측하는 사람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시공간이다. 우리는 시공간 속에서 살지만, 그 시공간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포함한 우주 전체다. 우리는 그런 상대론적인 우주에 살고 있다.

우주는 곧 '연기적 구성체'

일상생활에서 상대성을 느끼지 못 하는 이유는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주변의 물체가 지표면과 함께 움직이므로 지표면을 절대공간의 좌표계로 삼아도 대부분의 경우 괜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역학에서도 갈릴레이의 상대론이 성립하므로, 관측대상의 속도는 언제나 대상과 우리 사이에 형성된 연관성 위에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고전역학에서조차 대상의 관측치가 주관과 상관없이 관측대상의 물리적 속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관측대상의 속도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도 달라진다. 따라서 관측자와 상관없이 관측 행위 이전에 설정된 시간과 공간인 뉴턴의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의 개념은 부정된다. 각각의 관측자에게 서로 다르게 부여되는 공간과 서로 다르게 흐르는 시간은 관측이라는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시공간이다. 그건 관측자와 관측 대상 사이에 형성된 상대적 혹은 연기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시공간이다. 여기서 더 나가 일반상대성 이론에서의 시공간은 우주의 존재자들에 의해 형성되는 시공간이다. 그러므로 일례로, 빅뱅 이전의 시간이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시공간은 우주의 구성물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우주의 배경이 아니라 우주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불교적 세계관의 바탕은 연기론이며, 연기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의미는 시간적 인과성이다.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지만, 상대론적 효과에 의해 원인과 결과의 뒤바뀜이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상대론에서 시간의 선후관계가 뒤바뀌는 것은 인과적 연관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과적 연관관계가 맺어져 있는 두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선후관계가 바뀌지 않으므로, 시간적 선후 관계가 뒤바뀔 수 있는 특수상대론에서도 인과율은 부정되지 않는다.

연기론의 두 번째 의미는 상호연관성 내지는 상호의존성이다. 모든 존재는 연관과 의존의 관계 위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상대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우주의 배경으로 생각했던 시공간까지 우주를 구성하는 존재자와의 연관성 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호 연관과 의존의 관계가 존재자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존재자와 시공간 사이에서도 성립한다. 이는 시공간이 우주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는 것이며, 시공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가 연기적 구성체라는 것이다.

연기론의 세 번째 의미는 나에게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대상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그려지는가 하는 인식 과정에서의 연기에 관한 것이다. 대상과 관측자 사이의 상호 연관 관계에 의해 대상의 관측치가 정해진다는 것이 상대론이라면, '색성향미촉' 의 객관이 '안이비설신' 의 주관에 와 닿으면서 그 인연화합의 결과로 안식에서 의식까지의 식(識)이 형성된다는 것이 불교의 인식론이다.

관측자의 운동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대상의 관측치가 달라지듯이, 아뢰야식과 말라식과 나에게 축적된 경험이 어떠하냐에 따라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는 달라진다. 나에게 나타난 관측치가 그대로 관측대상의 물리적 속성이 아니듯이,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은 '색성향미촉법' 이 그대로 객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색성향미촉법(無色聲香味觸法)' 이지만, 주관과 객관의 무한한 어우러짐에 의해 식의 세계가 인식 주관에게 나타난다. 그건 우리와 대상 사이에 상대적으로 혹은 연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이므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누가 그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일수사견(一水四見)이 성립하는 상대론적이고 연기론적인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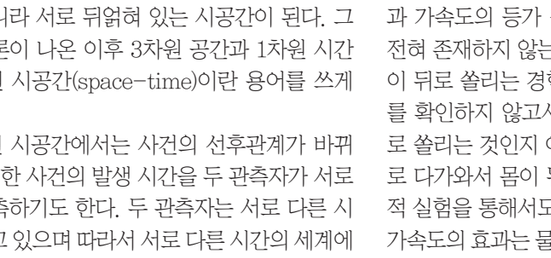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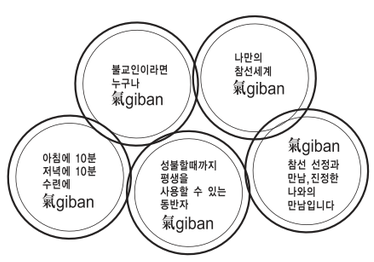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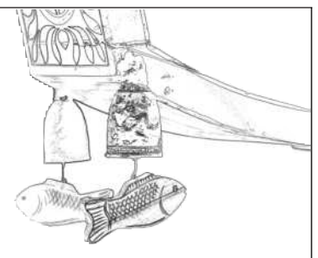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삼악도로 가는 첫째 원인은 중생들이 허튼 욕심을 내기 때문이요, 극락정토로 가는 육바라밀의 으뜸은 아낌없이 베풀고 사는 보시이다.

- 자경문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함께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10-3774-4099



60세 이상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아이 있어도 무관
* 가족처럼 계실 분만 연락바람
010-4587-1011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사 찰 행 사
조상천도재, 49재,
각종점안식, 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지전무,
극락연등무, 축원무 등
영남범음범패[통범소리]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010-3189-0602

일체 무상 보시해 드립니다
팔공산 어산 40년 전통전문의식
천도재(49재), 예수제,
기초교리강좌
법문, 회심곡, 방생법회,
바라, 승무
무릉선원
010-6577-8385
010-6513-05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대구 청계사)
010-3524-8930

백 발 백 중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수능 상담 무료
가족의 기운을 받자
기적의 촛불기도
하루 3천원,
축원문 쓴 당일까지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041)544-4441
한학선원 (마루대절)

장례식장 염불. 49재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금 50만원. 불전소유
장례시 염불은 20만원
독경할 스님 3분 초청
신분증, 주민등록사진
보증금 2천만원, 1년계약
070-8849-3011
사회적 상부상조 협업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189-8745

노후에 부처마을
불지사에 편안히 모십니다
노부부 10분정도,
소정의 보시금으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031)332-9001
070-4128-7011
010-8736-7301
동선 합장

공양주 보살님
꼭연락부탁드립니다
(경기도)
010-3770-53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함)
02)917-3363

특수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함께 할 종도를 모십니다
부처님의 원융평등 사상과 관음보살의 자비 보시 정신을 실천하는 모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분담금 없는 종단 * 등록비 없는 종단
* 금전과 감투싸움 없는 종단
우리 정겹게 수행하며 봉사하는 종도로 함께 합시다
불교통합조계종 054)439-4600
경북 김천시 봉산면 신암로 415

천도재, 49재,
의식 배우며
기도하실 행자,
기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상도 가능함)
대전
010-4220-0566

천도재 20만원,
제사 20만원,
49재(77재) 140만원
천도 정성껏 올려
드립니다
010-8412-7623
문수암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사고 없는 軍 생활
군 입대 병사, 부모, 장교, 부대장
특별상담과 기도
- 부모님의 역할, 자녀들의 교육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전한 군복무
010-6789-5008
꿈바위불교교육원

산새가 울고 물 좋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
수정사에서 암투병 환자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을
모십니다
제사한 사항은
031)333-501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

불심이 깊은
독신자 60대
주지 보살을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1-9571-6559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마음을 치유하는
심 리 상 담 사
자격취득안내 (국가등록자격 08-0538)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상담사
온라인동영상 120강좌(교재 9권) 제공
www.koredu.ac
한국심리상담교육원 ☎ 02)766-9400

모 십 니 다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인천 지역에 연고나
포교와 수행에 뜻이 있는
스님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대중포교에
큰 뜻이 계신 스님을 모시고자 하옵니다
* 모시는 나이 : 50세이상 60세까지
상담전화 02)552-4000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보광사
• 주 지 : 무아 (강관수)
• 주 소 : 대구 동구 불로동 382-8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계율청정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지월 법사의
사주학 강의
사주상담의 전문가 시대를 선언!
지월법사의 옥문관 사주학 강좌
신강신약론과 격국용신론 신살론의 뿌리를 뒤엎은 옥문관사주학!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사주학. 격국용신론
10년 20년을 해도 아리송한 사주학을 붙들고 지낼 것인가?
조상타령 귀신타령 빙의타령하는 사주학이 사주학인가?
사주를 보고 운명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주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주학입니다.
교재 "운명그물음에 답하다." 사주학과 운명 상담학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1번출구
010-2395-0472 지월 최명진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욕심이 많으면 고통이 되는 줄 깨달아라.
생사에 시달림은 탐욕에서 비롯한다"

- 불설팔대인각경 -

사 찰 안 내

토굴(급)안내
- 위치 : 김해 대동
- 총부지 : 60평
- 건물 : 방 3개
- 몽땅 : 7천 5백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 위치 : 양산 신도시 10분거리
- 대지 : 1,350평
- 건물 : 33평,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방12개
- 버스주차장 완비, 산세수려함, 계곡물 철철
- 은행안고 4억 인수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17번길(만덕동 다산타워505호)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통 051) 863-6661

사찰(급)안내

- 경주시 폭포 사찰 양도
- 단청법당36㎡. 삼성각29㎡
- 요사채90㎡.지장전.토지6,400㎡
- 전통있고주변폭포와 청정계곡사찰
- 양도금액 : 12억5천원(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경전 봉안 불사중

010-3403-3355

대형사찰부지(절터)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자연석 기도처 돌산 이동가능한 일급자연석
- 수백억원 가치 용바위,거북바위, 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IC에서 5분거리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산세수려하고 소나무 경관 멋진도량
- 지적 4,460평 종교부지 838평, 전 70평
- 법당 30평(조립식) 산신각 9평(목조) 구돌방 1개, 요사채 22평 외 토목공사
- 가액 : 2억8천

010-8484-3917
010-2757-234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서울
◎ 부지 : 30평 ◎ 부지 : 90평
◎ 인법당 : 30평 ◎ 법당 : 30평
◎ 시내저렴한토굴 ◎ 요사 : 30평
◎ 양도 : 3억5천 ◎ 양도 : 7억5천

※ 30년신용과,믿음으로 일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 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비밀보장>

*포천시 전망좋은 사찰양도
*건물 3동 340㎡ 법당, 요사, 공양간
*토지 2200㎡.산속이며 조용한 사찰
*양도금액 : 5억원(융자가능함) 실인수가 3억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별장 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5천, 조절가능

010-3604-547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0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2000만원

010-4855-7205
010-3036-767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목조, 천불전(목조),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 좋음
- 250년된 사찰
- 가액 : 15억

010-8625-1225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 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 2층 목조 약 22평
- 칠성, 용왕, 산신조성,
- 지하철 5분, 조용한 사찰,
- 보시고결정
- 가액 : 1억 5천만원

051) 255-32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 평수 230평, 대웅전 15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 사정상 급양도(밀양IC근교)
- 가액 : 2억 3천(가격 절충)

010-3456-1153

수도권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 평수: 2층 건물의 2층 80평
- 구조: 법당.대방3.주방거실. 욕실.화장실.가스보일러
- 서울근교 도심포교적지. 아파트주변.검단산 등산로입구
- 가액: 합9천만원.월130만원

010-9669-1358

포교원 안내

- 위치: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 A급
- 3층 건물중 2층 40평
- 주불 아미, 관음, 지장, 소불, 인등
- 가액 : 전세 2천 월 22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비품대 및 시설비 1,700만원 약간절충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경주 톨게이트 근처 시내 7분거리 신경주역 10분거리
- 평수 : 대지 252평, 본체4칸집, 한옥인법당
- 방 2칸, 다용도실, 화장실, 뒤쪽요사채, 방3칸, 공양간 별도, 바깥화장실, 마당잔디, 연못, 정자3평, 산신각, 마을맨 윗집, 바위에서 물 내려옴, 심야보일러, 방 따뜻하고 온수 따로 나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7천 8백만원

054) 232-4853 / 010-8518-551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부안 변산반도 뒤로는 소나무 숲이며 앞으로는 저수지도 있음
- 총평수 130평
- 요사채, 법당, 종각, 접견실, 미륵부처님, 산신당
- 가액 : 1억 6천만원

010-6478-156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삼전동 5-3 잠실관광호텔 앞 • 50평
- 석가모니 후불 1,000불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6천만원 들었으나 사정상 급 안내 3천만원 합 5,000만원

010-2225-254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430-1
- 삼존불, 총 50평
- 법당1, 방3, 공양실
- 가액 : 보증금 300만 1년 200만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6570-2970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시내에서 20분거리
- 대지 및 종교용지 약 590평 건평 약 80평, 단청기와법당 15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동 약60평
- 요사채1동 :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층 황토원룸 방1, 화장실
- 요사채1동 : 방1 거실, 다용도실, 화장실
- 가액 : 3억 (법당 집기 및 요사채 집기 일체 포함)

010-4320-8842
010-5114-0172

암자 부지 안내

- 위치 : 문경읍 고요리 산 123-2
- 면적 : 210평 건물 시멘트 단층 주택 16평
- 토지이용 : 계획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 진흥지역
- 가액 : 1억
- 지상물 일체 포함

010-8555-4480

토 굴 안 내

- 위치 : 강릉 경포대 옆 사천해수욕장 뒤(낮은동산) 최고의 위치
- 큰불사 할수 있는 명당터임
- 사용대지 : 야채 밭 포함 약 300평 (1년 도지 20만원) 법당 외
- 방4 화장실2, 목욕탕1,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종, 집기일체
- 가액 : 3,850만원(건물 법당양도)

010-2461-3014

사찰로 좋은곳(한옥)

- 위치 : 홍천 → 양평 서울방향 4차선 6번국도 옆
- 대지: 800평, 사유지 1,000평 사용중,
- 건평: 약 100평, 순수 고건축한옥, 큰방1, 작은방2, 대형주방과 홀
- 가액 : 상담 후(절충가능)
- 카톡으로 사진 전송 가능

010-8841-3387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남부동
- 대지60평, 건평40평(2층건물)독채 시청,남부시장 걸어서 약5분,
- 삼존불, 소불, 연꽃크리스탈인등
- 신중탱화, 영가단, 법당연등설치
- 에어컨, 1.2층도시가스, 가스보일러 (시설비 일체무료로 드립니다)
- 가액 : 2억 5천만원

010-8669-5665

사찰불사로(급)안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25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9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 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주안 가정법원 등기소 전철역 아파트단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카페거리 1분에서 10분거리 위치
- 시설 : 단독 2층
- 대지 : 건평5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원목 조각)
- 가액 : 3억 8천

010-8941-148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1196-2 삼호복개천
- 아미타 삼존 후불 탱화
- 대형신형에어컨1대, 붙박이장2 방2, 주방별도, 법당
- 총평수 43평, 3층 무료주차장 수십대 가능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비품대 900만원, 조절가능

010-3589-811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도청 10분, 도립공원등산로
- 사찰, 연수원, 예술공방 최적지
- 자연경관최고, 천평, 황토건물 50평 2층
- 경내 500년 큰나무, 연못조경 옆큰저수지
- 오래된 돌담, 국유지 200평
- 가액 : 9억(전세가능)

010-9805-552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 약 800평, 임야 :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

010-9395-667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대지 156평, 법당 1동, 요사 2동 심야전기 2,
- 삼존불, 소불, 108불, 신중칠성탱화, 집기일체양도
- 가액 : 일억삼천만원

010-8900-48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010-2772-721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사당동 (이수역 부근)
- 30평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왕, 조왕탱화,
- 인등, 연등 500개정도 시설 완비, 주차장있음
- 가액:보증금 3천만원 월 12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7173-6690

포교원(급)안내

- 강원도 동해시 시청 옆상가 2층 독채
- 상가평수 50평(등기평수보다 넓음)
- 보증금 : 2천만원, 월세66만원 (부가세 관리비 포함) 시설비 : 1천5백만원
- 법당, 삼성각, 공양간 완비 방2개, 화장실 겸 샤워장 2개
- 즉시법회 가능합니다 (소승 건강상 급 양도)

010-9018-6656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신도시 아파트 밀집
- 지역 포교적지
- 대지: 149평, 법당 20평
- 요사 17평, 요사 7평
- 법당 기와 단청
- 가격 : 6억 3천만원

010-3811-546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010-4725-5907

사 찰 안 내

- 위치: 인천 전철역에서 5분거리 교통 정말 편리합니다
- 평수 : 107㎡ (32평)
- 시설완비,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 월 35만원
- 시설 및 비품은 상담후 조정
-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032) 881-1935

토굴월세/사찰전세

- 위치: 대구 주택가
- 토굴 54평
- 법당, 공양간, 방3개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300만원
- 도심의 사찰 전세도 구합니다

010-2168-28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

010-6288-906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양산시 평산동
- 1층 건물 100평
- 시설일체 특
- 주차시설완비, 온천수 펑펑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가액: 전세 3,000만원 월세 30만원

010-3574-3303 스님
010-3577-9947 보살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칠서 용성리 낮은동산 자연 연밭 옆
- 사용대지 : 지주따로 지상권만 20평
- 방2개, 황장실2, 욕실 1
- 1년 도지 5만원
- 삼존불, 탱화, 집기일체포함
- 가액 : 2,500만

010-4558-360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 사찰 최고자리
- 대지 200평, 건물 150평
- 가액 : 은행 2억5천 안고 3억 5천 인수 급안내

(주)한길부동산중개
연제구 / 서보호, 이세하

010-3808-4499
051) 925-3800

사찰(전원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마산합포구 자동차 전용도로옆 창원 마산시내 5-7분거리
- 대지 160평, 건평 80평, 1-2층 양옥기와집
- 법당 20평 아미타삼존불 주차장완비
- 1층 근린생활시설용도, 방5, 욕실1, 화장실5, 철학최적
- 요사채 40평, 공양간 20평, 별도 다용도실 30평
- 가액 : 3억4천(융자1억8천포함)가액 절충

010-8008-79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야산
- 평수 33평, 방 2칸, 법당 20평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9798-1091
010-3738-6393

(신축)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 면적 :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 (방2, 화장실2, 컨 1동)
- 가액 : 융자 3천안고, 2억 2500만원

010-8517-852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세재 조령산자락 화령고개길 100미터 접
- 아담한 옛날 암자
- 산신각1, 대웅전1, 요사채3
- 등기건물대장에 개인소유로 된 사찰용지 220평
- 전 1,290평, 합 1,500평
- 가액 : 1억 9천 500만원

010-9336-1150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반송동 소재
- 5층 중 3층, 33평, 법당 20평,
- 삼존불, 칠성, 산신, 신중 관음소불 100불, 방1, 주방, 실내화장실
- 집기일체 준비되어있음
- 가액 : 1. 500만원 30만원 2. 1,000만원 25만원 시설비 1,300만원(조절가능)

010-5541-237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사찰로 가능함
- 대지578㎡, 전 274㎡, 건물30평(삼존불) 법당, 방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돌밤나무도 있음
- 가액 : 8,500만원(조절)

010-3321-68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마을 지나 산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량
- 법당 30평, 요사40평 대지 465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1-503-0517

사찰터 안내

- 위치 :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982번지
- 답 320평
- 삼면이 소나무 울창하고 앞쪽 시원한 물이 보이는 아주 좋은 터입니다
- 사찰 전원주택 팬션 적합
- 정남향 좌청룡 우 백호가 잘 어우러져 있음
- 가액 : 7,500만원. 건축 허가 되어있음

010-3544-9777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붓다락키따 스님 (보리수선원장)

〈4〉 위빠사나 수행법

"고통을 없애려면 현재를 알아차려라"



무색계 선정 수행 5가지

그 다음으로 사마타 수행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무색계 즉 5선정부터 8선정까지 갈고 닦는 수행입니다.

음식 관찰 1가지 음식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음식을 매우 좋아하여 식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식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적당하고 올바른 잠을 취하기 어렵고, 알맞게 잠을 자지 못하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음식을 관찰할 때 다른 것은 관찰하기 어렵더라도 씹을 때만큼은 눈을 감으면서 씹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알맞은 양만큼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먹는 것과 자는 것, 성적인 것은 한계를 모릅니다. 음식을 먹을 때가 탐 · 진 · 치가 일어나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얼마나 음식을 알맞게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알아차림을 지니고, 지금 음식 먹는 것을 알면서 먹는다면 여러분은 탐심 없이 다만 음식의 맛을 알면서 먹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모든 것을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 네 가지로 구분해서 아는 수행입니다.

이와 같은 40가지 수행방법은 산만하고 방황하는 마음을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40가지 모두 깊은 선정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자애는 3선정까지 평정심(우빽카)은 무색계 4선정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행법 '마하 위빠사나'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법은 '마하 위빠사나' 입니다. 삿까 종족 달력으로 103년, 인도력 4월 15일 보름날. 우루웰라 숲 마하보디 나무 아래에서 금강좌로 앉아 계실 때, 악마 마라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붓다가 될 분이 앉아 있던 자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싯달타는 미동도 없는 상태에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자리에서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첫 번째 밤저녁 6시~10시에 초선정-2선정-3선정-4선정에서 과거 전생을 모두 아는 지혜숙명통를 얻었습니다. 숙명통에도 깊이가 있는데 한 전생의 일을 기억하거나, 두 전생의 일을 기억하는 숙명통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얻으신 숙명통은 기억하고 싶은 기간의 한계가 없는 첫 번째 생부터 과거 전생을 모두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수많은 세계의 소멸과 생성을 알 수 있는 숙명통입니다. 이 숙명통은 전생 시의 이름, 가정, 부모님, 신분, 경험한 일들, 당시에 먹었던 음식, 걱정, 기쁨, 죽음까지 기억할 수 있는 숙명통 중에서도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밤중 밤 10시~오전 2시에 눈으로 아무리 먼 곳, 이 세상뿐 아니라 공간을 뛰어 넘어 저 세상까지 어느 곳의 사람을 알고 싶으면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는 지혜(천안통)를 얻었습니다. 이 지혜는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감각 기관을 모두 활용하여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임종할 때 임종 마음마저 볼 수 있고 어머니 뱃속에 입태한 마음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는 뛰어난 지혜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밤새벽 2시~6시 수많은 생을 돌고 도는 윤회의 근원이 되는 모든 무명과 1,500개의 번뇌를 한 개도 남김없이 완전히 소멸시킨, 모든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아라한의 마지막

지혜인 누진통을 얻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모두 얻었기에(삽빈뉴따 냐나)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부처님이 비로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하와지라 위빠사나(Mah¤vajira vipassan¤)를 하셨습니다. 마하와지라 위빠사나 지혜(Mah¤vajira vipassan¤ ¤a¤a)로 몸과 마음을 특성(Lakkhan¤)으로 그 수행 대상은 연기법입니다.

마하라는 것은 '크다' 는 것을 말하고 와지라는 '번개, 금강' 을 말합니다. 삼특성으로 연기법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마침내 깨달은 분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이때가 수요일 새벽으로, 동쪽엔 여명이 밝아오고 서쪽엔 보름달이 아직 걸려 있는 어둡지도 밝지도 않을 때입니다.

수행은 무엇이고 위빠사나는 어떤 것?

'나' 라고 착각한 몸과 마음을 지혜로써 드러내고 명확히 알 때 까지 반복적으로 행하여 단지 몸과 마음의 성품뿐임을 분명히 아는 것. 개념적으로 '나' 라는 실재인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위빠사나라는 저울과 곧은 자[尺]로 현재의 행위, 상태, 상황, 능력, 조건을 분명히 알아 어리석음과 착각, 왜곡, 전도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위빠사나는 나를 그리고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방법으로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데, 이는 우리의 감각기관은 항상 밖을 향해 있기에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나면 마음이 소리, 냄새를 따라가게 되며 이때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위빠사나 수행은 이러함을 뒤바꿔 놓고 나를 안으로 돌려서 나의 내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통찰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며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자신을 더 나은 자신으로 만들고, 이러 함은 결국 타인을 돕는 것입니다. 수행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입니다. 많은 시간을 내어 자신의 번뇌를 극복하고 마음을 청정히 한 그 힘은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기에 진정한 이타적 삶입니다. 간략히 위빠사나의 특성을 말하면

○ 현재의 삶의 방식습관과 행위의 반대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나감.

○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전도된 환상, 착각의 상태를 높은 상태로 이끔.

○ 지식, 사유를 쌓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에 대해 모르고 있나를 정확하고 분명히 알고,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함.

○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부정적인 것을 소멸시킴.

○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며 남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음

감각기관은 항상 밖을 향해있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본다

위빠사나 수행은 내면을 통찰
현재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며
더 나은 자신 · 이타적 삶 살게 돼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질문

위빠사나는 단계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몸 · 느낌 · 마음 · 법에 알아차림을 두면 인식 이전의 순수한 마음상태로 돌아가 몸을 그리고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게 합니다.

나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될 때 남의 느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남의 느낌을 알지 못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갈등이 일어나며 이것이 불만족, 괴로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면 나를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식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타인의 인식과정을 편견 없이 이해하게 되며,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게 됨으로써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 또한 편견 없이 보게 되며 의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위, 권력, 명예, 지식, 성별 밑에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집니다.

▶ 왜 위빠사나 수행을 해야 하는지요?

자기를 가장 아끼고 잘 아는 사람은 자신입니다. 자기를 가장 괴롭히고 자기에 대해 모르는 존재도 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는 자신을 알아야 도움 줄 것은 주고 능력이 안 되는 것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이란 것을 개념과 관념이 아닌 왜곡되고 전도됨 없이 실재로 보게 되면 몸과 마음뿐입니다. 괴로움, 근심, 걱정을 안고 있는 것을 고통이라고 하는데 모든 고통이 일어나는 곳이 몸과 마음이고, 고통을 해결하는 곳도 실은 몸과 마음입니다. 이 몸과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게 되어 엉뚱한 바깥에서 해결하고자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를 못합니다. 위빠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을 대상을 합니다. 지난 것이나 오지 않는 몸-마음이 아니라 현재의 몸과 마음을 그대로 지켜보기에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고 일어난 문제는 바로 알기에 그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가장 편안하고 안정되게 할 수 있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원숭이와 성난 코끼리에 비유하였습니다. 원숭이는 잠시도 가만있지를 못하고 돌아다닙니다. 코끼리도 평시엔 점잖게 어슬렁거리지만 성냄이 일어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육중한 몸으로 달려 돌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난날들을 회상하고 앞날의 상상으로 종일 구름처럼 그네를 타는 것이 평시의 마음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빈둥대는 것을 마음이 방황하였다 하고,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산만함이라 합니다.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안정되게 하려면 현재에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라는 것은 한 대상의 힘이 소멸한 때를 말하며 미래란 한 대상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을 말하며 현재란 하나의 영향력이 힘을 지금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목이 말랐을 때 과거 물을 마셨을 때를 기억하면 갈증이 약해집니다. 조금 후, 내일 많이 마실 것이라 생각하면 지금 갈증의 고통이 완화됩니다. 심리적 위안이지요. 하지만 갈증의 근본원인은 해결 못한 것입니다. 과거 미래의 심리적 위안이 아닌 현재에 한 방울이라도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현재이며, 어떻게 현재에 마음을 두어야 편안할 수 있는지요? 발이 움직이는 것은 현재입니다. 팔을 굽히고 펼 때, 허리를 굽히고 펼 때, 배가 움직일 때, 앉았다 일어설 때, 침 넘어갈 때, 성냄이 일어날 때, 답답함을 느낄 때, 기분이 좋을 때, 고요할 때 등 이러한 현상을 아는 것은 현재에 마음이 있고, 하나의 현상이 지금 힘을 발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은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마음이 먼저 가서 알고 있는 것들로서 내가 뒤쫓아 가서 그대로 확인하여 그대로 알고 있을 때 그 마음은 현재에 있게 됩니다. 마음이 현재에 있을 때만 마음의 안정과 현상을 그대로 알게 합니다. 현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 자리엔 관념이 대신 차지해 모양, 형태, 상상으로 왜곡시키고 착각하게 합니다.

▶ 수행은 왜 해야 하는지요?

지금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으로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극단으로 좋거나 아니면 싫어함으로, 낙천적이거나 염세적으로 또는 과대나 과소로 보려고 합니다. 같은 하나를 놓고 왜 좋다, 싫다하지요? 왜 있는 그대로는 볼 수 없을까요?

지금의 마음이 좋고 낙천적이면 더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싫고 비관적이고 과소일 때엔 불쾌하고 못마땅한 마음이 일어나며,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의 마음 때문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멀리하여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 하는 일입니다.

○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영양분의 공급이 있어야 거친 행위와 불필요한 생각에서 떠나 안정과 침착함, 지금에 만족하게 됩니다.

○ 수행하는 것은 상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이고 잘못됨을 알고, 그러한 반복에서 벗어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 수행은 원인과 결과의 경험적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붓다락키따 스님이 법문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보리수선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역2길 12호 <물금역에서 2분거리>
- 건물 : 3층(3층건물) 옥상 50평 , 근린생활 시설
- 미타전:나무아미타불 2자반, 관세음 2자, 대세지 2자, 지장보살 입상, 대형 후불탱화, 별도 지장탱화
- 침실, 서재겸 큰방, 공양칸, 침대, 냉장고, 신장, 생필품 모두있음(책장외)
- 가액 : 보증금 500만 월 40만 비품 800만

010-5593-798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 약 90평 2층.. 공양간 / 3층..법당 / 4층..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 주방기구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56-109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대지 : 약 500평 양가옥 3채 법당
- 방 2개, 큰주방 1개, 화장실 2개, 웃채 대웅전 30평 인법당, 방 4개. 화장실 2개
- 주변경관산세수려
- 가액 : 2억 전세 3천만원

010-4628-3317
055)356-1651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 평수 : 58평
- 법당 시설 완벽,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3층, 엘리베이트 사용
- 가액 : 전세 3,500만원 월세 60만원(주인과 조절 가능) 시설비: 답사후 조절 가능

010-3402-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 대지 60평
- 건평 1층 30평, 2층 법당 27평
- 석불, 석등
- 가액 : 2억 9천만원

010-3695-4575

절터자리로 좋은 곳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사계절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음
- 토성작업이 완성된곳
- 마당까지 대형차진입
- 3천여평 외
- 가액 4억(현세에 맞지않음)

010-6253-3107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망고, 체리, 아보카도 등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갤러리 색즉시공



신장

무엇인가 지켜내는 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일
저 꾹 다문 몸뚱이를
무엇이 흔들 수 있을까
천년 세월도 무릎을 꿇은 지 오래

한 한 시간만 돌처럼 살 수 있다면
한 한 시간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사리탑 지키는 신장처럼
흔들리는 몸뚱이 꾹 다물고
그 무엇이든 내 뒤에 있는 것들
지킬 수 있었으면

사진 · 글=박재완 기자

동서고금의 진리 '오늘을 살아라'

Buddha in Comic & Ani

⑮ 호소다 마모루의 '시간을 달리는 소녀'



호소다 마모루의 '시간을 달리는 소녀' 표지

우리들은 한 번쯤은 '시간을 돌리고 싶다' 는 생각을 한다. 이 같은 과거나 미래로의 여행을 꿈꾸는 것은 희망과 회한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타임머신' 과 '타임리프' 등을 상상했고 무수한 영화, 소설, 만화의 소재로 사용됐다.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데뷔작 '시간을 달리는 소녀(2006)' 도 이 같은 상상력의 발로에서 비롯됐다. '타임리프' , 시간여행이라는 소재는 호소다 마모루는 여고생을 주인공으로 삼아 밝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진행시킨다.

본래 '시간을 달리는 소녀' 는 일본 작가 쓰쓰이 야스타카가 1965년에 쓴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이후 1983년 오바야시 노부히코 감독의 동명 실사영화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작품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방출된 '비운의 인물' 호소다 마모루가 감독 맡아 특유의 유머 코드로 풀어내 원작과 실사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게 됐다.

우연치 않게 '타임 리프' 의 능력을 가지게 된 한 여고생의 좌충우돌 성장기인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주인공 곤노 마코토는 쾌활한 17살 소녀다. 평온한 일상의 나날이었지만 사건의 발단이 되는 7월 13일은 왠지 다르다. 아침부터는 난데없는 쪽지 시험에, 가사 시간에는 실수로 불까지 냈다. 친구와 한탄하며 걷는 도중에는 왠 덩치가 날아와 자신을 뭉겠다. 그리고 방과 후 과학실 구석에서 호두처럼 생긴 괴상한 물체 위로 넘어졌다. 그 괴상한 물체가 바로 '타임머신' 이었다.

그러나 진짜 사고는 철길 건널목에서 일어난다. 갑자기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리고 전차는 다가온다.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마코토는 기차와 부딪치게 된다. 하지만 다음 순간 마코토는 자기가 시간을 뛰어넘어 살아 있음을 발견한다. 달리면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이다. 신바람이 난 소녀는 13일의 실수들을 바로잡고 노래방 시간을 늘리고 저녁식사 시간에는 철판구이를 먹은 날짜로 돌아간다.

처음 마코토의 상의를 받고 "네 또래 여자아이들에게는 가끔 있는 일이야"라고 안심시켰던 독신녀 이모는, 이즈음 "그런데 네가 이득 본 것만큼 손해 본 사람이 있지 않겠니"라는 준엄한 교훈을 깨우쳐준다.

시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마코토는 자신의 실수들을 만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인과의 시작이었다. 이모의 말대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더욱 꼬여 돌아온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바로 '시간' 이다. 제목 그대로 달려서 시간을 뛰어 넘는 소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소녀가 시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막 가졌을 때에는 실수를 만회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기도 했다. 하지만 곧 다가오는 재앙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돌아가거나 아예 다른 요소가 돼 돌아온다.

불교의 연기사상은 시간에 대해 이시적(異時的) · 동시적(同時的) 상호의존성을 두루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전자는 원인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후자는 동시에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기사상은 시간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시간이란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하므로 절대적 실체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불교적 시간관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 화엄사상의 '일념즉시무량겁' 으로 확장된다. 친구 치아키가 미래에서 온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서, 마코토는 치아키가 미래에서 온 이유가 문화재 수복사인 이모가 복원하고 있던 그림 때문이라는 듣게 된다.



주인공 마코토가 시간을 돌리기 위해 달리는 장면. 감독은 타임리프를 통해 시간의 상호연관성을 알린다.



주인공 마쿠토와 치아키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장면. 이를 통해 몇 겁을 뛰어넘을 시간을 이어주는 매게체가 생긴다.

고교생 소녀 '타임리프' 소동기
이시·동시적 시간관, 연기 맞닿아
당신은 누구에게 기억되고 있는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린, 자신이 치아키의 '타임 머신(호두 같이 생긴 무엇)' 을 가지기 전으로 돌아간 마코토는 치아키를 다시 미래로 되돌린다. 그리고 약속한다. 그 그림을 미래에서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그 둘 사이에는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있게 해줄 매개체가 생겼다. 마코토에게는 앞으로 나갈 꿈을, 치아키에게는 추억이라는 연결고리가 생긴 것이다. 몇 겁을 뛰어넘을지 모르는 시간을 한숨에 이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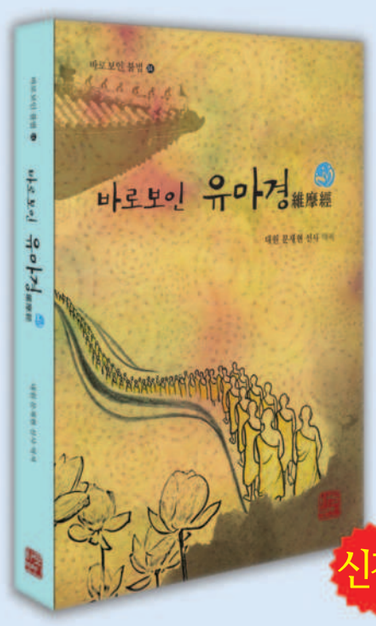
노을지는 강변에서 서로에게 "미래에서 기다릴게", "응 갈게. 달려갈게"라는 말을 전하는 장면은 영겁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마코토는 다시는 '타임 리프' 를 할 수없다. 다만 흐르는 시간 속에 자신의 성장 · 미래 · 사랑을 향해 천천히 달려가며, 여여(如如)히 살아가는 하루 하루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었던 시공간의 초월보다 몇 배 더 가치를 따질 수없는, 시간이 마코토에게 준 선물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67권의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바로 보인 유마경
신간!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니, 불보살님이 교화하는 경지에서의 깨달음의 실경과 신통자재한 방편행을 보여주는 최상승 경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가사의 해탈경〉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바로보인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대행 스님

내 소유라는 것이 없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여러분이 이거부터 알아야 되지 않나…. 내가 벗어나야 아무 데고 가도 간 흔적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면 흔적이 남죠. 아, 요기 한 발짝만 떼어도 벌써 흔적이 나오는데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 고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라.'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서 더 말하라는 겁니까? 벽은 쳤는데요, 봇장이 울리는 건 여러분이지 어떡합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좀 더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일하면서도 생각이 들면 무조건 거기다 맡기고, 조금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시란 얘깁니다. 내가 생각을 안 하면 내 마음이 진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커지질 못해요. 생각을 아주 안 하는데 그게 목석이지,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진화가 됩니까?

우리 배 속에 있는 모든 걸 보세요. 그게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증거물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도 좋고 물에 가도 좋죠? 여러분네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허허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청산유곡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신선하고 좋고, 또 맑은 물이 쉴 사이 없이 흐르는 걸 봐도, 계곡에 가서 맑은 물이 흐르고 고기가 노는 걸 봐도 싱그럽고 좋지요. 그게 여러분 고향이에요. 수없는 겁을 거쳐서 인간까지 이렇게 모습을 가져왔고 기어 다니다가도 모습을 가져왔고…. 지금도 여러분한테 꽁지가 조금 붙었습니다. 꽁지 안 붙은 분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흔적이, 꽁지 떨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말짱 벗어나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으로 살 수 있죠. 생각으로 운전할 수 있고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사람까지 이렇게 맛볼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기다란 유체 같은 게 가요. 그건 이름도 모르죠, 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알을 까서 뒷꽁무니에 질질질질 끌고 가서는, 풀을 갖다가 발로 두껍게 알 밑에다 깔고는 풀로 살짝 덮어 놔요. 그런 걸 하나 보더라도, 야! 요렇게 묘하구나. 요렇게 묘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 오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하다못해 요만한 미생물에서부터 그렇게 스스로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까지 돼서도 자식들을 그냥 덮어 주고 입혀 주고 먹여 주고, 이러면서 어디를 나가서 안 들어오기만 해도 안절부절을 못하고, '빨리 들어와야지.' 하면서 걱정을 하고 이러는 거죠. 아마 거기에서는 좀 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요, 그렇게 거쳐 오면서 모였다 바람처럼 흩어지고 모였다 바람처럼 흩어지고…, 이 식구가 말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또 딴 식구들하고 또 만나고, 진화를 좀 하면 진화한 만큼 또 같이 모이고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의적으로 본다면 부모 자식이 따로 없다는 얘기죠. 사는 동안에 같이 모여서 살 뿐입니다. 그러니 착을 두지 마시고 그저 사랑으로써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온통 "너 어디서 자고 왔어? 전화번호 대!" 뭐 틀림없죠. "전화번호 대! 어디서 자고 왔어? 뭐를 어떻게…." 이럭하면 애들이 반항해서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올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었길래 그랬겠지. 너 배고프지 않으냐?" 하고 아주 딱 받아서 안아 준다면 나가서 자라고 발길로 차도 나가서 안 자요, 네? 그런데 착을 두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대접을 해 줘야 하는데, 꼭 내 손에 들어 있는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도 전부 늙어 죽어서 애가 된 거지. 아니, 허허허…. 여러분도 늙어 죽었다가 또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나이를 조금 더 먹었다고 해서 자기가 생산해 놓은 것을 자기 거라고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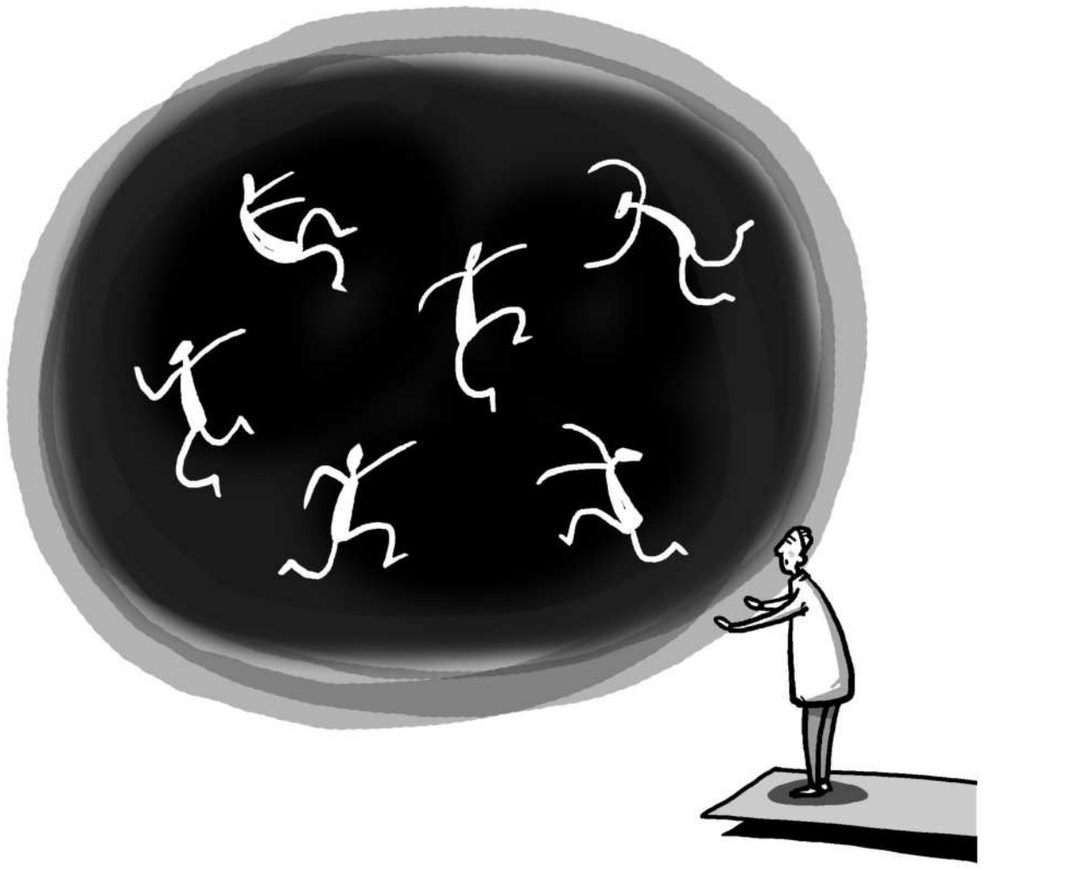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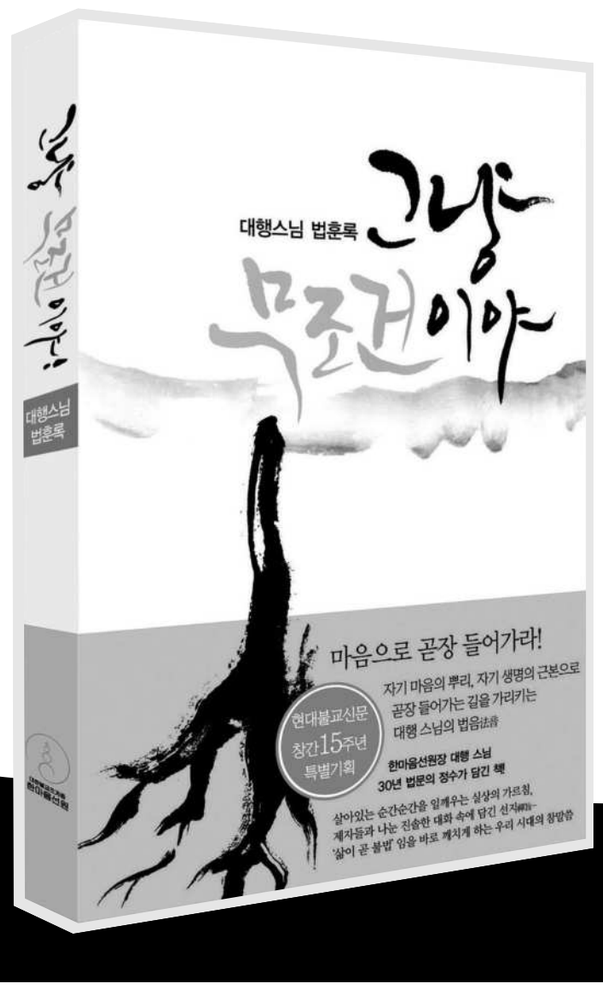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절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저 남의 자식이든 내 자식이든, 남의 부모든 내 부모든 평등하게, 그저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있으면 보시하고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보시하고, 이렇게 무주상 보시를 해서 그저 남을 이익하게만 한다면…. 그리고 또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내 가끔 그러죠. 여기 우리 학생들이 올 때가 있죠. "스님! 이러이러한데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울 때, 평등하게 내 소유라는 것이 없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 소유라고만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를 못 합니다. 요구를 해야 하니까. 요걸 가지고 이것만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넓게 나지도 못하죠. 그래서 어휴, 가슴이 쓰르르하고, 언제적 내 자식 네 자식이고, 언제적 내 부모 네 부모더냐. 모였다가 바람결같이 흩어지는 것이, 스쳐 가는 것이 인생 아닌가. 우리는 방랑객으로서 한데 캠핑 나와서 살다가 날이 어두워지면은 흩어져야 할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그런가? 허허허….

나만 말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나를 튕겨 주셔야죠. 꽃 한 송이도 풀 한 포기도 내가 볼 때에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선 내가 먼저 말할 수도 있지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면 그쪽에서 먼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꽃도요, 저녁이면은 탁 오므라집니다.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홀짝 오므라들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해가 다 졌다. 아휴, 이제 잠자자." 하거든요. 모두가 잠을 자는 건 아닙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냥, 잠을 잔다 안 잔다 없이 그냥 있는 게 국보로서, 소나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푸르름을 가져온 겁니다. 사철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게 다 마음의 뜻이 있죠. 이 마음이 오고 갑니다.

나무에 맞아 죽을 팔자를 가진 사람이 나무에 목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너도 나하고 벗이요, 영원한 친구지.' 하니까 목신으로 인해서 죽을 건데 둘이 아니라는 바람에 목신이 그냥 외려 도와주더랍니다. 하하하…,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부자 사장이 가난한 직원에게 "애, 너도 우리 일을 하고 나도 우리 일을 하고 둘이 아니지 않으냐? 그러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먹어도 같이 벌어먹자." 한다면 고마워서 말입니다, 밤낮을 모르고 일할 겁니다, 아마. 그렇듯이 아니, 자기한테 평등하고 좋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와 자기가 둘이 아니죠. 그러니 일을 자기 일 하듯 하죠. 그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여러분이 주인이 없으면 에너지를 다 뺏깁니다

☞ 29면에서 계속

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죽지 않죠. 물신(水神)도 자기요, 목신(木神)도 자기요, 지신(地神)도 자기요, 관세음(觀世音)도 자기요, 지장(地藏)도 자기요 모두 자긴데 누가 뭐, 끌어가고 오라 가라 할 게 없거든. 이거 벗어나십시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이 아니라 토론이요. 알아도 안다고 생각 마시고 그냥 토론하는 거요, 그냥 말입니다.

질문자1(남): 예, 조금 전에 스님께서 별들도 생명이 다하면 또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저희 지구도 별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생겨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나이가 몇 살이나 됐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었느냐? 또 부처님께서 사생(四生)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네 가지 방법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제일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은 우리가 물론 태생(胎生)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여직껏 얘기를 했는데도 그 질문을 하시는데요. 보세요, 우리는 태생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우리 속에 들어 있는 것도 태생으로 태어납니까? 모두가 화(化)해서 거기 종합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붙듯 그 의식이 붙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바람에 그것도 화해서 자꾸 자랍니다, 거기 같이. 그러니 어떻게 증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지가 세 살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모두 쳐도 세 살밖에 안 되는 거죠, 지구도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 태어난 지 세 살밖에 안 되었다는 거죠, 예? 왜 세 살밖에 안 된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잘 새겨 보면 알 겁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모두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만 별성이 있고 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수없이 있으니까요. 왜 그러면 그것은 껍데기를 벗고 그러느냐? 벗고 작용하는 바람에 에너지가 바로 배출되고 하는 걸요? 우리가 운동을 안 한다면 그건 죽은 별이지 그게 산 별입니까? 또 껍데기를 벗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옷 벗듯이 그냥 이렇게 벗어 버리면…, 그것째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오각형이다 육각형이다, 이렇게도 생긴 별들이, 나이 먹는 대로 우리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불성하고 둘이냐? 둘이 아닙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는 여기 살고 있지만 그 별들로서 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미쳤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조그마하면 조그만 대로 별도 조그마할 거고 우리의 마음이 크면 별도 클 겁니다. 이 세상에 인물이 태어난다면 큰 별이 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별똥이 떨어진다 하는 것도 별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옷이 흘어져서 원점으로 가듯이 그것도 역시 옷을 벗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거리가 너무도 멀고 공기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니까 그것이 다 망가져서 가루로 될 수도 있고, 중간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이 지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흙이 어디서 생겼고 그 먼지가 어디서 생겼는가? 보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끼리끼리들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흙 한 줌이 된다고 그러죠. 물 한 점, 흙 한 점, 바람 한 점, 불 한 점 이렇게 해서 다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치가 있죠. 그렇듯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여기 지구에 그러한 흙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먼지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지구가 무거워서 못 사는 일은 없습니다. 아주 가벼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만물이 살고 있잖습니까? 흙이 아니라면 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흙을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우리가 흙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죽으면 또 흙이 돼 주고 우리가 또 살고 있고 그런 겁니다. 역시 아래 위 전체가 다 돌아가면서 그렇죠, 주고받고 주고받고.

삼천대천세계가, 전 우주가 한 회사일 것입니다. 한 회사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회사에서 전부 부서별로 일을 하고 있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럭하고 있지만 우린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구에 붙어서 사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허허허…. 아니요,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붙어서 사는 벌레입니까? 하여튼 막말을 한다면 벌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마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거기 붙어서 사느냐? 우리는 그 속에서 진화돼서 우뚝 섰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물질로 됐기 때문이죠. 물질로 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부 상대성 원리로 '내가 뺏는다, 먹는다. 내가 하나라도 더 올라가야지. 뺏어야지, 먹어야지.' 하는 먹고사는 것 때문에 모두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것도…, 지금 별성이나 저런 혹성들 이 자체를 본다면 전부 상대성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힘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뺏기게 돼 있으니까요. 보세요, 여러분도 이 주인이 없으면 뺏깁니다. 에너지를 다 뺏깁니다. 그걸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또 자석이라고 하거나 자력이라고 하거나, 자력이 없으면 뺏기듯이 큰 자석이 여기 놓여 있다면 작은 쇳덩어리가 그저 스치기만 해도 그리로 붙어 버립니다. 그렇듯이 이거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량 뺏길 수 있는 겁니다.

>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기 보배!
> 그런데 여러분이 원래 주장자가 있어서 보배가 그렇게 나오는데
> 자꾸 딴 생각이 나오게 옆댕이에서 꿰져요.
>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 나오는 대로 무조건 거기다 맡기고 살자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 사람들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 지구에서도 에너지가 무한량 소멸되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혹성 별성과 마주친다 하더라도 여기에 주인이 없다면 에너지는 소모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지구라는 데가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생명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면 에너지를 다시 벌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구의 수명은 길어진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영원히 보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한번 잘해 보십시오. 왜,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곳이 얼음으로 덮여 있다고 그 옛날 소리처럼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한번 잘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잠자고 있을 뿐이죠.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생명을 내놓는다 한다면, 우리가 이런 도리를 완전히 증득하고 난 뒤에는 모르지만 이 도리를 허명무스름하게 해가지고는 그 잠자는 모든 걸 깨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잠자는 것을 깨운다면 서로 잡아먹을 테니까요. 진화되지 않은 것도 있고 진화된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을, 즉 말하자면 영혼이라는 것을 뺏어다가 막 살 테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남을 거란 말입니다, 이 도리를 모르면. 멀고 가깝고가 없이 말입니다. 엄청난 문제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어떻게 조금 간 거 아냐?' 허허허…. 이럴 수도 있죠. 갔다거나 말거나, 그저 난 누가 뭐래도 관여 안 하고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다 해도 싱긋이 한 번 더 웃어 버리면 덜 늙죠.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 정체를 알고 싶다면, 열심히들 공부하셔서 정체를 알아보세요. 어디 가서 살고 있고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내가 여기만 살고 있는지, 어디 다른 데 또 살고 있는지 그것도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그 잠자는 모두를 깨운다면, 어느 혹성에서나 생명들이 다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마 허다하게 나오겠죠. 뜨거워서 못 살고, 차서 못 살고, 얼어서 못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조절하기에 달렸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에너지를 나르는 데도 멀고 가깝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물질이라야 나르는 데 멀고 가까운 것이 있는 거지, 물질이 화해서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운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닐 거 같습니까?

나무껍데기 하나가 가공이 돼서 어떻게 종이가 됩니까? 그렇게 나무껍데기로 옮기려면 힘이 드니까 종이로 만들어서 옮기면 좋을 겁니다, 아마. 종이보다도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물질이 또 있지요. 여러분이 임신을 하면 물질은 다 없어지고 그 아주 형체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게 딱 그냥 헤아릴 수도 없이 같이 몸속에서 자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수천 배 더 가벼운, 형체가 없는 것을 어느 혹성에 갖다가 뿌려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거를 찬 데다 갖다 놓으면 찬 거 녹으니 좋고…. 그런데 지금 그 작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깨워 놓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발생이 될 것이냐는 문제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허황된 소리, 허황된 살림, 허황되게 내 인생을 그렇게 팽개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나와 여러분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 공부를 꼭 해서 앞으로 그 생명들을 건질 수 있어야죠. 이 도리를 모르는 그 생명들과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속에 있는 이 생명들, 중생들은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서 악으로 내가 무엇을 훔치러 간다고 해도 그대로 따라 줘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자고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 대로 또 따라 줘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이니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을 다스리면서 이끌어 가지고 가야 보살로 화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거부터, 내 혹성에 들어 있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저 딴 혹성에 들어 있는 걸 해결하지요. 내 혹성의 해결도 못하면서 남의 혹성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해 보세요. 아니, 질문 하나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길게 말을 했습니까?

질문자2(남): 아까 그 주장자가 없으면 빈집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게 마음이 허해서 빈집이 되면 세균도 들어오고, 딴 엉뚱한 생각도 들어와서 정신도 어지러울 테고…. 그래서 생각을 해 볼 때에, 선원에 열심히 다니고 경 읽기도 열심히 해서 뭔가에 가까이 가겠다는 의지가 주장자인가, 아니면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해 가지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주장자인가. 다시 한번 여쭤 보려고….

큰스님: 시장 바닥에 나가든 여기를 오든, 댁의 안방에 있든 회사를 나가든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으로 아예 여기서만이 들이고 낼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걸로써 주장자가 선다면 그게 주장자입니다. 허허허…. 그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소유,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자기 보배! 그런데 댁이 원래 주장자가 있어서 보배가 그렇게 나오는데, 딴생각이 나오게 옆댕이에서 자꾸 꿰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모든 걸 다스리고, 나오는 대로 무조건 거기다 맡기고 살자 이거죠.

※위 법문은 1991년 8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비록(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秘錄!"



도서 구입 문의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값 15,000원

이 책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
동원서적/경인문고/홍문당서점/계룡문고/처용서림/세원출판/
춘양당서점/충장서림/홍지서림/영광도서/세기서림/탐라문고
등에서 절찬리 판매중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불자 세상보기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 보았는가



유자효
시인, 언론인

그것은 시(詩)였다. 살아 움직이는 장엄한 시였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응시하는 깊은 눈. 그들을 부여잡는 손. 자신의 가슴에 대는 또 하나의 손. 그 아픔을 함께 한다는 절절한 표정.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저 깊숙한 영혼의 심연에서 울려나오는 지극한 소리였다.

이 경우, 그가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는 아픔을 그렇게 절절하게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던가.

고통 많고 갈등 많은 이 땅의 주민들은 그가 머물렀던 닷새 동안 평화로웠다. 행복했다. 마치 크리스마스 하루 동안 포성을 멈추었던 제1차 세계대전의 병사들처럼...

우리의 평화는, 행복은 이역만리에서 일흔 여덟 살의 노구를 이끌고 그가 와야만 해결될 일이었던가? 과연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가? 이것이 그가 떠난 후 그대로 다시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보며 허탈해 하고, 부끄러워하는 이유다.

순교자의 나라 한국. 가톨릭 포교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참혹했던 조선에서의 순교. 그것은 조상 숭배를 지상의 가치로 여겨오던 조선인에게 제사를 부정하고 조상의 위패를 불사르거나 땅에 파묻게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파리 외방 선교회는 2세기가 지나서야 그들이 조선의 실정에 너무 어두워 천 명에 이르는 순교자를 나오게 됐음을 시인했다. 그 순교자의 땅에 로마 가톨릭의 최고 수장이 찾아와 시복하고 축성했던 것이다. 2백년의 시간을 기다려 기어코 살아나는 시간의 명예. 이것도 또 하나의 거룩한 시였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 꿈틀거리는 시의 시공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붓다는 설법을 하면 게송으로 끝을 맺었다. 그것은 붓다의 시였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아함경은 전하고 있다. 예수는 앉은뱅이를 보고 '치유되었으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고 말한다. 그러자 실제로 그 환자는 일어서 갔다고 신약성경은 전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위대한 정신의 힘이다. 위대한 정신이 내뿜는 말의 힘이다. 표정과 몸짓이 어우러져 발현하는 감동의 힘인 것이다. 교황이 주는 감동도 이런 반열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다녀간 후 한국의 가톨릭 세가 폭증했었다. 이번 프란치스코의 경우도 그와 유사한 예를 보일 것이다. 교황이 보인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세, 한없는 겸양, 그리고 고통받는 자와 아픔을 함께 하는 진실함이 보는 이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종교가 지향하는 방향은 같다. 스님들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입전수수(入廛垂手)를 수행의 마지막 단계로 여기는 것도 성 프란치스코의 청빈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과연 그런 정신이 불교계에 형형하게 살아 있는가하는 점이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찰을 찾아왔을 때, 과연 그들과 아픔을 함께 했는가? 높은 스님들이 중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끝없이 자기를 낮추었는가? 이런 점을 프란치스코는 일깨워주고 갔다고 하겠다. 그것이 프란치스코가 준 선물이었다.

나는 교황(敎皇)이라는 명칭에 반감을 느낀다. 교황은 황제가 아니다. 이태리어의 Papa, 영어의 Pope, 불어의 Pape 어디에도 황제의 뜻을 갖는 곳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톨릭에서는 교황 대신 교종(敎宗)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타당한 선택이라고 본다.

교황의 방문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교황이 평화와 화해를 그토록 강조했건만, 교황이 떠나자마자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유족들이 거부해 민생 법안들도 함께 볼모로 묶여버렸다.

북한은 교황이 방문하는 동안에도 미사일을 쏴대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적화를 꿈꾸고 있는 북한을 동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용서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의 266대 후계자인 교황이지만 가족에게 닥쳐온 불행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 19일 아르헨티나에서 조카 가족 3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다. 인간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 생로병사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교황 방한과 불교계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이 지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한했다. 교황은 가톨릭 성지와 광화문 시복식 등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세월호 유가족, 위안부 할머니, 밀양 송전탑 주민, 강정 마을 주민 등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 청빈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감화를 받았다. 교황이 우리 사회에 던진 것에 대한 불자들과 SNS의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수행자로 살고 있는가?



법안 스님
조계종중앙종회 부의장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숙제를 던지고 갔다. 힘없는 약자와 소수계층에게 거리낌없이 다가가 보듬는 교황의 모습에서 우리 시대의 지도자상을 볼 수 있었다.

이번 방한에서도 그는 기꺼이 낮은 곳으로 향했고, 낮은 곳의 사람들을 만나 위로했다. 이에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다. 거꾸로 말해 이런 교황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우리 사회에는 이 같은 행보를 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교황은 사랑과 청빈을 덕목으로 하는 종교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교황이 방한에 보여준 '진정성' 에도 주목해야 한다. 진정 고통받는 이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위로하려 했던 모습은 정치적 수사에 집중하는 우리의 지도자들과 사뭇 달랐다.

교황 방한을 통해 불교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수행자의 삶을 철저하게 살고 있는지, 어려운 사람을 먼저 보듬고 있는지, 불의와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비판하는지. 우리에게 철저해져야 한다.

권위를 버리고 사회로 나서라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이 지난 8월 18일 4박 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떠났다. 그의 방한의 여파는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

무엇보다 교황의 낮은 곳에 임하는 리더십은 한국사회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갔다.

그동안 한국불교를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은 대부분 권의주의적 모습을 보여왔다. 자신의 권위와 권력에 안주하려했고, 사회적 책임에는 등한시 했다. 하지만 교황은 권위를 부숴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했다.

이 같은 모습은 당장 가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치 전환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다.

이제 우리 사회에도 교황의 낮은 리더십에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한국불교는 사찰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정말 음지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또한 사회 정의를 해치는 권력에게는 따끔한 일침을 던져야 한다.

사랑, 마음, 사람 교황의 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사랑, 한국, 마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교황이 이번 방한에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ekaquarius_star

동생에게 '왜 요즘 한국영화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냐'고 물었다. "명량은 교황 방한에서 보듯 '리더의 부재', 해무는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 '인간성의 부재', 해적은 몇 달 째 침울한 '낙(樂)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위터@csj8454

'세월호 추모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수 있다고 생각치 않았느냐' 질문에, 교황 "세월호 유족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 AP통신이 꼽은 교황 방한 하이라이트. 트위터@5zaro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머물렀던 4박 5일의 짧은 기간은 우리 사회의 위정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얼마나 방기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다. 고통을 외면하는 사회로 남을 것인가. 트위터@songsun21

社說

'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돼야

서산, 영규, 사명 대사는 한국불교의 선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호국불교 정신을 길이 빛낸 의승들로 유명하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업적을 조명한 영화 '명량' 이 8월 21일 현재 관객수 1천5백만명을 넘자 불교계 일각에서는 서산대사 업적을 조명한 영화도 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다. 이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은 불교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 국민적이다. 이에 조계종은 2년전부터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취지에서 '호국 의승의 날' 을 정해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다. 그동안은 준비단계에 그쳤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 부칠 것 같다.

조계종은 8월 27일 '호국 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 발족식' 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갔다. 발족식 행사 후에는 참석 내외빈의 서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호국 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의 위기때마다 불교는 의승군으로 활동하는 등 큰 기여를 했다. 서산대사는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평양성 전투에 참여해 왜적을 퇴각시켰고, 처영대사는 권율과 함께 행주산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사명대사는 노원평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한성 수복에 큰 역할을 했으며, 800여 명의 전라좌수영 의승은 수군이 승리를 거두는 데 공헌했다.

임진왜란 이후 조정은 스님들에게 나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등 산성의 축성과 수비를 승군에게 맡겼다. 일제강점기에도 스님들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등에 참여했고, 국내 독립운동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업적은 훨씬 많다. 충분히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명분이 있다. 정부도 이 취지를 깊이 살펴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한국불교의 호국애민 정신이 퇴색되지 않는다.

불교계 선거, 잡음 끝날 날은 언제

올해 조계종에서는 주요 교구본사 선거가 여러 차례 있었고, 현재는 불국사 한 곳이 남아 있다. 하지만 주지 선거 과정이나 이후를 보면 그 모습이 깔끔하지 못하고 온갖 잡음이 들린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종정 진제 스님의 주석처인 팔공총림 동화사는 주지 교체를 두고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前 주지 성문 스님은 진제 스님이 효광 스님을 차기 주지로 지목한 임회에서 일어난 괴한 사건은 종정 예경실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했고, 이는 양 진영간의 마찰로 이어졌다. 결국 원로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덕문 스님이 현 주지로 임명되면서 내홍은 일단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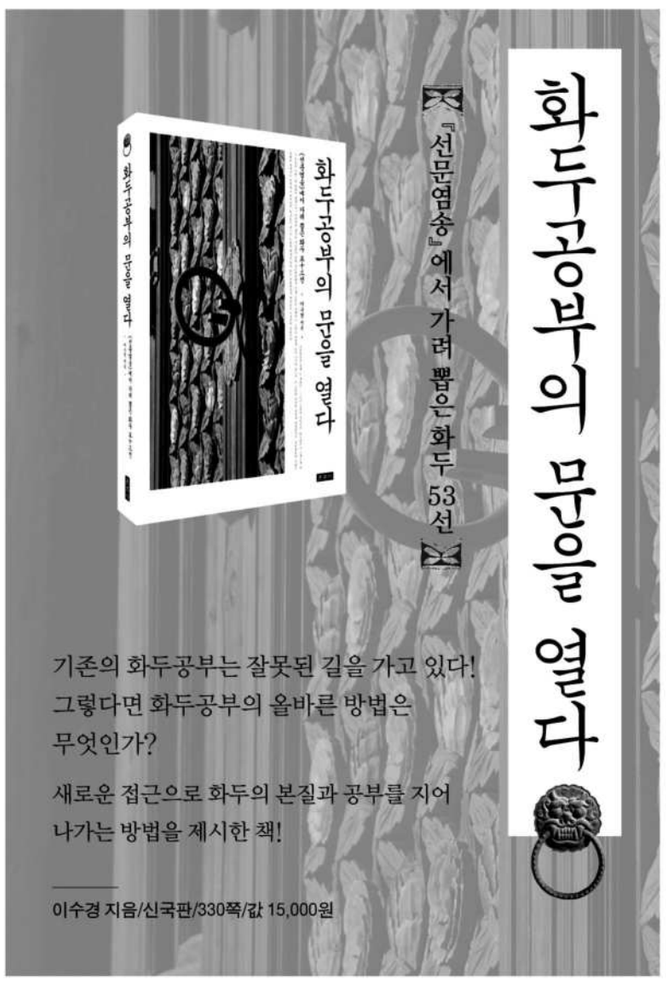
최근 있던 용주사 주지 선거도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했다. 용주사 운영위원회는 성관 스님을, 월암 문도회는 성월 스님을 추천했다. 전강 문도회의 최고 어른인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유사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고, 후보 스님의 승적에 대한 진정도 이뤄졌다. 8월 20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성월 스님이 선출됐다. 하지만 선거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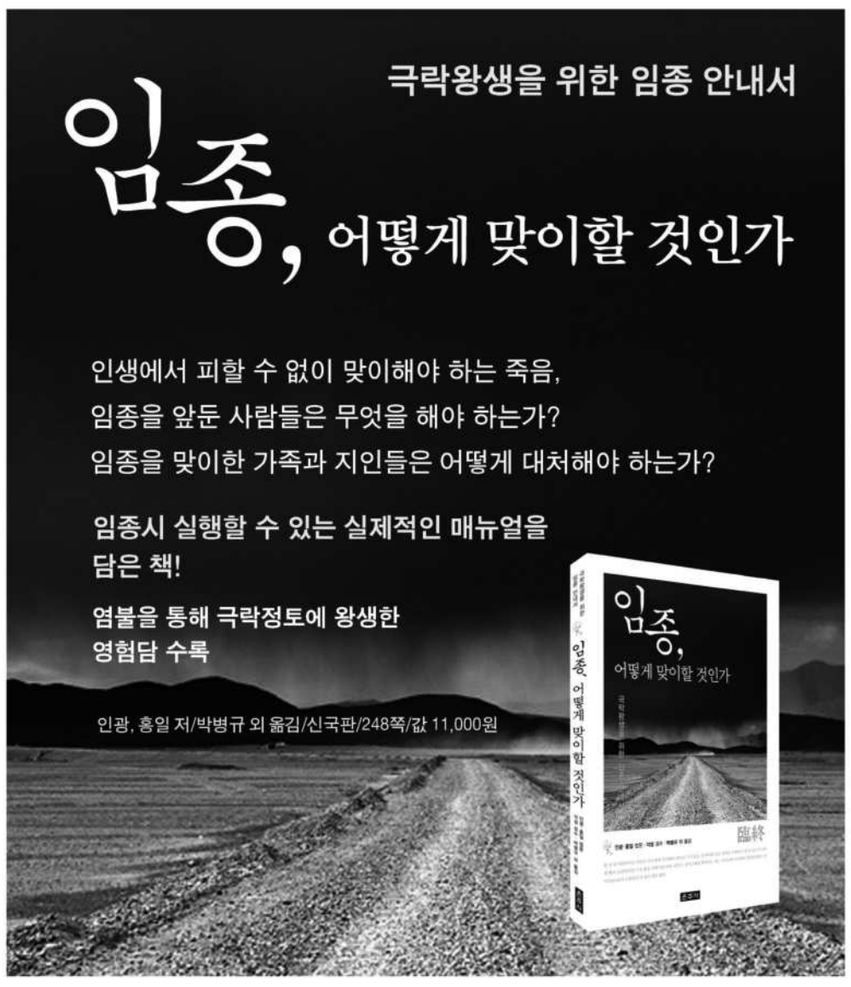
여기에 마곡사는 지난 주지 선거에서 현 주지 원경 스님과 함께 출마했던 태진 스님 모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해 형사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재판 회부에 앞서 마곡사 산중총회에서의 돈이 오고간 정황들을 광범위하게 파악했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중벼슬은 닭벼슬보다 못하다' 는 불가의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주지 선거는 정말 좋은 종책과 교구 발전 방안을 가진 스님들이 경합을 벌여 더 좋은 스님을 선출해야 하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

그렇기보다 현재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선거는 상대를 이기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세간의 선거판과 흡사한 현 모습은 승가적 모습이 아닐 것이다. 언제쯤 주지 선거의 잡음이 없어질 런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여시아문 추천 불서(12)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그대 안의 신령스런 불씨를
되살려 활활 타오르게 하라!

불씨

지문스님 지음 | 양장 | A5 | 318쪽 | 13,000원

"허공은 가장자리도 없고 중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중심이자 가장자리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도 끝이 없고 미래로도 끝이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이 바로 맨 처음이자 맨 마지막입니다."(본문 중에서)
1970년 부산 범어사로 출가, 광덕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은 후 범어사, 통도사, 극락암, 해인사 등에서 수선안거 한 지문 스님의 법문집. 저자는 우리의 참된 모습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완벽하다면서, 우리의 참된 성품도 신령스러운 빛으로 드러나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우리가 이 빛을 따라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욕심이 그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신령스러운 빛(불성)을 되살려 낼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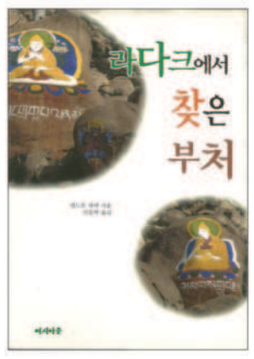


가까이서 지켜본
스님 85명의 진솔한 수행일화

스님 이야기

저자 지묵 | 448쪽 | A5 | 148*210 | 12,000원

수행길에서 만나는 스님과 불자들은 모두가 선지식이다. 15명의 스님들에 의해 쓰여진 85명 스님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진솔한 수행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은 책이다. 잘 알려지거나 높은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보다는 숨어있는 선지식과 수행자 위주로 구성을 하였다. 책에는 송광사 지묵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한국의 부루나존자'로 불리는 종범 스님, 20여년 가까이 장좌불와(長坐不臥)·오후불식(午後不食)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그동안 곁에서 지켜본 큰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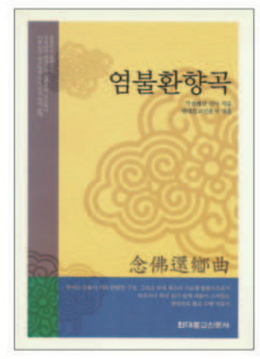


英 시인이 티베트 스승을 통해
영적으로 눈뜬 여정을 그린 책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앤드류 하비/연호택 옮김 | 신국판 | 377쪽 | 12,000원

인도 태생의 영국 시인 앤드류 하비(Andrew Harvey)가 라다크에서 만난 스승 링포체(Thuksey Rhinpoche)를 통해 얻게 된 영적 눈뜸의 과정을 그린 책. '라다크로 가기까지', '탐험', '링포체에게로' 순으로 구성된 이 책은 생태공동체의 한 원형공간으로 제기되고 있는 라다크 마을의 자연과 사람, 문화와 전통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비록 책 속이지만 링포체를 만나 그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의 말을 접한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입정 상태에 들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라다크에서의 체험을 하나하나 살려내 글을 옮겼다고 한다. 이 책을 저술하며 자신의 에고(Ego)를 죽이고 링포체의 마음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갔을 때 드러나는 지혜를 그대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마음의 고향(본래면목)을
찾아가는 염불 게송과
그 수행법 해설

염불환향곡 (해설집/독송집)

기성쾌선 지음 | A5 | 197쪽 | 7,000원(독송집 5,000원)

마음의 고향(본래면목)을 찾아가는 염불 게송과 그 수행법을 해설한 책. 18세기의 선지식인 '기성 쾌선' 스님이 지은 비교적 짧은 글로 부드러운 가요 형식을 취해서 알기 쉽게 불교를 소개한 글이다. 제목에서 보듯이 그 내용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여기서 고향이란 우리 마음의 본원을 이야기한 것이다. 중생들이 우주적 마음의 본원에서 빗나가, 고향을 떠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어떻게 본원을 회복하고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염불환향곡은 조선 영조43년에 경남 밀양군 화악산 운주암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이 환향곡은 장엄염불이면서 별곡처럼, 가요체로 엮어졌는데 가요체의 염불곡으로는 최초의 것으로 〈석문의범〉등에 나오는 장엄염불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다.



깨달음의 꽃을 피우기 위한
햇빛 · 물 · 대지의
자양분과도 같은 말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흥교스님 지음 | A5 | 374쪽 | 15,000원

"이 빛깔 저 소리에 끄달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입맛에만 맞추려 한다면 그대 자신의 삶은 어느 세월에 구가할 것인가. 이제는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되라."(본문 중에서)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불성의 본디 모습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산속의 절에서 들을 수 있는 풍경소리처럼 새로움을 일깨우는 흥교 스님(대각회 이사장)의 법문을 담고 있다. 저자는 33조사의 깨달음의 노래와 십우도 해설을 통해 마음공부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적 이론으로 접근해 본 불교의 가르침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석구석에 배치된 '달(진리)을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들(방편)'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 되어 누리는 자유의 삶을 추구한다.



대자유를 찾아 세속을 떠난
출가수행자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산빛 물든 사람들

정과스님 지음 | 302쪽 | 148*210 | 10,000원

봉암사, 해인사, 칠불사, 송광사, 상원사 등지의 선원에서 화두수행을 한 정과 스님이 출가 수행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주는 책. 자연 속에 삶의 무거운 짐을 내맡기고 진정 자유로운 삶을 찾아 세속을 떠난 스님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산기슭 빈집', '무아에 대한 오해와 혼란', '참회와 발원', '차라리 흘러가는 구름에게'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편안함과 한가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억겁의 윤회를 끊고 영원한 진리 속으로 들어서기 위해 마음을 다지는 수행자들의 일상이 잔잔하게 펼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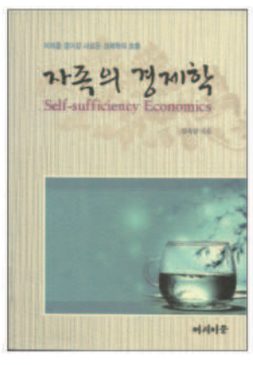


인생에 대한 사색과 지혜
담긴 수필 · 판화로 힐링을!

작대기 (힘들 때마다 당신의 삶을 받쳐 줄)

장용철 지음/정병례 판화 | 161쪽 | 148*210 | 9,000원

오가는 지하철 구내에서 인생에 대한 사색과 지혜의 편린을 만나게 해주는 '풍경소리'의 작가 시인 장용철의 촌철살인의 지혜가 담긴 예화들을 담은 책. 여기에 전각작가 고암 정병례의 판화를 함께 엮었다. 이 책은 지하철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풍경소리'의 게시판에 실렸던 글과 수상집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에 수록되었던 글, 그리고 인터넷 상에 있는 저자의 글이 담겨 있다. 버릴 수도 없고, 끝까지 지고 가기도 벅찬 등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받쳐주는 작대기 역할을 해주는 글을 모아 엮었다.



탐욕 · 집착 벗어난 새로운
불교경제학의 패러다임 제시

자족의 경제학

김옥암 지음 | 229쪽 | 128*188 | 11,000원

자유시장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며 순환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더불어 인간이 물욕을 좇는 만큼 그 희비쌍곡선은 클 수밖에 없고 그 어디서도 진정으로 행복한 경제는 만날 수 없게 된다. 뿐만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이 현대인에게 미치는 파급력 역시 만만치 않다. 그 좋은 예가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상태에 빠지게 한 지난 2008년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이다. 그 일을 계기로 세계의 지성들은 다시 한번 따뜻한 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자족의 경제학'은 그 따뜻한 경제론 중에서도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탐욕의 경제사상을 제어하고 소욕지족의 경제사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안동대 경제학과 김옥암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소욕지족으로 만족하는 불교경제학의 이론적 모색과 체계의 구축을 꾀하고 있다.



정일선사의 인가를 받은
능허거사의 화두참선 구도기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 지음 | A5 | 238쪽 | 12,000원

정일 선사(선학원 이사장 역임)의 가르침과 그의 인가를 받은 능허 거사의 간화선 수행과 화두 타파 이야기. 저자는 한때 세속의 부와 영예를 누리고 살았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다. 그는 전국의 유명 기도처를 오가며 불교의 깨달음을 갈구하던 중 1998년 서울 보광사 조실이었던 정일 큰스님을 만나 용맹정진하여 4년만에 부처님 법의 이치와 인과의 도리를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무(無)'자 화두를 참구하여 1년만에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두 공안 '덕산탁발화'와 '파자소암'의 관문을 3년만에 타파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김해에 바라밀선원을 세운 저자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어찌해야 아이들의 삶 속에
불성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반야의 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

김종서 지음 | 231쪽 | 148*210 | 9,000원

지난 30여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불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는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서 박사(2013 대한민국 평생교육 '명예의 전당' 헌액자). 그는 개인주의와 가족이기주의, 물질 위주의 사고가 팽배한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돌려놓을 수 있는 비방으로 '생활 속의 불교교육'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불법의 도리를 풋대로 삼은 자녀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담고 있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생각과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서, 부처님이 우리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인간이란 어떤 기대의 제시를 받고 이를 확신하면 제시된 기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자기 충족 예언"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적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 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